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博士學位論文

제주여성노인의 성공적 노화 인식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濟州大學校 大學院

가정관리학과

康 起 銀

2014年 2月

The Effects of Perceived Successful Aging of
Jeju Elderly Women on Life Satisfaction

Kang Gi-eun

(Supervised by professor Kim Hye-sook)

A thesis submitted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
for the degree of Doctor of Science

February 2014

This thesis has been examined and approved.

Department of Home Management
GRADUATE SCHOOL
JEJU NATIONAL UNIVERSITY

제주여성노인의 성공적 노화 인식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指導教授 金 惠 淑

康 起 銀

이 論文을 理學 博士學位 論文으로 提出함

2014年 2月

康起銀의 理學 博士學位 論文을 認准함

審査委員長_____

委 員_____

委 員_____

委 員_____

委 員_____

濟州大學校 大學院

2014年 2月

목 차

목 차	i
표 목 차	iii
그림목차	v
국문초록	vi
I. 서 론	1
1. 연구 배경	1
2. 연구 목적	3
3. 연구 내용	4
II. 이론적 배경과 선행연구	5
1. 성공적 노화	5
1) 노인의 개념	5
2) 노화의 개념	6
3) 성공적 노화의 개념 및 의의	9
4) 성공적 노화 이론과 모델	14
5) 성공적 노화 구성요인	24
2. 제주 여성 노인	29
1) 제주 여성	29
2) 제주 여성 노인의 특성	32
3. 삶의 만족도	38
1) 삶의 만족도의 개념	38
2) 노인의 삶의 만족도	43
4. 선행연구	45
1) 제주여성노인과 관련된 성공적 노화 선행연구	45
2) 삶의 만족도와 관련된 성공적 노화 선행연구	49
3) 지역과 관련된 성공적 노화 선행연구	52
III. 연구방법	56
1. 혼합연구방법	56

2. 연구가설 및 문제	56
3.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방법	60
4. 연구도구	62
5. 자료분석방법	65
IV. 여성노인의 성공적 노화와 삶의 만족도에 대한 양적 분석	67
1. 연구대상의 특성	67
2. 조사도구의 타당도 및 신뢰도 검정	69
3. 분석결과	73
1) 가설 1의 검정	73
2) 가설 2의 검정	82
3) 가설 3의 검정	87
4) 가설 4의 검정	89
5) 가설 5의 검정	110
4. 소결	115
V. 제주여성노인의 성공적 노화에 대한 질적 분석	119
1. 연구대상의 특성	119
2. 제주여성노인의 성공적 노화에 대한 심층면접 결과	120
1) '나이듦'에 대한 인식	120
2) '성공적 나이듦'에 대한 인식	125
3. 소결	148
VI. 결론 및 함의	150
1. 결론	150
2. 연구의 시사점	153
1) 이론적 시사점	153
2) 실증적 시사점	154
참고 문헌	157
설문지	169
Abstract	174

표 목 차

<표 2-1> 성공적 노화 개념	13
<표 2-2> 성공적 노화 구성요인	28
<표 2-3> 삶의 만족도에 대한 정의	43
<표 2-4> 제주여성노인과 관련된 성공적 노화 선행연구	48
<표 2-5> 삶의 만족도와 관련된 성공적 노화 선행연구	52
<표 2-6> 지역과 관련된 성공적 노화 선행연구	55
<표 3-1> 설문지 구성내용	62
<표 3-2> 성공적 노화 척도	63
<표 4-1>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69
<표 4-2> 신뢰도 분석 결과	70
<표 4-3> 초기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71
<표 4-4> 최종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72
<표 4-5> 최종 신뢰도 분석 결과	73
<표 4-6> 연령에 따른 성공적 노화 인식 차이	74
<표 4-7> 학력에 따른 성공적 노화 인식 차이	75
<표 4-8> 종교에 따른 성공적 노화 인식 차이	77
<표 4-9> 배우자유무에 따른 성공적 노화 인식 차이	78
<표 4-10> 자원봉사경험유무에 따른 성공적 노화 인식 차이	79
<표 4-11> 소득에 따른 성공적 노화 인식 차이	80
<표 4-12> 주관적 경제수준에 따른 성공적 노화 인식	81
<표 4-13> 현재 직업 유무에 따른 성공적 노화 인식 차이	82
<표 4-14> 연령에 따른 삶의 만족도 차이	83
<표 4-15> 학력에 따른 삶의 만족도 차이	83
<표 4-16> 종교에 따른 삶의 만족도 차이	84
<표 4-17> 배우자 유무에 따른 삶의 만족도 차이	85
<표 4-18> 자원봉사경험 유무에 따른 삶의 만족도 차이	85
<표 4-19> 소득에 따른 삶의 만족도 차이	86

<표 4-20> 주관적 경제수준에 따른 삶의 만족도 차이	87
<표 4-21> 현재 직업의 유무에 따른 삶의 만족도 차이	87
<표 4-22> 성공적 노화 인식과 삶의 만족도간의 상관관계	88
<표 4-23> 성공적 노화 인식과 삶의 만족도에 대한 회귀분석	89
<표 4-24> 연령에 따른 성공적 노화 인식과 지역에 대한 이원변량분석	90
<표 4-25> 학력에 따른 성공적 노화 인식과 지역에 대한 이원변량분석	92
<표 4-26> 종교에 따른 성공적 노화 인식과 지역에 대한 이원변량분석	94
<표 4-27> 배우자유무에 따른 성공적 노화 인식과 지역에 대한 이원변량분석	97
<표 4-28> 자원봉사경험유무에 따른 성공적 노화 인식과 지역에 대한 이원변량분석	99
<표 4-29> 소득에 따른 성공적 노화 인식과 지역에 대한 이원변량분석	102
<표 4-30> 주관적 경제수준에 따른 성공적 노화 인식과 지역에 대한 이원변량분석 ·	106
<표 4-31> 현재직업 유무에 따른 성공적 노화 인식과 지역에 대한 이원변량분석 ·	108
<표 4-32> 성공적 노화 인식과 삶의 만족도 간의 상관관계(제주)	110
<표 4-33> 성공적 노화 인식과 삶의 만족도에 대한 회귀분석(제주)	111
<표 4-34> 성공적 노화 인식과 삶의 만족도 간의 상관관계(서울)	112
<표 4-35> 성공적 노화 인식과 삶의 만족도에 대한 회귀분석(서울)	112
<표 5-1> 연구대상자의 특성	119
<표 5-2> ‘나이듦’에 대한 인식	125
<표 5-3> ‘자녀와의 관계’에 대한 인식	129
<표 5-4> ‘자기통제’에 대한 인식	132
<표 5-5> ‘사회적 활동 및 지지’에 대한 인식	136
<표 5-6> ‘가족지향’에 대한 인식	139
<표 5-7> ‘자기효능’에 대한 인식	144
<표 5-8> ‘부부간의 관계’에 대한 인식	147

그림 목차

[그림 2-1] Baltes & Baltes(1990)의 보상을 수반한 선택적 최적화 원리의 역동성	20
[그림 2-2] Rowe & Kahn(1997)의 성공적 노화 모델	23
[그림 3-1] 연구모형	57
[그림 4-1] 연령에 따른 자기통제 인식과 지역에 대한 관계	91
[그림 4-2] 학력에 따른 자기통제 인식과 지역에 대한 관계	93
[그림 4-3] 종교에 따른 사회적 활동 및 지지 인식과 지역에 대한 관계	95
[그림 4-4] 종교에 따른 자기효능 인식과 지역에 대한 관계	96
[그림 4-5] 배우자유무에 따른 자기통제 인식과 지역에 대한 관계	98
[그림 4-6] 자원봉사경험유무에 따른 사회적 활동 및 지지 인식과 지역에 대한 관계	100
[그림 4-7] 자원봉사경험유무에 따른 자기효능 인식과 지역에 대한 관계	101
[그림 4-8] 소득에 따른 자기통제 인식과 지역에 대한 관계	103
[그림 4-9] 소득에 따른 가족지향 인식과 지역에 대한 관계	104
[그림 4-10] 소득에 따른 자기효능 인식과 지역에 대한 관계	105
[그림 4-11] 주관적 경제수준에 따른 자기효능 인식과 지역에 대한 관계	107
[그림 4-12] 현재직업 유무에 따른 부부간의 관계 인식과 지역에 대한 관계	109
[그림 4-13] 성공적 노화 인식과 삶의 만족도 영향관계	114

<국문초록>

제주여성노인의 성공적 노화 인식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장 기 은

제주대학교 대학원 가정관리학과

지도교수 김 혜 숙

이 연구는 제주여성노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성공적 노화에 대한 긍정적 방향제시를 위해 인구사회학적 요인에 따른 성공적 노화 차이관계와 성공적 노화 인식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관계를 밝히는데 그 목적이 있다. 양적연구와 질적연구를 병행하는 혼합연구방법을 채택하였다.

양적 연구의 대상은 제주와 서울지역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여성노인이다. 사용된 변수는 인구사회학적 요인, 성공적 노화, 삶의 만족도, 지역(제주, 서울)이다. 설문자료의 검정에는 SPSS 18.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t-test, 분산분석, 다중회귀분석, 이원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질적 연구의 대상은 제주여성노인 12명을 대상으로 ‘나이듦’, ‘성공적 나이듦’에 대한 연구문제를 가지고 심층면접을 하였다.

이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제주여성노인의 ‘자녀와의 관계’에 대한 인식에서는 자식에게 의존하지 않으려는 강한 독립생활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무엇보다 혼인한 자녀들과는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고 끝까지 자녀에게 기대지 않으려는 강한 의지로 이해할 수 있다.

둘째, 제주여성노인의 ‘자기통제’에 대한 인식에서는 60대와 70대, 중졸이상의 학

력인 경우, 배우자가 있는 경우, 소득이 50만원 이상인 경우 인식정도가 크게 나타났다. 더욱이 제주여성노인의 종교적 믿음이나 활동이 고독이나 고립감을 완화시켜 주고 정서적 안정감을 강화시킴으로써 ‘자기통제’에 대한 인식을 높게 한다. 제주여성노인의 ‘자기통제’에 대한 인식이 서울여성노인보다는 낮지만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력은 있었다.

셋째, 제주여성노인의 ‘사회적 활동 및 지지’에 대한 인식에서는 종교활동과 자원봉사경험이 있는 경우에 그 인식정도가 크다. 특히 심층면접결과, ‘적극형’인 제주여성노인이 사회적 활동을 통해 삶의 활력을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고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력은 서울여성노인보다 크다.

넷째, 제주여성노인의 ‘가족지향’에 대해서는 소득이 50만원 이상인 경우 인식정도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가족지향’에 대한 인식은 제주여성노인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력이 서울여성노인보다 크다.

다섯째, 제주여성노인의 ‘자기효능’에 대해서는 종교, 자원봉사경험이 있으며 소득이 150만원 이상, 주관적 경제수준이 보통 이상인 경우 인식정도가 높다. 경제상태가 높고 자기수입으로 생활하는 사람이 자기효능이 높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여섯째, 현재 직업이 없는 제주여성노인의 ‘부부간의 관계’에 대해서는 인식정도가 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제주여성노인의 ‘부부간의 관계’ 인식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력이 큰 것으로 나타나 제주가족의 특징인 부부중심가족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일곱째, 제주여성노인의 ‘나이듦’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 ‘노인’이라는 인식 자체를 부정하면서 현실에 대한 감사함과 받아들임 등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결과에서 제주 여성노인의 강인함과 순응성을 파악할 수 있다. 자신을 노인이라 인식하지 않을 경우 높은 만족감을 가지고 있고 자신의 삶을 성공적으로 보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결과를 통해 볼 때, 향후 제주여성노인관련 정책 수립시에는 가족관련 내용이 필수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나아가 노인 스스로 자신의 변화를 긍정적이고 삶의 질적 향상을 가져올 수 있도록 다양한 사회활동과 관련된 정책과 프로그램이 개발되어 제공되어야 한다. 그리고 홀로 된 노인을 위해서는 건전한 만남의 기회를 자주 만들어주는 행복증진 프로그램을, 배우자가 있는 노인을 위해서는 노년기 부부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함으로써 삶의 활력을 느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감사의 글

바쁜 논문 일정 속에서 마침표를 찍고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잠시나마 여유를 가져봅니다. 항상 부족함을 느꼈고 가끔 미루고 또 포기하고 싶은 생각도 많았지만 마지막까지 올 수 있도록 많은 격려와 도움을 주신 스승님과 가족, 친구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합니다.

제주도에 내려와서 가족학을 공부할 수 있는 기회와 논문시작부터 마칠 때까지 정성을 다하여 세심하게 지도해주신 김혜숙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힘을 주셔서 공부하는 자세와 학문에 대한 열정이 무엇인지를 어렵פות이 깨닫습니다. 부끄럽지 않는 제자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바쁘신 중에도 논문의 부족한 부분을 지적해 주시며 논문의 올바른 방향성을 제시해 주신 김진영 교수님, 김성준 교수님, 김봉애 교수님, 박차상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논문에 대한 고민을 함께 하며 힘들고 지칠 때마다 힘이 되어준 소중한 친구 교수진, 박운정, 정선언니, 김유진, 연하언니에게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서울에서 논문을 진행하면서 많은 도움을 주신 큰엄마, 기꺼이 시간을 내서 도와주었던 혜원, 희주, 용숙, 형수, 정민, 리향, 서연, 서현 그리고 제주대학교에서 박사과정을 시작하면서 희노애락을 함께 했던 은정이계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논문 막바지쯤 많은 조언과 용기를 주셨던 KDI 고일동 박사님께서도 감사드립니다. 항상 밝은 웃음과 넓은 마음으로 면담과 설문에 참여하여 주셨던 어르신들께 감사의 큰 절을 올립니다. 어르신들로부터 받은 귀한 삶의 지혜가 모든 어르신들께서 행복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는 연구자가 되겠습니다.

논문 완성을 위해 항상 새벽기도를 해 주시고 늘 한없는 사랑과 힘을 주셨던 시부모님께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공부하는 딸을 위해 어린 손주들을 돌보랴 고생하신 친정엄마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박사의 길을 가보셨던 친정엄마는 그 어려움과 힘들음을 알고 계셨기에, 순탄치 않았던 논문 쓰는 과정에서 언제나 일으켜 세워 주시고 깊은 사랑으로 저를 지켜주셨습니다. 언제나 힘이 되어 외롭지 않도록 사랑과 격려를 준 큰 오빠, 하나 새언니, 작은 오빠, 은경 새언니, 귀염둥이 조카 예준이, 아직 뱃 속에 있는 푸름이에게도 사랑을 듬뿍 담은 마음을 전합니다.

공부하는 아내를 이해해주고 묵묵히 격려로 함께 해 준 사랑하는 남편에게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유치원에서 빨리 집에 오고 싶어 했던 큰 아들 현서, 너무 어린 나이에 어린이집에 보내서 미안하고 아토피로 고생을 많이 해 엄마를 항상 그리워한 작은 아들 민유에게 감사와 사랑을 보냅니다.

제가 처한 상황에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엄마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열심히 했습니다. 눈물도 많이 흘렸지만 고요한 한밤의 적막 속에 공부를 하면서 겸손과 인내를 배웠습니다. 후회 없이 쓴 작은 결실이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기에 더 나은 학문적 결실을 위해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노력하겠습니다.

2014년 1월

연구자 강기은 올림

I. 서론

1. 연구 배경

현대사회에서 장수의 실현은 새로운 사회문제를 유발시키고 있다. 수명증가로 인하여 앞으로 어떻게 장기화된 노년기를 보내는가하는 문제가 현대사회 노인들의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었다. 길어진 노년기를 좀 더 독립적으로 보람있고 행복하게 보낼 수 있는가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노인을 바라보는 시각도 긍정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미래학자들에 의해 인간수명이 100세를 넘을 것으로 예견되면서, 등장하는 주요 화두 중의 하나는 고령사회의 중심 연령층으로 부상하게 될 노인들이 어떻게 하면 심신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잘 나이들 수 있는가하는 것이다. 고령화와 장수화가 가속되는 현대 사회에서 주목할 점은 남성에 비해 보다 오래 사는 여성이 훨씬 더 많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여성노인의 경우 남성보다 긴 수명과 배우자와의 연령차이로 인하여 노후에 혼자 남겨지는 기간이 남성노인보다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수명은 남성보다 길지만 여성노인은 폐경기 이후 심장질환이 늘어나며 많은 질환을 앓고 있고(김미령, 2008), 남성노인보다 우울증이 많으며(이인정, 2007), 배우자 상실 후 경제적으로도 어려움을 겪는 등(박충선, 1990) 삶의 질 면에서는 남성노인보다 힘든 생활을 하고 있다. 이러한 여성의 취약성(김정석, 2003)은 전 생애주기를 통해 지속되므로 여성노인이 겪는 문제는 노년기라는 생애주기상의 특정시점에서 발생하는 문제뿐만 아니라 이전의 생애주기단계에서 누적된 문제들이 서로 중첩되면서 심화된 결과이기도 하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노인층의 여성비율의 증가, 즉 노령의 여성화(feminization of old age)현상은 여성노인이 직면하는 노후문제의 특수성으로 인해 주요한 학문적·정책적 관심이 되고 있다(이진숙, 2001). 그리고 웰빙(well being)에 대한 사회 전반의 관심이 노화를 잘 하는(well aging)쪽으로 넓혀감으로써(이경숙, 2011) 성공적 노화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게 되었다.

그동안 노인에 대한 연구는 노인문제 등 부정적인 측면에서 이루어졌으나 노화와

정의 전체적인 발달을 이해하기 위해 노화의 다른 측면들에도 초점을 맞출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노인에 대한 인식(박상복, 2010)이 부정적 이미지에서 긍정적으로 바뀌면서 노화과정에 의해 신체적, 인지적 기능의 쇠퇴나 기능 상실이 있다하더라도, 노년기에도 발달시킬 수 있는 잠재력을 발현하고,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수행하며, 개인적으로 생산적이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고자 하는 것이 오늘날 노인들의 욕구이다.

이러한 노년기의 삶은 병리적인 노화나 정상적인 노화와 구별하여 성공적인 노화(successful aging)란 개념으로 통용되고 있다. 성공적 노화란 건강하게 오래 살고, 생산적이며 만족한 삶을 살면서 늙어가는 개인의 특성을 말하는 개념으로 정의되어진다. 이렇듯 성공적인 노화라는 개념이 보편적으로 적용되더라도, 성공적인 노화를 나타내는 삶의 지표는 문화적인 특수성도 지니게 된다. 문화가 환경적응의 메카니즘이라는 측면(유철인, 1986)에서 제주문화를 한국 문화 안에서 도서문화라는 독특한 하위문화로 볼 수 있다. 예로부터 육지부와 다른 제주 여성의 특성이 주목받아 왔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에 제주여성노인의 성공적 노화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고자 한다.

제주여성노인의 특성에 주목하고 그들을 대상으로 성공적 노화 인식과 삶의 만족도의 관계에 대해 집중하면서, 그 특성을 보다 잘 드러내기 위해 제주지역과 대비될 수 있는 서울을 선택하여 비교 분석하는 방법을 취하였다. 비교 지역으로 선택된 서울은 우리나라의 수도로써 육지부의 대표성을 지니는 곳으로 제주지역과 많은 점에서 상이한 특성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지역의 역사성, 도시화 수준, 산업 및 인구구조, 물리적 자연환경, 사회이동의 개방성과 폐쇄성 정도, 문화 및 사회적 삶의 양식 등에서 제주지역은 서울지역과 차이성을 잘 드러낼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서울지역이 산업화 과정에서 도시성의 전형을 보인다면 제주지역은 산업화의 속도가 더디고 공동체적 문화와 삶의 양식이 아직도 일상생활에서 지탱되는 기반구조를 여전히 가지고 있다.¹⁾ 다른 지역의 여성노인에 비해 제주여성노인의 강인성, 독립성, 근면성이 유달리 부각되는 것도 제주사회가 가지고 있는 환경적, 문화적 독특성을 반영한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제주도는 다른 지역에 비해 산업화 수준이 낮아 자연환경과 사회환경의 쾌적성이

1) 제주의 사회구조, 사회문화적 특성에 대한 글로는 조성윤(1998), 신행철(1991, 1994, 1997) 김혜숙(1992), 이창기(1982, 1992, 1993), 김진영(1989), 유철인(1986), 송성대(2004), 김항원 외(2000) 등을 참조할 수 있다.

높다고 알려져 있다. 그러나 사람은 주어진 객관적 조건에 단순히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가치판단에 기초하여 그 객관적 조건을 나름대로 평가한 후 그 평가에 기초하여 반응한다. 이 때문에 객관적으로 아무리 쾌적한 환경이라 하더라도 그것에 대한 각자의 주관적 평가에 따라 만족의 정도가 달라지고, 이 만족의 정도는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한국지방행정연구원, 1982), 궁극적으로 자신의 삶에 대한 만족도로 연결된다(정대연, 1997)고 볼 수 있다.

또한 성공적 노화 역시 노인들마다 질적으로 매우 다르다. 사람들은 저마다 개인적인 삶의 역사를 가지고 있어서 자신을 둘러싼 환경에 의존해 서로 다른 능력, 서로 다른 기질을 가지고 있다고 가정한다. 그래서 성공적 노화에 이르는 정상적인 길을 제안하는 대신 노인들에게서 다양하게 나타나는 일상적인 과정들을 인정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연구는 제주여성노인의 성공적 노화 인식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 양적 조사와 더불어 심층적 면접을 진행하고 제주여성노인의 성공적 노화 인식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이 어떠한지 살펴보고자 한다.

2. 연구 목적

노인인구가 증가하고 이에 따라 노인의 문제가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학문적 측면에서도 노인의 삶의 질에 대한 다양한 접근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 중 핵심적인 사항은 성공적 노화에 관한 논의와 성공적 노화 인식이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인을 찾아내는 것이다.

이 연구는 제주여성노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성공적 노화의 긍정적 방향 제시를 위해 제주여성노인의 인구사회학적 요인에 따른 성공적 노화 차이관계와 성공적 노화 인식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관계를 밝히는데 그 목적이 있다. 삶의 만족도가 어떤 시기, 어느 지역을 막론하고 확실적인 조건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성공적 노화 인식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력에 있어서 지역(제주, 서울)에 따라 차이를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심층면접을 통해 제주여성노인이 각자 다르게 지각될 수 있는 성공적 노화의 측면이 무엇인지를 밝히고자 한다.

3. 연구 내용

이 연구에서는 여성노인의 인구사회학적 요인에 따라 성공적 노화와 삶의 만족도 차이관계가 어떠한지 알아보고 나아가 성공적 노화 인식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관계를 분석하였다. 그리고 인구사회학적 요인에 따른 성공적 노화 인식 차이와 성공적 노화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이 지역(제주, 서울)에 따라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지 살펴보았다. 여성노인의 성공적 노화 인식과 삶의 만족도에 관한 양적 분석을 통해 나타난 제주여성노인의 특성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하여 심층면접도 실시하였다.

이 연구의 구체적인 구성범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전체 6장으로 되어 있다.

I 장은 서론으로 연구배경과 목적을 서술하고 연구 내용을 제시하였다.

II 장은 이론적 배경과 선행연구로서 이 연구를 위한 이론적 기반이 되는 노인과 노화에 대한 정의, 성공적 노화의 개념과 관련된 주요모델, 구성요인을 정리하고 삶의 만족도에 대한 개념과 의미, 제주여성과 제주여성노인의 특성에 대해 살펴보고자 하였다. 그리고 제주여성, 삶의 만족도, 지역과 관련된 성공적 노화 선행연구들을 분석하였다.

III 장은 연구방법으로 이론적 배경과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혼합연구방법을 제시하였다. 혼합연구는 양적연구방법과 질적연구방법이 활용되었으며 이를 기술하고자 하였다.

IV 장에서는 연구의 타당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요인분석과 신뢰도 분석을 실시하고 여성노인의 성공적 노화 인식과 삶의 만족도에 관한 양적분석을 통해 제시된 5가지 가설들을 검정한다.

V 장은 제시된 5가지 가설들 중 가설 4와 가설 5에서 제주여성노인의 특성이 나타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제주여성노인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실시하고 분석하였다.

VI 장은 제주여성노인의 성공적 노화 인식과 삶의 만족도에 관한 논의 결과를 요약정리하고 연구의 시사점과 향후 과제를 제시하였다.

Ⅱ. 이론적 배경과 선행연구

1. 성공적 노화

1) 노인의 개념

‘누가 노인인가’, ‘노년기(old age)를 몇 세부터로 규정할 것인가’, 또는 ‘노인의 기준을 무엇으로 가늠할 것인가’를 결정하기는 매우 어렵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람이 나이를 먹어간다는 것은 흔히 생각하는 생물학적인 퇴화만을 의미하지 않고 심리적 및 사회적 여러 가지 요인과 관련하여 나타난다. 즉, 늙음이란 단순히 인간이 살아가는 생물학적 과정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대의 사회·문화·정치·경제 등 여러 요인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것이다.

둘째, 노화의 개인차에서 오는 문제이다. 즉, 한 개인의 노화과정은 정신연령과 생리적 연령이 개인에 따라 다를 뿐 아니라 역연령(曆年齡)과 생리적 연령이 일치하지는 않는다. 즉, 노화가 시작되는 시기는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을 뿐 아니라, 한 개인의 신체 각 기관 역시 노화의 시기와 속도 및 정도가 모두 다르게 나타난다. 따라서 노인이라는 선을 몇 세부터 그을 수 있는지는 더욱 어려운 일이라고 할 수 있다.

노인이란 인간의 노화(aging)과정에서 나타나는 생리적·심리적·환경적 변화와 행동의 변화가 상호작용하는 복합형태의 과정에 있는 사람이라고 정의하였고(모선희, 2006), 노인을 생리적·생물학적인 면에서 쇠퇴기에 있는 사람, 심리적인 면에서 정신기능과 성격이 변화되고 있는 사람, 사회적인 면에서 지위와 역할이 상실되어 가는 사람(박정식, 2011)이라고 정의하였다.

노인의 개념은 이론적으로나 실제적으로 특정한 사회의 경제·문화적 배경에 따라 다르게 정의할 수 있다. 학자에 따라서도 다양하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는 노인은 고령으로 인해 생리적, 심리적, 정서적, 행동적 측면에서 감퇴현상이 일어나는 시기에 있는 개인이라고 규정한다고 해도 실제로 노인이 되는 시기, 즉 ‘노령선’을 어디에 두는가 하는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다고 할 수 있다. 즉, 노인에 대한 개념은 노화에 대한 노인 자신의 주관적 의식과 객관적 상황에서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자신이 스스로 노인이라고 자각하는 노성(老性) 자각 연령은 실제로 사회적 계

층이나 성별 혹은 동료집단 등에 따라 다양하다(김태현, 2008).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생체적 기준인데,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1)의 조사에 의하면 65세 이상 노인의 83.7%가 '70세 이상은 돼야 노인으로 본다'고 답변했다. 주관적 기준이기는 하지만 과거에 비해 크게 높아진 것이다. 나이가 들면 체력이 떨어지기 마련이지만 몇 세가 되면 노인으로 접어든다는 절대적 기준은 만들기 어렵다. 동일한 나이에도 사람마다 격차가 너무 크기 때문이다(김혜숙·강기은, 2013).

노인복지법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노인은 생애연령을 기준으로 65세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고령자 고용촉진법에서는 55세 이상을 고령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국민연금법에서는 노령연금 급여대상자로서 만 60세를 노인으로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 기초노령연금법 제3조에 65세부터 노령연금을 지급 받을 수 있고, 또 노인복지법 제26조에 경로우대를 받을 수 있다고 해서 65세부터 노인으로 간주하고 있다.

노인이라는 개념은 개인 자각(self-awareness)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노화의 복합적인 측면이 고려되어 노인이 살고 있는 환경과 경제적·사회적·문화적 배경과 시대적 변화에 따라 다양하겠지만, 이 연구에서는 만 65세 이상을 노인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2) 노화의 개념

사람뿐만 아니라 우주의 모든 생명체는 태어나는 순간 자연으로 되돌아가도록 프로그래밍 되어 있어, 우리 몸도 나이를 먹으면서 변화를 겪게 된다. 이를 의학적으로 '노화(老化)'라 하고, '나이 들어감에 따라 생명체의 각 장기기능 혹은 그것들을 통합하는 기능이 저하되고, 개체의 항상성을 유지하는 것이 불가능해지면서 마침내 죽음에 이르는 자연스러운 과정'이라 정의된다(김동환 외, 2013).

노화란 Stanly Hall(1922)이 최초로 만들어낸 개념으로 노년기 과정에서 정상적 노화(normal aging)와 노쇠(senescence)의 의미를 포함한다. 정상적 노화(normal aging)란 유기체가 정상적인 환경조건 속에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 자연스럽게 일어나게 되는 변화를 말한다. 또한 노쇠(senescence)란 생물학적 측면에서 말하는 노화로 재생적인 생물학적 과정(regenerative biological process)보다 퇴화과정(degenerative processes)이 더 빠르게 진행되어 결국 유기체의 파괴가 일어나게 되

는 시기를 말한다. 그러므로 노쇠(senescence)과정은 정상적인 노화의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박경숙, 2011).

노화(Aging)는 본래 감퇴(decline), 변화(change), 발달(development)의 세 차원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Vaillant & Mukamal, 2002). 생물학적 관점에서 쓰이는 노화란 성장과 반대되는 개념으로 유기체의 세포, 조직, 기관 등이 쇠퇴하기 시작하여 불가피하게 죽음에 이르는 과정 즉, 성숙기 이후의 생체기관이 감퇴하는 변화를 의미한다. 그러나 발달학적 관점에서는 정자와 난자가 수정되는 순간부터 죽음에 이르기까지의 시기 동안 인간의 발달은 지속되고 있으며, 노화는 인간발달의 각 단계에서 일어나는 획득과 손실, 인간발달과정에서 나타나는 긍정적인 변화와 부정적인 변화를 모두 포함한다(윤형준, 2010).

노화는 인간의 정상적인 성장과 발달과정의 한 부분으로 생물학적·심리적·사회적 변화의 과정까지 다 포함되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남기민, 2007). 이러한 세 가지 측면에서의 변화과정을 포함하여 ‘노화’에 대한 개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생물학적 노화는 신체와 기관과 체계의 구조 및 기능이 시간의 경과에 따라 변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세포와 분자 수준에서 노화에 관한 이론은 일반적으로 두 가지로 대별된다. 노화가 이미 유전적으로 예정되어 있다는 것과 노화가 우연히 발생한다는 것이다. 노화예정론은 출생부터 사망에 이르기까지 인간의 발달은 생물학적 ‘시계’에 의해 지배를 받는다는 생각에 기초를 두고 있다. 이 시계가 여러 가지 변화가 일어날 적절한 시간을 정해준다는 것이다. 시력의 변화, 뼈에서의 칼슘 손실, 청력 감소, 그리고 폐 기능 감소 등이 노화예정론의 예라 할 수 있다.

노화가 우연히 발생한다는 이론은 개체들이 일련의 우연한 사건들로 인해 늙는다는 것으로 독성산소로 인한 유전자 손상과 일상 생활로 인한 단순한 소모 이론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대체로 노화는 생물학적인 변화나 감퇴의 측면에서 대표적으로 이해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보다 포괄적이며 전반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신체기능이나 감각기능의 저하뿐만 아니라 개인의 경험으로부터 나타나는 노령기의 심리적 특성까지도 포함한다.

둘째, 심리학적 노화과정이란 축적된 경험에 의해서 행동, 감각, 지각 기능, 자아에 대한 인식 등이 시간의 변화에 따라 변화하는 것을 의미하고, 퇴화와 성숙을 함께 내포하고 있는 자기조절과정이다. 비록 신체·인지적인 감퇴는 누구나 겪는 자연스런 현상이라 할지라도 이를 어떻게 수용하고 감퇴를 막느냐에 따라 그리고 자신

의 심리적인 욕구와 환경의 요구를 어떻게 잘 조절하느냐에 따라 노년은 퇴락의 계절일 수도, 풍요의 계절일 수도 있다는 것이다.

셋째, 사회학적 노화는 생활주기를 통하여 일어나는 규범, 기대, 사회적 지위 및 역할의 변화 등을 의미한다. 한 개인의 노화 정도는 어떠한가 또는 그가 노인인가 아닌가 하는 문제는 그의 신체적·정신적 조건과 관계없이 사회가 그를 대개 역연령을 기준으로 해서 노년기에 접어든 사람으로 보느냐 아니냐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사회학적인 측면에서 보면 노화란 나이가 드는 과정이며, 따라서 노인이나 노년기의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려면 사회학적인 연령의 의미가 어떠한가에 대해 이해할 필요가 있다. 즉, 사회학적인 의미의 연령은 우선 연령 그 자체가 하나의 사회적 위치 또는 지위의 성격을 띠며, 사람들은 그 지위(연령)와 상응한 사회적 역할을 수행하도록 문화에 의해 규제된다.

오늘날에는 사회가 산업화되고 사회구조가 고도로 분화되면서 노인이 수행해야 할 사회적 역할이 무엇인가 하는 역할 정의(role definition)가 점점 불확실해져가고 있다. 대부분의 인간은 자신의 존재 의의를 사회적으로 수행해 내는 역할에서 찾는 경향을 보인다. 사회가 바라는 역할의 수행을 제대로 못하거나 기대되는 역할의 내용 자체가 불확실해지면 그러한 상황에 처한 사람은 정체감 위기에 빠져 혼란스러워하거나 무력감을 느끼게 된다. 사람이 늙는 것을 싫어하거나 두려워하는 것도 본능적인 생에 대한 집착 외에 늙어가면서 사회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역할을 상실하는 데에 그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노화현상이 표면에 나타나게 되는 것은 중년기 이후일지 모르지만 인간은 출생에서부터 성장기를 통해 노화가 서서히 진행되고 있으며, 따라서 ‘노화’는 나이를 먹는다는 말을 뜻하는 ‘가령(加齡, aging)’으로 나타내고 있다. 이것은 인간이 출생에서부터 성장기를 통하여 노화가 서서히 진행되므로 ‘나이를 먹는다’는 의미에서 일컫는 말이다. 쇠퇴의 과정이나 진보 및 퇴화적인 변화가 인간의 연령증가로 나타나는 것이라는 견해(강신옥, 2009)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 노화란 인간의 노령화가 아닌 가령화의 시각에서 단순히 신체가 늙어가는 생체의 변화로서가 아니라 살아가는 삶의 모습의 변화로서의 인식, 즉 성숙함, 노련함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3) 성공적 노화의 개념 및 의의

종족을 초월해 인간의 늙어가는 모습은 매우 유사하다. 얼굴에 주름이 잡히고 흰 머리가 나며 생기가 떨어지고, 그리고 죽음의 그림자를 본다. 그러나 심리적으로 노화현상을 수용하고 적응해가는 양상은 사람마다 매우 다양하다. 어떤 사람은 노화의 위협에 사로잡혀 불평과 불만 속에서 사는 반면에, 노화에서 오는 수많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마치 흰 눈으로 덮인 겨울과 같은 평온함과 고상함을 지니고 마지막 삶을 즐기는 사람도 있다(한국노년학회, 2002).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처럼 성공적으로 노화해 갈 수 있을까?

성공적 노화의 개념은 기원전 44세기경 키케로가 썼던 훌륭한 노화(good aging)에 관한 수필에서부터 찾아볼 수 있다. 키케로의 수필에서 노화는 ‘불건강(illness)’과 혼동되는 개념이 아니라 긍정적 변화와 생산적 기능의 가능성을 포함한 성공적 노화의 개념(박형란, 2011)으로 제시되었다. 성공적 노화(Successful Aging)라는 용어가 학계에 전면적으로 부각된 것은 신노년학(New Gerontology)이 등장한 1980년대 이후의 일이다. 성공적 노화란 노년기의 바람직한 삶을 묘사하는 일반적이고 포괄적인 개념어로, 생산적 노화(Productive aging)나 적극적 노화(Active aging)와 상호교환적으로 사용되기도 하나 강조하는 측면(성혜영, 2005)은 상이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1986년 미국 노년학회 연례회의의 기조 주제로 성공적 노화가 소개되면서 이에 대한 개념과 정의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게 되었다.

성공적 노화란 개념이 과학적이지도 않고 객관적이거나 서술적이지 못한 것처럼 보이고 또한 그것이 과정을 말하고 있는지, 그러한 상태인지도 명확하지 않아 기존의 연구에서 사용된 다양한 기준은 성공적인 노화가 정의하기 어렵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Heckhausen & Schulz, 1995). 이렇게 일관된 합의는 부재하나 성공적 노화가 신체적·심리적·사회적·문화적 요인들을 포괄하는 다면적인 구조로 간주된다는 것은 분명하고(이경숙, 2011), 이러한 측면은 성공적 노화를 정의한 학자들의 견해를 살펴보면 잘 드러나 있다. 먼저, 성공적 노화에 관한 국외 연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질병의 영향이 없는 가운데 순수하게 가령(加齡)에 의한 변화만을 포함하는 정상적 노화와 질병에 의한 병리적 노화, 그리고 사회적·심리적·신체적·환경적으로 잘 적응하면서 진행되는 성공적 노화를 구분한 연구(Baltes & Baltes, 1990)에서는 성

공적 노화가 개인과 환경의 상호작용에 의해 결정되고, 비록 심각한 질병이 있더라도 죽음의 문 앞에서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의연하게 노화에 대처할 수도 있다고 주장한다. Heckhausen & Schulz(1995)은 신체의 생물학적 과정의 보존과 인지와 지적인 수행의 보존, 예술과 신체 영역에서 계속되는 성취 등으로 성공적인 노화를 정의하였고, Gibson(1995)은 성공적 노화에 대하여 자신과 다른 사람 모두를 만족시키는 신체적·사회적·심리적 안녕의 가능성이나 또는 그 수준에 도달하는 것이라고 정의하였다.

Baltes & Carsten(1996)은 건강, 삶의 질 및 주관적 안녕에 도달하고자 노력을 기울이는 것은 목표의 성취 여부를 떠나 노인에게 삶에 목적을 제공하는 것이고, 이것은 노화의 과정에 긍정적으로 기능하게 되므로 이러한 과정 자체가 성공적 노화의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건강상의 쇠퇴에도 불구하고 심리 사회적 건강과 삶의 만족이 높은 수준을 성공적 노화로 정의하고 있다.

Rowe & Kahn(1997)은 심리적 특성뿐만 아니라 건강 상태, 사회적 관계망, 신체적 및 인지적 기능과 생산적 활동 영역의 관련성을 분석하였다. 이 연구에서 낮은 질병률 및 질병과 관련된 장애 위험이 없을 것, 높은 수준의 정신적 신체적 기능을 유지하는 것, 인생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태도를 특성으로 들고 있으며, 이 세 가지 특성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을 성공적 노화로 정의하였다. 또한 긍정적이거나 바람직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성취하고 부정적이거나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것은 피하는 것으로 성공적 노화를 정의한 연구(Freund & Baltes, 1999)도 있다. Cavanaugh(1999)은 성공적 노화란 나이가 들어 늙어감에 따른 부정적인 변화의 징후가 거의 일어나지 않는 것이라고 분석하였다.

Fisher & Specht(1999)은 특별한 장애는 없지만 연령의 증가와 함께 나타나는 변화들로 질환에 걸릴 위험요소를 가지고 있거나 사회적 관계의 축소로 고독하고 활기차지 못한 나날을 보내는 노년과정을 보통의 노화(usual aging)로 정의하였다. 일반적인 노화를 노인의 노력과 환경의 적절한 통제를 통하여 극복하거나 지연시키는 것이 가능하다는 성공적 노화와 구별하여 제안하기도 하였다.

Strawbridge et al.(2002)은 전통적으로 성공적 노화란 생물학적 측면에서 주로 건강과 수명문제에 기초하여 정의됨으로써 일상생활의 활동이나 신체적 수행 정도를 중요시하였으나, 점점 심리적 측면을 중요시하고 인지적 기능의 최적화와 지각된 통제력, 지각된 자기효능감, 생활만족도 등으로 성공적 노화를 정의하였다.

하버드대학교 성인발달 연구의 일환으로 2002년 'Aging Well'이라는 저서를 통해 Vaillant(2002)는 성공적 노화란 어떤 것이며, 그것을 어떻게 이룰 수 있는지 40년간 종단적 연구를 통해 제시하고 있다. 사람들이 겪는 고통이 얼마나 많고 적은가보다는 그 고통에 어떻게 대처하는가를 집중적으로 분석하였다. 그가 주로 사용한 분석 도구는 고통이나 갈등, 불확실성에 대한 '무의식적 방어기제'였다. 방어기제를 잘 활용하면, 우리는 얼마든지 정신적으로 건강하고 양심적이고 유머러스하고 창의적이고 이타적인 인간이 될 수 있다고 분석하였다. 그러나 방어기제를 부정적으로 이용하면, 정신병 진단을 받고 이웃들로부터 외면당하고 사회에서도 부도덕적이라는 낙인이 찍힐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리고 Torres(2002)는 문화적 가치를 성공적 노화의 개념에 통합시키고 개인·문화마다 달라질 수 있는 다차원적인 영역들로 구성되어지는 것으로 보고 있고, 성공적 노화를 사회문화적으로 형성되는 개념으로 주장한 Tornstam(2003)은 사회적 가치체계가 성공적 노화를 개념화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한다고 보았다. 성공적 노화는 사회문화적으로 형성되는 개념으로서 이러한 사회적 가치체계가 성공적 노화를 개념화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한다고 보았다.

Mitchell(2006)은 노인의 연령, 성, 교육정도, 가까운 친척의 수, 친구와의 접촉 빈도, 재정적 건강, 만성적 질병의 수, 자기가 가한 건강, 청력 손실, 생활만족도가 성공적인 지표와 상관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성공적 노화의 핵심적인 정의를 살펴보면, 삶의 질은 그들의 삶과 목표, 기대치, 기준과 관심사가 자리한 문화와 가치체계의 맥락 내에서 개인이 인식하는 삶의 지위로 결정되며 신체적 건강과 심리학적 상태, 독립의 수준, 사회적 관계, 개인적 신념과 관계, 환경에서의 두드러진 특징 등 복잡한 방식들을 혼합한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기존의 성공적 노화가 결과적 개념이든 과정적 개념이든 서구의 노인들을 대상으로 그들이 생각하는 '성공적'이라는 삶의 가치가 반영되는 이론을 제시한 연구에서는 기존의 성공적 노화의 개념이 질병이 없거나 정상적인 신체기능을 유지하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질병을 가진 노인에게서는 심리학적인 요인이 보상 작용하여 성공적 노화가 가능하다고 제시하고 생리적·심리적·사회적인 요소가 서로 통합하는 성공적 노화의 개념을 제시하고 있다.

국내 연구들은 성공적인 노화를 삶의 질의 차원에서 정의하고 있는 연구(권중돈·

조주연, 2000; 최혜경·백지은·서선영, 2005)가 대부분이고, 노년기 이전의 생활을 계속적으로 유지하면서 주어진 상황을 기꺼이 수용하고 이에 적응하여 생을 만족스럽고 행복하다고 느끼고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노후생활을 영위하는 것으로 장기간에 걸쳐 개인의 가치와 자아개념 등에 의해 복합적으로 이루어진 개념(이경숙, 2011)으로 보고 있다.

국내연구에서 성공적 노화의 개념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성공적 노화의 개념을 문화마다 부여하는 의미가 다른 가치를 반영하면서 생물학적 노화에 국한하기보다는 신체·심리·사회적 변화와 함께 인간의 발달과정으로서의 결과가 아닌 적응의 과정으로 지속적인 성장으로 보고 있다(홍승우, 2001; 강인, 2003; 김미혜·신경림, 2005; 김영순, 2006; 강신욱, 2009).

둘째, 단순히 수명의 연장을 넘어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다양한 긍정적 개념을 하나로 압축하여, 자신이 추구하고자 하는 것을 이루어 개인의 잠재력을 최대화하는 것으로 성공적 노화를 정의하고 있다(홍현방, 2002; 조혜경, 2002; 박수경·문수경, 2005; 박종한, 2006; 강지애, 2007; 최혜경, 2008; 박경숙, 2011; 전은희, 2011).

따라서 성공적 노화란 과정이자 상태로써 개인의 삶의 과정, 즉 노년기의 급격한 변화 가운데 심리적·사회적으로 잘 적응함으로써 생리적·인지적 건강 등의 신체적 기능 수준이나 자아통합과 같은 심리적 기능수준, 사회적 지지나 인간관계 등의 사회적 기능 수준이 높아 이러한 요소들이 긍정적으로 결합한 상태라고 정의하고자 한다. 즉, 통합적 차원에서 신체적으로 건강하고 높은 수준의 인지능력을 유지하며 경제적으로 안정되고 가족 및 주변 사람들과 긍정적 상호작용을 주고받으며 사회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심리적으로 편안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국내연구에서 성공적 노화의 개념을 정리하면 <표 2-1>과 같다.

<표 2-1> 성공적 노화 개념

연구자	연구제목	연구내용
홍승우(2001)	노인의 일상생활과 성공적인 노화	최후의 상태가 아니라 계속 적응해 가는 과정
홍현방(2002)	성공적인 노화 개념정의를 위한 문헌 연구	자신의 한계를 받아들이고 성숙해지고 지혜를 얻으며 자아통합을 실현하는 것
조해경(2002)	성공적인 노화에 관한 연구: 노인들의 성인학습을 통하여	노화라는 부정적 한계를 주관적 의지로 극복하고 새로운 질적 변화로 승화시키는 것
장인(2003)	성공적 노화의 지각에 관한 연구	문화마다 부여하는 의미가 다른 가치를 반영할 수 있는 것
김미혜·신경림(2005)	한국노인의 성공적 노화 척도 개발에 관한 연구	노년기에 경험하는 다양한 심리변화나 신체변화, 사회변화에 잘 적응하고 적절하게 대처해나가는 과정
박수경·문수경(2005)	성공적 노화를 위한 신체장애노인의 심리적 임파워먼트 관련 요인 연구	장애노인이 자신의 상황을 해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원을 동원하고 또는 그들 자신의 욕구를 충족하고 삶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증진하고 향상시키는 사회적 과정이며 임파워먼트
박종한(2006)	성공적 노화: 개념과 전략	단순히 수명의 연장을 넘어서 건강한 노년, 생산적인 노년, 장애가 없는 노년, 인공지능이 감퇴되지 않는 노년, 존엄성이 유지되는 노년 등 여러 가지 다양한 긍정적 개념을 하나로 압축한 것
김영순(2006)	노년기 형제·자매관계특성이 성공적 노화에 미치는 영향 연구	노화를 생물학적 노화에 국한하기보다는 인간의 발달과정으로서의 신체 심리적 변화와 사회적 관계 변화에 적용하는 것
강지애(2007)	노인의 생산적 활동이 성공적 노화에 미치는 영향	최적의 노년기란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신체적, 정신적으로 건강하고 사회적으로 만족해하며 개인의 잠재력을 최대화하는 것
최혜경(2008)	한국노인들의 기대에 따른 성공적인 노화	진 생애에 걸쳐 성실하게 자신의 삶을 이루어 나가고, 규칙적인 생활과 적극적인 사회활동을 지속하며, 긍정적인 마음으로 자신의 노화와 노화로 인한 삶의 변화를 받아들이고, 화목한 가정을 이루는 것
강신욱(2009)	노인의 생산적 활동이 성공적 노화에 미치는 영향분석	결과가 아닌 적응의 과정으로 지속적인 성장발달을 의미
박경숙(2011)	노인 전문 자원봉사 활동이 성공적 노화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자신에게 주어진 노화라는 환경에 잘 적응하며, 자신이 추구하고자 하는 것을 이룰 수 있는 상태
전은희(2011)	여성노인의 성공적 노화 척도 개발 및 타당화	신체적으로 건강하고 높은 수준의 인지능력을 유지하며 경제적으로 안정되고 가족 및 주변 사람들과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주고 받으며 사회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심리적으로 편안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는 것

* 출처: 박경숙(2011) 재구성.

4) 성공적 노화 이론과 모델

노년기에 사람들이 추구해야 하는 역할이나 특성과 관련된 성공적 노화 이론은 다양한 측면에서 조명되고 있다. 대표적인 이론으로 활동이론(activity theory), 은퇴이론(disengagement theory), 지속성 이론(continuity theory) 등이 있다.

활동이론은 성공적 노화이론의 기초로 노인들도 중장년시절처럼 지속적으로 활동하고 퇴직으로 잃어버린 역할을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역할을 찾아야 하며 이와 같이 지속적인 활동이 성공적 노화의 핵심적인 바탕이 된다고 주장한다. 활동 이론은 Havighurst(1963)와 그의 동료들에 의해 처음 주장되었고, 그 후에 상징적 상호주의자인 Lemon, Bengston, Peterson(1972)에 의해 더욱 정교화되었다(김재중, 2007). 활동이론은 분리이론과 상반되는 개념으로서, 활동이 노년기를 최고의 만족에 이르게 한다고 말한 연구(강혜원, 2011)에서 노인들도 중년기의 사람들과 똑같은 욕구를 가지고 있으므로 중년기 때의 활동수준을 노년기에도 계속 유지하는 것이 성공적인 노후생활을 유지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하고 있다. 즉, 노년기의 축소된 역할에 저항하여 노인들은 잃어버린 역할을 대체할 만한 역할을 찾을 수 있을 때 만족스런 노년기를 보낼 수 있다는데 주목하고 있다.

활동이론(박경숙, 2013)에서는 높은 수준의 적응과 사기를 유지하고 젊고 적극적으로 사는 것 이상으로 노인에게 유용한 행동유형은 없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모든 노인들이 노년기에 지속적인 활동을 원하고 있지는 않아 사회활동 관계에서 개인의 인성 요인이 간과되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은퇴이론은 Cumming & Henry(1961)가 처음 주장하여 성공적인 노화(한국노년학회, 2002)란 계속 사회활동을 하기보다는 은퇴와 함께 사회활동을 줄이고 다른 사람과의 상호작용도 줄이면서 조용히 사는 것이 정상이며, 이는 노인 자신이나 사회를 위해 기능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 이론 역시 개인의 개성을 간과한 것이며 건강한 노인들의 사회활동 자체가 자연스럽고 정상적이라는 논지에 비판을 받고 있다.

지속성 이론은 활동이론과 은퇴이론의 취약점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등장하였다. Neugarten(1988)에 의해 제기된 이 이론은 사람은 연령의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나름대로 인성과 생활습관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노화과정에 어떻게 대처하고 적응하는가를 설명하는 중요한 변인이 된다고 주장한다. 즉, 사람은 젊은 시절부터 생활에

서 실천하고 있는 일관성 있는 태도와 행동유형이 나이가 들면서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어 자아존중감이나 생활만족도가 평생을 두고 지속적으로 확보된다고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이론 역시 노년기에 새로운 삶을 사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배제하고 있는 취약점을 안고 있다. 여성의 경우 나이가 들면서 더욱 적극적인 활동을 하며 만족스러운 삶으로 형성할 수 있음을 실제로 볼 수 있다.

Neugarten(1988)은 노인기를 전기 노인기와 후기 노인기로 분류하여 55세~75세의 전기 노인기는 비교적 일과 가족의 구속으로부터 자유로우며, 소득활동을 하는 경우가 많고, 새로운 것을 배우며 건강을 유지한다고 하였다. 또한 이들은 시간을 잘 활용하기를 원하며, 자긍심을 높일 수 있는 공동체 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원한다. 75세 이상의 후기 노인기는 특별한 보호와 보살핌이 필요한 연약한 노인층으로 보고 있다. 일종의 연습게임이라고 하면서 노화의 위기라고 여겨지는 일련의 생애 사건들을 실제로 기대, 예측할 수 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노화의 위기로 인해 겪는 노년기의 혼란과 갈등과 고난을 부정하면서, 산업사회에서 개인의 문화적 맥락에 따른 생애시기를 비판하고, 노년을 일의 세계로부터 소외되고 활력이 감소되는 시기로 여기는 개념으로부터 사회가 변하고, 의학이 발달함에 따라 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노년과 은퇴를 동일시하는 사회적 노화는 문화적 맥락에 따라 재정립되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성공적 노화를 설명하는 모델로는 대표적으로 Ryff(1989)의 통합모델(a model of unification), Baltes & Baltes(1990)의 보상을 수반한 선택적 최적화모델(a model of selective optimization with compensation; SOC), Rowe와 Kahn(1997)의 성공적 노화 모델(a model of successful aging) 등으로 파악할 수 있다.

(1) Ryff(1989)의 통합모델(a model of unification)

성공적 노화를 전 생애 발달, 개인적 성장의 임상적 이론, 정신건강으로 분리되는 심리학적 이론을 결합하여 새로운 차원의 통합모델을 제시한 Ryff(1989)는 성공적인 노화의 개념이 개인마다 문화와 역사, 환경적인 요인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되고 각 요인 간에도 경쟁적 개념이라고 보고 있다. 성공적 노화의 차원을 6가지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자기수용(self-acceptance)이다. 이는 자아와 자신의 삶에 대해 긍정적인 태

도를 지니는 것을 말하며, 다양한 측면을 인정하고 수용해서 과거의 삶을 긍정적으로 느끼는 것이다. 즉, 자신의 삶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는 것은 노년기의 심리적 안녕의 주된 핵심이다.

둘째, 타인과의 관계와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들 수 있다. 타인과의 신뢰 관계를 가지며, 정서적 친밀감을 주고받는 인간관계의 상호작용을 말하며, 다양한 사회적 관계망 형성과 이로 인한 사회적 지지에도 영향을 주면서, 인간관계를 이해하는 것이다.

셋째, 자기 결정적이며 독립적인 자율성(autonomy)이다. 특정 방법으로 사고하고 행동하게 하는 사회적인 압력이나 일상생활을 지배하는 규범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내면적으로 행동을 조절하는 개인적인 기준을 가지는 것이다.

넷째, 환경에 대한 숙달이다. 환경에 익숙해지는 것이며, 환경지배와 능력감을 가진 상태로서 복잡한 일련의 활동을 통제하며 주변의 기회를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노년기의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변화는 환경적인 요인과 더불어 시간적 적응이 필요하다. 이는 개인적인 욕구와 주변의 환경적인 상황이나 맥락에 알맞게 선택하고 창조하며 조절할 수 있게 해준다.

다섯째, 인생의 목표이다. 현재와 과거 그리고 미래의 삶에도 의미를 부여한다는 점이다. 이는 인생의 목표와 방향성을 갖게 해주고 그 목적과 신념을 유지해주며 삶에 뚜렷한 목표를 설정하게 한다.

여섯째, 계속 발달한다는 느낌을 가지는 개인적인 것으로 본다. 자신이 항상 발전하고 있고 자신의 잠재력을 실현한다는 느낌을 말하며, 시간이 지나면서 자아와 행동에 어떤 개선이 있다고 본다. 자아에 대한 지식과 효율성을 좀 더 반영하는 방식으로 변화한다.

이러한 Ryff(1989)의 통합모텔이론은 고전적 이론보다는 성공적 노화에 대한 방법을 잘 설명해 주고 있다. 즉, 노년기도 더 긍정적이고 발전적으로 보고 있으며, 성공적 노화를 위해 제시된 차원과 발달과제도 긍정적이다. 이러한 관점은 성공적인 노화의 관점(안정숙, 2010)이 어느 한 가지의 요인으로 집약하여 보는 관점보다는 보다 다양한 요인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개인적인 관점차원에서도 각 개인마다 다른 시각을 가지고 성공적 노화의 개념을 정의할 수 있다는 점이다.

한편 Ryff(1989)가 제시한 심리적 안녕감 척도는 성공적 노화를 측정하는 지표로 널리 사용되고 있으나, 지나치게 심리적 개념과 차원의 제시에 그쳤고, 실증적인 성

공적 노화에 대한 논의는 부족하다는 주장도 있다. 즉, Ryff의 통합모델은 경험적으로 보았을 때 중복되는 부분이 있다는 비평(송혜자, 2009)과 함께 지나치게 심리학적인 개념제시에 그쳤고 실제로 어떻게 성공적으로 노화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논의는 부족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2) Baltes & Baltes(1990)의 보상을 수반한 선택적 최적화모델(a model of selective optimization with compensation; SOC)

성공적 노화에 대한 보편적인 정의를 내리기 위해서 Baltes & Baltes(1990)는 ‘어떤 하나의 문화 맥락에서 주관적 요인과 객관적 요인들을 다 고려 한 후 체계적인 하나의 가치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성공적 노화(박은희·최혜경, 2010)가 어떤 자원을 우선 선택하거나 활용할지를 판단할 때 요구되는 선택과 최적화, 그리고 보상을 포함하는 과정(process)이고, 나아가 하나의 적응과정(adaption)이라고 확인된다. 다음은 성공적 노화를 7가지 전제들을 토대로 규정하였다.

첫째, 정상적(normal), 최적의(optimal), 그리고 병리적(sick/pathological) 노화 사이에는 질적인 차이가 있다. 정상적 노화란, 신체적 질병 또는 정신적인 병리현상 없이 나이 들어가는 것을 말하며, 최적의 노화란 발달을 증진시키고 노화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환경 속에서 늙어가는 것을 말한다. 또한 병리적 노화는 치매와 같은 노인성 질환에 의해 노화가 오는 것을 말한다.

둘째, 노화에는 개인 간 다양성(variability)이 존재한다. 즉, 노화에는 다양한 개인차가 있는데 이는 유전적 요인, 인생 전반에 걸친 경험, 병리적 현상 등 개인 간의 독특한 경험으로 인해 여러 가지 다양성이 존재한다.

셋째, 노년기에도 잠재적인 능력이 많이 남아 있으며, 학습능력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인지능력과 관련된 학습, 훈련, 운동 등 적절한 중재프로그램이 제공된다면 노년기에도 쇠퇴를 지연시키거나 예방할 수 있고 가소성이 발휘될 수 있다. 특히 많은 노인들은 실용적 지능과 관련된 실제적이고 단편적인 지적 영역의 학습에서는 잠재능력을 유지 또는 활성화시킬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노년기 전문가로서의 능력, 지혜, 성격 등은 젊은 시기보다 더 뛰어날 수도 있다. 또한 남성호르몬의 감소로 인하여 공격성이 감소하므로 다른 사람들과의 인간관계를 더욱 바람직하게 이끌어 나갈 수 있게 된다.

넷째, 잠재적인 능력과 변화가능성은 한계가 있다. 아무리 노년기에 잔여능력이 남아있다고 해도, 기억 및 학습능력에는 한계가 있으며 훈련 및 연습 프로그램의 효과에도 제한이 있다. 특히 기계적인 지적능력에서의 잠재능력은 감소한다.

다섯째, 지식과 기술은 연령증가에 따른 쇠퇴현상을 완화해 줄 수 있다. 즉, 어떤 일을 수행할 때 보조도구나 그 일과 관련된 지식을 활용함으로써 쇠퇴된 인지적 기능으로 보완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타자속도가 느려진 노인의 경우 문서의 내용을 미리 읽고 타자를 침으로써 타자 속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것이다.

여섯째, 연령증가에 따라 증가(gain)보다 감소분(loss)이 더 많아지는 경향이 있다. 예를 들면 지혜가 증가하는 이득의 정도보다 건강이 쇠퇴하는 손실의 정도가 더 커진다거나, 어느 한 가지 전문능력을 지키려면 다른 여러가지 측면의 능력은 감퇴 또는 기능이 손실된다는 점이다. 이것은 발달과정의 특성이며, 노화로 인한 적응성 또는 유연성의 상실 때문이다. 그러므로 노인은 여러가지 보상책략을 통해 개인 통제감이나 자기효능감 등을 유지할 수 있다.

일곱째, 자아(self)는 노년기에도 탄력적으로(resilient) 유지된다. 즉, 노인이 되어도 개인적 통제력이나 자기효능감 등에 별다른 쇠퇴가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으며, 이것은 세 가지로 설명할 수 있다. 우선 개인은 자아가 다중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 상황에 따라 효과적으로 달리 적응할 수 있다. 다음으로 노인은 욕구수준이나 인생의 목표를 수정하여 새로운 수준에 쉽게 도달할 수 있도록 행동한다. 끝으로 노인은 사회적 비교과정을 통해 새로운 준거집단을 형성한다. 따라서 자신의 능력 수준이 낮아지면 비슷한 상황의 노인을 비교대상으로 하여 조정해 나가게 된다.

이와 같은 7가지 노화에 대한 전제를 고려하면서 Baltes & Baltes(1990)는 성공적 노화 모형을 제시하고 변화가능성과 그 한계를 통합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노화에 따른 적응과정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첫째, 선택(selection) 요소는 연령이 증가하면서 쇠퇴와 감소가 증가하므로 높은 수행을 유지할 수 있는 어느 특정영역으로 수행범위를 제한하고 그 외의 다른 영역은 무시하는 책략이다. 즉, 환경적 요구와 개인적 동기, 기술, 생물학적 잠재능력 등이 일치하고 중요한 영역에 노력과 에너지 등 개인자원을 집중하는 것이 개인과 사회에 대한 적응기제가 된다. 그러므로 선택과정은 노화에 대한 개인적 조절과정이며 동시에 주관적인 만족에 순응하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비록 선택전략을 통해 수행범위가 줄어들든 하더라도 노년기에도 변형되었으나 효율성을 유지할 수 있는

삶을 즐길 수 있게 된다. 선택전략을 통해 개인의 기대 수준은 개인적 통제감뿐만 아니라 주관적인 만족감을 경험함으로써 조절된다. 예를 들면 만약 전직 스포츠맨이 하루에 10개 종목의 운동을 한다면 노년기에 들어선 후 체력이 떨어져 10개 종목 중에서 중요한 것들을 선택해 체력을 선택된 종목에 집중시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노년기 노인에게 있어서 상실에도 불구하고 선택의 중요한 의의는 목표에 대한 적응적인 자기조절 능력이 개인의 노력 방향을 돌리게 함으로써 대안적인 목표로 활용할 가능성을 가진다는 것이다. 이는 노인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새로운 목표를 가진다는 것은 달성할 수 없는 목표를 성취하려는 데서 오는 부정적 스트레스를 감소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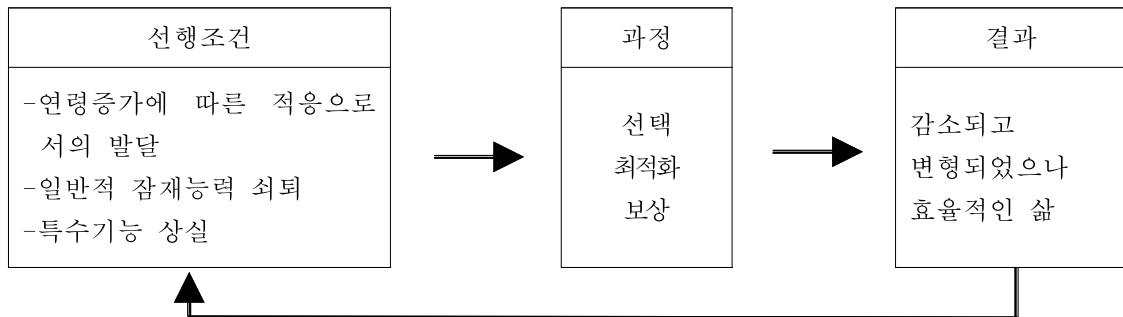
둘째, 최적화(Optimization) 요소는 노인들이 보존하고 있는 능력들을 선택한 다음 그것을 풍부하게 하고 증대시키는 것을 의미하는데, 양적·질적 측면 모두에서 노인들이 선택한 것을 극대화하는 노력을 말한다. 노인들도 개인의 잠재력을 활성화하고 자신의 적응성과 유연성을 검증하여 최적화 과정을 실행하며 효율적으로 기능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선택한 영역에서 능력을 최대화시키기 위해 자기가 갖고 있는 비축능력이나 자원을 유지하고 발달시킬 수 있다.

셋째, 보상(Compensation) 요소는 생물학적, 사회적 인지기능의 상실로 인해 문제 해결 상황에 대한 효율성이 떨어질 때 특정한 학습행동이나 다른 방법을 통해 발달의 상실 분을 보상하기 위해 사용하는 전략을 의미한다. 노인들은 어떠한 기능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그 능력이 수준 이하로 손실되거나 제거되었을 때 부정적 영향을 받게 되며 이에 따라 저항이 증가된다. 보상요소는 이러한 저항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신적 측면과 기술적 측면의 노력을 말한다. 예를 들어 정신적 보상 노력은 떨어진 기억능력을 보상하기 위해 타인의 도움을 받거나 새로운 연상법, 수첩사용, 메모 등 기억전략을 사용하는 것을 들 수 있으며, 기술적 보상노력은 보청기, 돋보기, 휠체어 등을 보완적으로 사용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보상을 수반한 선택적 최적화(SOC)모델(이경숙, 2011)은 노인들이 연령증가로 인해 신체적, 인지적, 사회적 영역 등에서 기능적인 상실과 잠재적 능력 등이 쇠퇴하거나 감소를 경험하더라도 이 책략을 사용하여 변형하거나 필요한 부분을 증진시켜서 효율적으로 삶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결론을 낼 수 있다.

Baltes & Baltes(1990)는 성공적 노화의 기준을 개인의 인식과 사회적 기대라는 두 요소에 따라 제정해 ‘선택, 최적화, 보상’이 수반된 전략적 모델을 구축하고 있다.

SOC의 역동성은 [그림 2-1]에 제시되어 있는 것과 같다.



[그림 2-1] Baltes & Baltes(1990)의 보상을 수반한 선택적 최적화 원리의 역동성

* 출처: 이경숙(2011) 재인용

SOC 역동성은 선행사항, 결과 및 구성과정의 역동적인 상호관련성을 보여준다. 우선 선행상황으로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개인의 적응형태가 다르게 나타나고, 정상적 노화과정에서는 생물학적인 취약성이 나타나며, 환경의 요구에 대한 일반적인 잠재능력이 감소하고, 특정영역에서의 기능이 손상되는 경험을 하게 된다는 가정이 선행한다. 그 다음으로 SOC 대처전략을 사용하게 되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 효율적인 삶을 유지할 수 있는 활동 영역은 감소·변형되었으나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게 된다고 볼 수 있다.

이상에서 SOC 대처전략(강혜자, 2012)은 노화에 따른 상실에도 불구하고 주어진 능력에 적합한 활동을 선택하고 보유한 기술을 최적화하며 상실한 것을 보상함으로써 성공적 노화에 이를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즉, 감소된 능력에 집착하기 보다는 현재 보존하고 있는 능력을 최적화하여 주관적인 만족을 이끌어 내는 강점관점을 강조한다고 파악할 수 있다.

SOC 모델이 제시하고자 하는 것은 노인들이 경험하는 다양한 사회적, 물리적, 환경적 변화들에 있어서 실생활에 실질적인 혜택을 가져온다는 것이다. SOC 모델에서 보여지는 성공적인 노화는 개인과 환경의 상호작용의 결과로 이루어지며 상황이 나 맥락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시사한다. 그리고 과정으로서의 노화 그

리고 성공적인 노화의 중요 요인으로서의 활동에 대해 다른 시각(홍현방, 2002)을 보여준다. 단순히 이전 중년기 만큼의 활동 요인을 유지하라는 것이 아니라, 노년기에 맞게 조절된 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성공적인 노화라고 제안한다.

이렇게 볼 때, 각 개인의 인생 경험에 따라 적응과정과 성공적 노화는 달라진다. 즉, 성공적인 노화(김미령, 2008)는 자신의 현재의 상황을 최적화해서 효율을 높이는 것으로 성공적 노화는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노력해서 얻어지는 것으로서 이러한 노력을 통해 노인들은 만족감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노화란 단순히 신체, 생리적인 쇠퇴로 죽음의 가능성이 늘어난 것만이 아니라 개인의 성격여호와 선택에 따라 그동안 경험을 통해 쌓아온 지혜를 이용하여 감퇴의 속도를 줄이고 이용 가능한 자원을 최대한 활용함으로써, 성공적인 노화를 이룰 수 있으며 노년의 시기를 행복하게 지낼 수 있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다.

(3) Rowe & Kahn(1997)의 성공적 노화 모델(a model of successful aging)

초기에 건강과 수명을 강조하던 성공적 노화 개념은 발달심리학자와 사회학자들의 노력에 의해 다차원적으로 정의되고 있다. 성공적 노화에 관한 사회학적 입장의 대표적인 것은 학제간 연구를 시도한 맥아더 재단의 성공적 노화이다. 맥아더 연구를 주도한 대표적 학자인 미국의 Row & Kahn(1997)은 의학, 신경학, 심리학, 사회학, 병리학 분야의 학자들과 1984년부터 약 7년간 신노년학의 개념에 기초하여 노화와 관련된 연구를 진행하였다.

대부분의 성공적인 노화와 성공적이지 않은 노화의 차이를 단순히 질병이 있는 상태와 질병이 없는 상태로 구분하고 있으나 이것만으로 성공적인 노화의 개념을 충분히 설명할 수 없다(이향란, 2013)고 보았다. 즉, 질병이나 장애가 없다는 것은 성공적인 노화의 한 측면이 될 수 있으나 현재 질병이 없더라도 그 위험요소를 보유하고 있을 수 있으며, 단순히 질병이 없는 상태는 보편적인 노화(usual aging)로 이는 성공적인 노화와는 다르다고 지적하고 있다.

‘성공적 노화의 의미는 무엇인가’, ‘성공적으로 노화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생애 과업은 무엇인가’, ‘성공적으로 노화할 수 있도록 미국 사회는 어떻게 변화해야 하는가’이 세 가지 질문을 가지고 성공적 노화의 개념을 규정한다.

Row & Kahn(1997)은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70~79세 노인들을 대상으로 건강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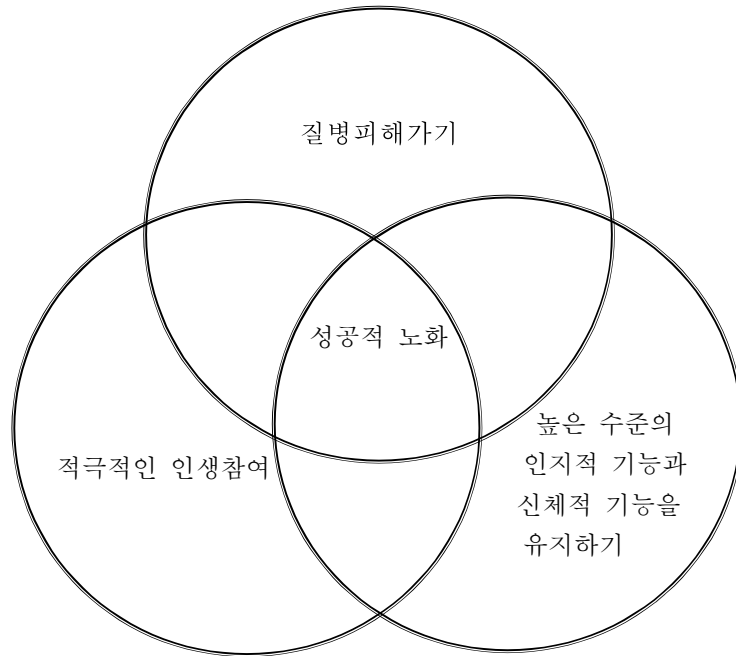
태, 사회관계망, 신체적·인지적 기능, 심리적 특성, 생산적 활동 등 5가지 영역을 7년간 종단적으로 측정하였다. 이들 간의 영향력 및 관련성을 다각적으로 분석해 성공적 노화를 위해서 세 가지의 행동요소들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질병의 위험이 낮다는 것은 질병 자체의 유무뿐만 아니라 질병과 장애의 위험성을 최소화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질병에 대한 예방이 강조되어야 한다. 노인성 질환들은 대부분 만성적이기 때문에 예방은 특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주기적인 모니터링, 운동 등을 제안하고 있다.

둘째, 높은 수준의 신체적·인지적 기능성 유지는 그 만큼의 신체적·인지적 능력을 요구한다. 신체적·인지적 능력은 활동을 위한 잠재력으로 노인이 독립적인 생활을 하기 위한 필수적인 능력이다. 노인들도 젊은이들과 마찬가지로 독립적이기를 원하며, 가장 기본적인 일상생활을 해결하기 위해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기를 원치 않는다고 하였다. 노인에게 독립성이란 구체적으로 자기 소유의 집에서 계속적으로 거주하고, 스스로를 돌 볼 수 있으며, 일상적인 삶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다. 이러한 독립적인 생활을 위해 뛰어난 인지적, 신체적 기능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생활을 유지할 수 있을 정도면 충분하다고 본다.

셋째, 성공적 노화의 구성요소로 대인관계 및 생산적 활동을 유지하는 것을 포함한다. 실제로 대다수의 노인들은 실제 자신들이 할 수 있는 활동량보다 적게 활동한다고 지적하면서 성공적 노화란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뛰어넘어 실제로 얼마나 활동하는가가 중요하다. 이것이 바로 적극적인 인생 참여이며 타인과의 친밀한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은 궁극적으로는 노인에게 복지감을 부여해 주게 되며 규칙적이고 역동적인 활동은 삶의 활력과 의미를 가져다 준다

즉, 노인들은 타인과의 관계를 유지함으로써 사회·정서적 교류가 가능하게 된다. 성공적 노화는 인간관계와 생산적 활동들을 재발견하는 과정이며 이러한 과정을 통해 노인들은 친근감과 삶의 의미를 제공받을 수 있다. 국내외에서 가장 많이 인용되는 대표적인 성공적 노화모델은 Rowe & Kahn(1997)의 모형으로 [그림 2-2]에 제시되어 있다.



[그림 2-2] Rowe & Kahn(1997)의 성공적 노화 모델

* 출처 : Rowe & Kahn(1997). Successful Aging. The Gerontologist, 37(4), p. 434.

이들 세 요소는 위계적인 순서를 가지고 있다. 즉, 낮은 질병률 및 질병에 의한 장애가 없다는 것은 높은 정신적, 신체적 기능을 유지하게 해주며, 높은 정신적, 신체적 기능의 유지는 적극적인 인생참여를 가능하게 한다. 뿐만 아니라 성공적인 노화에 대한 각각의 특성 및 행동 요소들은 그 자체에도 다양한 측면들이 결합되어 있다. 이러한 개념에 의하면 성공적 노화란 질병과 장애의 부재, 인지 및 신체기능의 유지, 삶의 지속적인 참여 이 세 가지 모두를 만족시키는 개념이다.

여기서 삶에 계속 참여한다는 것은 행복한 활동을 계속한다는 것으로 경제적 활동 뿐 아니라 집안 일, 교회나 시민단체에서 자원봉사하기, 가족이나 친구 돌보기 등 다양하게 정의될 수 있다.

Rowe & Kahn(1997)이 제시한 성공적 노화는 앞에서 제시한 세 가지 기준을 만족시켜야 하며, 만성적인 질병을 가진 노인들을 배제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소

수의 노인들만 성공적으로 노화하게 된다. 따라서 이에 대한 비판의 여지가 있으나 성공적 노화 모델은 노인을 더 이상 의존적인 존재로 보는 것이 아니라 생산적인 활동을 가능한 존재로 보며, 노인들의 성공적 노화를 건강요인이나 심리적 측면에서만 다루지 않고 사회적 측면을 함께 다루었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5) 성공적 노화 구성요인

성공적 노화를 달성한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인지를 통해 성공적 노화에 요구되는 구성요소들을 밝히려는 노력을 서구사회에서는 신체적 건강상태에 대해 가장 먼저 관심을 기울이다가 점차 심리적인 특성으로, 그 다음은 사회적 관계 및 경제활동 등 다양한 측면에서 연구해왔다. 즉, 성공적 노화의 초기연구는 생물학적인, 심리학적, 사회적 기능구성의 단일차원에서 협의의 의미로 다양하게 정의하고 있다가 최근의 연구경향은 성공적 노화의 개념이 다차원적인 요인으로 정의되어야 한다는 인식이 지배적이다.

국내외 선행연구들의 성공적 노화에 대한 구성요인들을 살펴보면, 서구와 한국의 차이점과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다. 먼저 서구는 성공적 노화의 중요요인을 개인의 목표, 성취, 자율성(Fisher & Specht, 1999)으로 보고 있으나, 한국의 경우는 친밀한 사람과의 관계와 상호작용(김미혜·신경림, 2005; 백지은·최혜경, 2005)을 중요요인으로 보는 차이점을 가지고 있다. 즉, 서구는 개인중심으로 한국은 가족 및 친척, 친구 등 관계중심임을 알 수 있다.

결국 성공적 노화를 인식하는 연구들을 살펴보면, 한국과 서양노인 모두에게서 신체적 건강을 유지하고, 살아가는 삶에 만족하며 행복을 느끼고, 가족과의 친밀한 관계를 긍정적으로 유지하고, 생활을 독립적으로 수행하고, 다양한 사회적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공통적인 중요한 요소로 나타났다. 하지만 국외의 연구들에서는 생산성, 자율성, 사회적 봉사활동에 참여 및 목표의식이 더 중요하게 강조되는 반면, 한국 노인들은 자식을 중심으로 하는 가족관계를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 특히 한국의 청년기나 중년기보다 노인들의 세대가 가족의 관계 유지를 더욱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유교문화권에서 살아온 전통적인 가치관과 삶에 대한 태도 등을 반영하는 것이다(박형란, 2011).

이와 같이 성공적 노화의 공통적인 구성요인으로는 대체로 신체적, 생리적인 면과

관련해서 질병의 위험이 낮은 건강상태와 일상생활 활동 기능 수준 등이 언급되었다. 심리적인 면과 관련해서는 자아실현 등과 같은 자기수용의 측면과 심리적 안녕감이나 우울 감 등이 없는 즐거움, 행복, 만족감 등과 같은 긍정적인 마음 상태 등이다. 사회적인 면과 관련해서는 타인과의 긍정적 관계, 즉 가족이나 친구와의 관계나 사회적 지지 등의 관계, 그리고 적극적이고 활발한 사회활동 참여와 사회에의 적응 등 자신의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태도나 경제적 상태 등이 성공적 노화의 구성요인으로 언급되고 있다. 이에 따라 생물학적, 심리적, 사회적 차원에서 통합적으로 성공적 노화 요인을 다루는 것이 중요하다. 이 연구에서는 성공적 노화를 6가지 요인으로 나누어 설명하고자 한다.

첫째, 자녀와의 관계에서는 김미혜·신경림·강미선·강인(2004)가 성공적 노후를 복 많은 삶으로 정의하고 특히 한국노인들은 자녀에게 많은 의미를 부여하고 있어서 모든 삶이 자식과 연관되어 다른 복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김동배(2008)는 신체적·정서적·영적·가족간의 통합과 좋은 인간관계를 강조하는 가운데 자녀와의 관계를 성공적 노화 구성요인 중의 하나로 보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 노인들과 성인자녀들은 지역적 근접성에 상관없이 여전히 애정적인 결속을 유지하고 있다.

둘째, 자기통제에 대해 살펴보면, 노인들이 지각된 통제감을 수정하거나 예방조치가 취해지지 않는다면 쇠퇴를 겪게 된다고 보고 있다. 이는 개인이 적절한 범위로 그의 선호나 목표를 조정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홍현방(2001)는 노인들의 조절하는 경향이 그들이 지각하는 기능적 상실과 구속에 맞서 통제감과 안녕감에 완충작용을 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그래서 노년의 통제와 안녕은 목표와 야망을 개인의 자원과 상황적 구속에 균형을 맞추어 유지하는 조절과정에 따라 정해진다.

셋째, 사회활동 및 지지에서는 노인에게 있어서 사회활동(전은희, 2011)은 노화과정에 수반되는 부정적인 생활국면을 보완해주고, 개인에게 사회적 능력과 가치를 제공해줌으로써 안정감을 주게 되어 성공적 노화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노인들의 성공적 노화는 그가 속한 사회의 친족이나 가족적 유대관계, 사회성원들간의 관계 등 여러사회적 요인들의 영향을 받는다(성혜영·유정현, 2002; 백지은·최혜경, 2005; 고대선·원영신, 2005; 성혜영·조희선, 2006).

사회구성원으로서 인정받기를 원하며 무언가를 성취하려는 욕구는 다른 세대에도

나타나지만, 노인들은 은퇴로 직업역할을 상실하고 가족 내에서도 그들의 역할은 변화되어 사회적 역할과 기능에서 소외되기 쉽다(홍현방, 2001). 이로 인해 노인들의 지위가 낮아지고 인간관계에서도 단절이 생겨 자아존중감이나 삶의 의욕이 감소되며 자신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하게 되므로 사회적인 영역에서의 적절한 기능은 심리적 안녕에 긍정적 영향을 준다고 볼 수 있다.

넷째, 가족지향에서는 가족과 긍정적인 상호 호혜적 관계 및 긴밀한 유대를 유지하고 이를 통한 만족과 가족관점에서의 서술을 의미한다. 강인(2003)의 연구에서 중년기와 청년기 여성들은 가족지향을 자주 언급하지 않은 반면, 노년기 여성들의 성공적 노화 지각에서는 빈번하게 언급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노년기 성공적 노화에 있어서 직업 중심적인 사람보다는 가족과의 강한 유대, 가족에 대한 자부심을 지니며 가족생활이 상당히 성공적이었으며 가족중심적인 사람이 보다 더 성공적으로 적응하는 것으로 제시하였다(홍승우, 2001; 홍현방, 2001; 성혜영·유정현, 2002)

다섯째, 자기효능에 대해 살펴보면, 원하는 결과를 실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행동들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낼 수 있는지에 관한 개인의 확신을 말하는 것(전은희, 2011)으로 자기능력에 대한 믿음, 자신감, 자기의 미래예측 능력, 자율성 등이 포함된다. 또한 내가 얼마나 능력이 있고 판단력이 정확하며 목표를 달성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가 하는 일종의 신념으로서 자신의 지적능력이나 판단능력과는 별개이다. 자기능력에 대한 믿음, 자신감, 자기의 미래예측 능력 등을 포함하는 자기효능감에 대한 신념이 강한 사람은 위기와 상실에 대한 대처가 더 지속적이며 성공적 노화를 경험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박경란·이영숙, 2002; 김미혜·신경림, 2005; 김동배, 2008; 안정신·김윤정·강인, 2009).

그리고 성공적 노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자기효능이 정신능력을 유지하는데 기여하고 자신이 처한 다양한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는 개인적인 믿음으로 매일의 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의 추진에 영향을 줄 수 있음(Rowe & Kahn, 1997)을 보여준다.

여섯째, 부부간의 관계에 대해 살펴보면, 가족구조상 전통사회에서는 대부분의 노부부가 자녀와 함께 살았기 때문에 노부부 문제가 크게 부각되지 않았지만 현대는 점차 핵가족화로 인하여 노부부만 사는 기간이 늘어나면서 노년기 부부관계는 향후 성공적 노화를 인식하는데 있어서 중요하다. 소수자녀화와 이에 따른 가족주기의 변화는 부부간의 기간을 상당히 연장시킴에 따라 부모자녀관계보다는 부부관계가

중심이 되었다. 대부분 중년을 넘어서서 노년에 들어선 사람들에게 배우자는 동반자로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며, 남은 여생 동안 서로를 지지해 줄 수 있는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홍승우, 2001; 김미혜·신경림·강미선·강인, 2004).

이상의 성공적 노화 구성요인을 정리하면 <표 2-2>와 같다.

<표 2-2> 성공적 노화 구성요인

연구자	연구제목	성공적 노화 구성요인
홍승우(2001)	노인의 일상생활과 성공적인 노화	건강, 가족결속, 사회활동 및 사회관계, 삶에 대한 수용 정도, 죽음에 대한 수용정도
홍현방(2001)	성공적인 노화 개념정의를 위한 문헌 연구	심리적인 발달: 자아개념과 통제감 사회적인 측면: 사회적인 접촉, 가족과의 접촉 신체적인 건강, 정신적인 건강
성혜영·유정현(2002)	성공적 노화 개념의 인식에 관한 연구-Q방법론적 접근-	사회적 관계 유지 및 적용, 정신적 신체적 기능 유지, 삶의 만족, 복지혜택 및 편함, 경제적 준비, 질병예방, 가족간의 관계
박경란·이영숙(2002)	성공적인 노화에 대한 인식 조사연구	자율, 개인성장, 안락한 생활, 역할 완수, 자아수용, 상호교류, 봉사
장인(2003)	성공적 노화의 지각에 관한 연구	신체적 건강, 개인성장, 정서적 안녕, 자율성, 가족지향, 경제적 안정
하정연(2003)	성공적 노화를 위한 관련 변인 연구:중산층 노인의 SOC 모형을 중심으로	건강, 학력, 종교, 결혼연수, 경제적 상황
김미혜·신경림·강미선·강인(2004)	한국노인의 성공적 노후에 대한 경험	부부 복, 자녀 복, 친구 복, 재산 복, 여가 복, 건강 복, 죽음 복, 거처 복, 마음 복
최혜경 외(2005)	노인들의 인식을 통한 한국적인 성공적 노화의 개념	중용으로서 삶, 자식에게 투영된 삶, 내 한 몸 추수르는 삶
김미혜·신경림(2005)	한국노인의 성공적 노후 척도 개발에 관한 연구	자기효능감을 느끼는 삶, 자녀성공을 통해 만족하는 삶 부부간의 동반자적 삶, 자기통제를 잘 하는 삶
백지은·최혜경(2005)	한국사회와 서구사회의 성공적 노화의 구성요소에 대한 비교 문화적 연구	일상의 순조로움, 자기관리, 사회적 지원의 확보, 과시성 등
고대선·원영신(2005)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들의 성공적인 노화의 의미	운동, 영양보충, 종교, 적극적인 프로그램 참여, 사회적 관계형성, 바쁜 일상생활, 규칙적인 생활
성혜영·조희선(2006)	Rowe와 Kahn의 구성요소를 활용한 성공적 노화모델.	생산적 활동,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 다양한 사회관계망과 지지 기반 확보
김동배(2008)	한국노인의 성공적 노화 척도 개발을 위한 연구	자율적인 삶, 자기완성 지향, 적극적 인생참여, 자녀에 대한 만족, 자기수용, 타인수용
안정신·김윤정·강인(2009)	한국중노년 성인들의 성공적 노화 척도 개발에 관한 연구	일상의 안녕, 심리사회적 안녕, 자기효능감

* 출처: 박경숙(2013), 이향란(2013) 재구성.

2. 제주 여성 노인

1) 제주여성

제주도는 예로부터 다른 지방에 비해 돌, 바람, 여자가 많다고 하여 ‘삼다(三多)’라고 불리워져 왔고, 제주도민의 정직, 자립, 강인함을 단적으로 표현하는 ‘세 가지 즉 거지, 도둑, 대문이 없음’을 말하는 ‘삼무(三無)’라는 독특한 풍습이 있다. 무형자원의 하나인 삼무(三無)는 제주도민들이 부지런하고 검소하며 자립심이 강하여 거지가 없고, 정직하여 도둑이 없고, 도둑이 없으니 대문이 없고 그래서 방문을 잠그지 않는다는 뜻이다. 제주여성이 근면하고 적극적·능동적인 기질을 형성하게 되어 강한 자의식을 가지게 된 것은 환경적·역사적 영향이 크다.

선조 34년(1601년)에 제주 목사를 지낸 청음 김상헌이 제주에 와서 견문한 것을 기록한 『남사록』에는 딸 낳기를 중요하게 여긴다는 내용이 있다.

地誌에 따르면 딸 낳기를 중시 여긴다. 진상상선이 전후하여 이어지고 바닷길은 험하여 자주 표몰을 당하지 때문에, 사람들은 딸 낳기를 중히 여기며 여성 수가 남성의 세 곱이나 되어 비록 거지라도 처첩을 거느린다.

아들이 철저히 선호되는 사회이면서도 과거부터 딸 낳기 역시 중히 여겨왔다는 것은 딸이 노동력의 원천으로서 살림밑천이 되었기 때문일 것이다(김혜숙, 2001).

제주처럼 공간적으로 고립된 섬 지역의 경우, 자연환경의 영향은 매우 중요하며 이로 인해 상당히 독특한 문화를 형성하게 된다. 자주 태풍이 불고 바람이 많이 불고 비 내리는 시간도 길어, 현무암으로 이루어진 섬인 제주는 다른 지역과는 달리 물이 잘 고이지 않았다. 그래서 물이 귀하고, 해안선을 따라 지하수가 솟아나거나 중산간 지대에 물이 고인 늪이나 못이 드물게 하는 제주 지형으로 인해 여성 노동력을 많이 요구받았다(김영순, 2013).

이렇듯 제주도의 지형은 여성의 노동력을 많이 요구하는 밭농사 중심으로 되어 있어서 여성들의 노동투입율이 높게 나타난다. 밭농사에 있어 주요 노동은 김매기인데 이 작업은 지구력과 섬세함을 갖춘 여성에게 적합한 노동이었기 때문에 여성

들이 밭에서 일하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산에서, 밭에서, 바다에서 일하는 여자들의 모습이 눈에 많이 띄어 ‘女多²⁾’라는 말이 나온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다.

더욱이 생활터전인 산과 들과 바다 모두를 분주하게 오가며 살아야 했던 제주 여성은 일년을 주기로 하는 농사철과 하루를 주기로 하는 물때(밀물과 썰물 시간)에 맞춰 생활주기가 짜여졌다. 농한기라도 제주여성은 쉬지 않았다. 김매기를 계속해야 하는 농번기인 여름철에는 출가하지 않은 농가에서는 밭에 가서 김을 매다가도 물때가 되면 어김없이 바다로 가 물질을 한다. 그리고 물질이 끝나면 다시 밭으로 가야만 한다. 이와 같이 농사철과 물때에 맞추어 쉴 새 없이 타지역으로, 그리고 바다 밭(海田)과 육지밭(陸田)을 오가야만 되는 여성들이 먼 바다에 배를 타고 나가 침식을 하면서 물질을 하는 ‘난바르(遠海)’의 어로를 할 때 작업하던 배에서는 물론 어장으로 가고오는 길에서조차 분만하는 경우도 드물지 않았다(송성대, 1998).

그리고 섬이라는 환경조건은 남성은 언제 바다에 나가 죽을지 모르는 불안한 존재인 것이고, 남성들의 높은 사망률은 남편만을 믿고 의지할 수 없으므로 여성들에게도 강한 노동경제력이 요구되었을 것이다. 생활을 책임질 딸은 그래서 중요하게 여겨졌을 것이고, 강하게 키워야만 했을 것이다.

딸들은 시집가기 전에도 바쁜 어머니를 대신하여 동생들을 돌보고, 물 길어오기, 밭에 김 매기 등 집안 일은 물론이고 가사역할 뿐만 아니라 물질이나 고사리를 꺾어 돈도 벌어들이는 생산자의 위치에 있었다. 부모들은 딸들이 이렇게 벌어들인 수입을 가계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반드시 큰 딸이 번 건, 작은 딸이 번 것을 구분하여 따로 관리해준다. 그 돈은 시집갈 때 비용으로 하거나, 부지런한 처녀들은 노동으로 모은 돈으로 밭을 사 재산형성을 하기도 한다. 여성 특히 딸의 몫으로 부동산을 소유할 수 있었다는 것은 이 당시 제주 가족의 남녀 평등성 즉 여성의 지위를 가늠할 수 있게 한다. 잠녀(해녀)인 할머니가 공부하는 신식 손녀에게 “너 똑똑한 줄 알지만, 이 다음에 네 서방이 먼저 죽으면, 네 새끼 어떻게 키울 것인가” 하고 야단치면서 물질을 배우게 하더라는 사례에서도 볼 수 있듯 어려서부터 철저한 독립정신을 온몸으로 익혀왔던 것이다. 그래서 제주 여성들은 언제나 삶에 대한 주저함이 없고 당당할 수 있었다(김혜숙, 2001).

또한 제주 여성들이 ‘강인함’과 ‘부지런함’이라는 특성으로 대표된 배경에는 남성

2) A. A. Rieter 목사가 1899년 Korean Repository에 기고한 글에서 보면 제주도의 거리에서 남자 하나에 여자 3명이 같이 있게 되더라고 하여 제주도에 여자가 많음을 말하고 있다(제주사정립사업추진협의회, 1998)

들의 일본 노동시장 진출, 4·3사건에서의 민간인 학살, 한국전쟁에 징용 등의 역사적 요인들(권귀숙, 2011)이 있다. 이러한 요인들은 남성인구의 과도한 도외 이출을 심화시켜 남녀성비의 불균형을 초래했고 결과적으로 남은 가족을 위하여 헌신하고 희생할 수밖에 없는 강인하고, 부지런한 제주여성을 만들어냈다. 하지만 남성이 떠난 자리를 대신하는 오랜 역사과정을 통해 강화된, 피할 수 없는 생존노동이기도 했다. 그래서 국내는 물론 중국, 일본까지 노동이주를 감행해야했던 해녀들이 있었고 사라진 남편들을 대신하여 남아있는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질 수 밖에 없었던 제주 미망인들이 있었다.

일제시대에도 해녀항쟁의 역사를 갖고 있으며, 4·3당시에는 남성들을 대신해 여성들이 마을어귀에 보초를 서는 여성군인이라 볼 수 있는 ‘女丁’이 되어 마을 지켜내기도 했다. 무속신화의 줄거리인 본풀이 중 가장 중심이 되는 송당지역의 본풀이를 보면 여신 ‘백주도’가 부인이 먼저 이혼을 제기하고, 잘못을 저지른 남편 남신 ‘소로소천국’은 집에서 쫓겨나간다. 여성이 먼저 이혼을 제기하고 실행하는 것은 무속신화에도 등장 할 만큼 오래되고 보편적인 일로서 제주여성의 특징을 살펴볼 수 있다(김혜숙, 2001).

이와 같이 성격적 특질 면에서 적극적이며 능동적인 기질을 형성하게 하여 강인하고 부지런함을 보여주는 제주 여성은 그들 자신의 삶이나 가족생활에도 그대로 반영된 모습을 볼 수 있다. 특히 가족관계에서 나타나는 강한 개인의식은 가계관리에 있어서도 가족원들이 수입을 하나로 통합하지 않는 데서도 찾아볼 수 있다. 부부가 주머니를 따로 꿸하는 사례가 많으며 자식들 특히 수입이 제법 있는 딸들의 몫도 제 각각이다.

혼인 전 딸들이 물질과 고사리를 꺾거나 또는 육지 방직공장에 가서 번 돈 등을 집안의 가계에 합치지 않고 은행 이용이 생활화되지 않던 시절이라 어머니가 그 딸 몫으로 별도로 관리하는 등 철저한 개인 단위의 경제생활을 엿볼 수 있다. 부부가 주머니를 별도로 하여 살아가면서도 별로 큰 마찰은 없어 보인다. 소를 판 돈은 남편이, 보리나 콩 등을 팔아서 생긴 돈은 부인이 관리하면서 집안의 몫돈이 필요한 경우는 남편이, 일상생활비는 부인이 제공한다. 어떤 계약이 따로 있는 게 아니면서도 자연스럽게 살아간다. 심지어 ‘부자간에도 범벅에 금을 굶는다’는 속담도 있다. 아버지와 아들이 한 그릇에서 범벅을 먹으면서도 숟가락으로 가운데 금을 그어 아버지가 먹을 몫과 아들이 먹을 양을 구분해서 서로 침범하지 않을 정도로 모든 면

에서 개인의식이 강하다는 의미이다(김혜숙, 2001).

과거 육지의 농촌지역에서 가게관리의 주도권은 세대주가 갖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제주의 가게관리실태를 살펴보면 부부가 제 각각이거나 아니면 부인이 총수입의 관리자가 되는 가정이 많다. 부인이 남편에게서 생활비를 타서 쓴다는 개념이 희박하다. 오히려 남편이 생계 책임자로서의 의식이 약하고 부인이 더 책임감을 갖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생계비 부담이나 관리에 부부 이외의 다른 가족이 전혀 개입하지 않는 것도 제주의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살아가는 과정에 부모의 특별한 지원도 없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가족생활에 시부모가 관여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 제주 가게는 부부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특징을 보여준다(김혜숙, 2001).

부부간의 권력구조에 있어 서로의 결정권이 거의 대등하게 행사되고 있다는 사실도 이를 뒷받침해주는 것으로서, 부부관계의 저변에 남녀평등의식이 잠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한편으로 이혼과 재혼율이 높다는 사실과도 관련되어 있어서 삼종지도(三從之道)를 따르는 것을 하나의 숙명처럼 생각하는 전통사회의 여성과는 완전히 다르다. 어느 누구에게 예속되지 않더라도 살아갈 수 있는 여성들의 노동경제력은 그들 자신의 삶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게 하고 독립성에 대한 신념을 갖게 하는 것이다(김혜숙, 1992).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남에게 의존하지 않고 자력으로 생활하려는 성향과 집단중심보다는 개인존중의 원리가 일상생활에 잘 녹아 있는 강인하고 부지런한 제주여성이 향후 노년기에 들어, 성공적 노화에 대한 인식과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서 어떤 면이 변화되고 강한 특징을 보여주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2) 제주 여성 노인의 특성

제주도 가족형태가 단순히 지리적 역사적인 여건에서뿐만 아니라 실제적인 면에서도 육지부의 전통적 가족과는 서로 다른 양상을 내포하고 있다(김혜숙, 1992). 제주도 가족의 권력구조를 통해 제주여성노인의 의식구조가 육지 전통 가족 내의 여성노인들에 비해 상당히 다른 면모를 지니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고자 한다. 제주도 가족의 가장 큰 특징(김항원 외, 2000)은 장남이라도 결혼을 하면 분가(分家)시키는 분가주의와 노부모는 노동을 할 수 있는 한 자식에게 의존하지 않으려는 강한

독립생활의지이다. 그리고 아들들에게 상속은 대개 균등하게 분배함이 원칙이다.

제주도의 가족은 차·삼남은 물론 장남이라도 결혼하면 분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한 울타리 안에 주거를 같이 하더라도 경제단위를 분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것이다(이창기, 1993). 한 울타리 내에 거주하게 되는 경우도 거의 대부분 안·밖 거리에 정지(부엌)과 고팡(곡물을 저장하는 창고)을 모두 설치하여 생활하게 된다. 이러한 주거형태는 동일 울타리라는 측면에서 볼 때 의식면에서나 정서관계에 있어서 한 가족으로서의 유대감이 형성될 수 있는 계기가 쉽게 마련될 수 있으며, 실제로 그러한 유대감이 형성되어 있는 사실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정지와 고팡이 안·밖 거리에 모두 갖추어져 있다는 사실은 두 가족 집단 사이에 경제단위가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실생활의 측면에서는 두 개의 가족으로 기능하고 있음이 분명히 드러난다. 특히 아들이 결혼하여 살림을 따로 낼 때 ‘술 가른다’라는 표현(김혜숙, 1992)을 쓰고 이는 우선 취사할 곳을 새롭게 따로 마련한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다.

분가 형태는 부모가 이사를 나가는 경우와 자식이 이사를 나가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전자의 경우는 부모가 살던 집을 자식에게 물려주고 자신이 가옥을 신축하거나 매입하여 미혼자녀를 이끌고 이사를 가는 것이다. 이것은 곧 가계계승(家系繼承)을 중시함으로써 조상의 넋이 깃든 전래의 가업과 가옥 그리고 가재 및 가계를 승계할 장남에게 물려주어야 한다는 의식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후자의 경우는 부모는 살던 집에 그대로 미혼자녀를 거느리고 살고 자식이 신축가(新築家)나 매입가(買入家)로 이사를 나가는 형태로 흔히 차남 이하의 자식을 분가시킬 때 취하는 방식이다. 그 밖에 경제력이 빈약한 가정에서는 전세(傳貰)집으로 자식을 분가시키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볼 때 제주도 가족은 형태면에서는 핵가족(核家族)이라 말할 수 있다. 이 핵가족은 산업화나 서구화의 영향으로 형성된 것이 아니라 먼 옛날부터 자생적으로 형성된 가족형태인 것이다(이창기, 1993).

한 울타리의 두 살림의 여성중심 생활단위 분리는 울타리 밖으로 분가하지 않고도 취사와 경제권을 독립시켜 제주여성노인의 삶은 본인 스스로 책임지도록 하고 있다. 즉, 동거와 분가의 현명한 절충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제주가 발행한 『제주정』 제297호 2001년 5월 20일자에 실린 송성자씨의 글을 일부 인용한 내용이다.

남편의 근무지를 따라 강원도에서 이곳 제주로 처음 이사 온 것은 1994년 12월이었다. ... 내

가 제주에 대해 가장 이해하기 힘들었던 부분은 바로 아들 며느리가 한 집안에 살면서도 따로 식사하며 생활하고 있는 시부모님 모습이였다. ... 제주 사람들과 친숙해지면서 그런 삶의 방식에 많은 이점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 나이에 따라 식사시간이나 취침시간 또는 식성에 이르기까지 많이 다를 수 있고, 특히 세대 차로 인한 의식수준이 눈에 띄게 차이나다 보니 함께 살면서도 여간 서로에게 노력하지 않고서야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다. 하지만 한 울타리 안 혹은 한 지붕 밑에 살아도 따로 생활하니까 그런데서 오는 갈등은 많이 해소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었다. 게다가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는 노부모님의 자세가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당당하고 자유로와 보여서 오히려 존경심까지 느껴지기도 했다.

결혼해서 한 집안에 살게 된 아들 며느리가 시부모님을 모시고 함께 생활하는 것은 우리 나라 사람들에게겐 상식이자 불문율이라 생각해온 육지 지방 출신의 필자인 송씨가 제주지역에서 만큼은 변할 수 있는 성문을 그 이상일 수 있다는데 놀랐다는 내용의 글이다(김혜숙, 2001).

술을 갈라 살림이 분리되면서 시작되는 철저한 독립정신은 부모세대와 자녀세대 간 엄격한 수직구조를 형성하지 않는다. 이런 분가 상태에서는 부모 또한 노동력이 있는 한 혼인한 자식들과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며 생활하려는 것이다.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여 자녀에게 기대지 않으려는 의지가 강한 것이다. 만일 부인이 사망하고 부(夫)만이 남았을 경우는 그 연령이 아주 노쇠하지 않는 한 후처를 마련해서 독립하려 하고, 부인만 남았을 경우는 노쇠해서 움직이지 못할 때까지는 홀로 독립생계를 해나감이 일반적이다. 생산은 하지 않고 소비만 하는 한반도 여성노인들과 달리, 스스로 자청하여 자식들과 별거하면서 생산의 주체가 된 제주여성노인(송성대, 1998)에게서 자기 자신으로 자유를 찾은 모습을 엿볼 수 있다.

제주여성노인의 경우 연로하더라도 거동이 가능한 한 주거나 경제적인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면에서도 독립하려 한다. 재산이 있을 때는 노동력이 상실되는 정도에 따라 상속이 이루어지며, 미력이나마 노동력이 남아있을 때는 자신의 최저생활을 보장할 수 있을 만큼의 재산은 남겨둔다. 연로하더라도 가능한 한 경제적 자립을 하며, 노동력이 떨어지면 자식의 원조를 받더라도 취사는 고집하여 분리한다. 취사마저 어려워지면 그 때 가서야 자식 가족에게 합가하는, 쓰러지기 직전에야 의존할 정도로 강한 경제적·정신적 독립성의 의지를 보여준다(김혜숙, 1999). 그리고 자식의 부양을 받음에 있어서도 장남 우선의식이 작용하기는 하나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다. 장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차남이나 딸의 부양을 받는 경우도 있다³⁾.

제주도의 가족은 노부부만의 가족과 여자가 혼자 사는 가구가 많다. 일인가족의 특성(김혜숙, 1999)은 육지부의 농촌, 중소도시 및 서울과는 아주 다른 양상이어서 제주도에서의 양상은 육지 전통 가족의 개념이나 시각과는 현격한 차이점이 많이 드러난다. 일인가족의 대부분은 자신의 처지에 대해서 삶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자연의 순리로 받아들이고 있다. 자립성은 자식에 대한 기대치가 약하게 되므로 자녀들과의 갈등이 심하지 않으며, 여유 없는 생활에 대한 비판도 적다. 즉, 외로운 것이 사실이나 어쩔 수 없는 것으로서 인간의 노쇠와 더불어 으레 찾아오는 단계로 받아들이는 긍정적인 자세를 보여준다.

재혼하지 않고 혼자 살면 심부름도 안하고 편하다는 반응을 보이는 여성도 상당히 많아, 남편을 귀찮은 존재로 여기는 듯한 태도이다. 특히 자녀가 있을 때 혼자 살겠다는 생각은 자녀를 위한 마음과 더불어 믿고 의지할 아들이 있는데 무엇 때문에 고생스럽게 재혼하느냐는 심리가 드러난다(김혜숙, 2001). 여기서 남편이 가정의 상징적 존재로만 비쳐지고 있다는 사실은 여성들이 생계를 꾸려나갈 자신감을 가지고 있음을 러내는 것이다. 또한 아들에 대한 집착도 자신의 생을 좌우하는 어떤 구심점으로 작용하는게 아닐까 여겨지기도 한다.

자녀를 위한다고 하는 것도 다른 관점에 생각해 본다면 정신적으로 믿고 의지할 자녀들이 있는데 굳이 재혼해서 또다시 남성의 뒷바라지나 하기 귀찮다는 의식이 잠재되어 있기도 하다. 결국 간섭이나 구속을 싫어하는 사고방식이 과부살이의 길을 고수하는 요인의 하나가 되고 있다. 특히 농촌의 제주여성노인들에게 아들이 없을 때 어떻게 해야하는가를 물으면, 남편을 장가들여서라도 첩을 얻겠다고 한다. 첩을 얻거나 양자를 데려서라도 대를 잇고 제사를 지내야 된다는 것이다. 첩을 구하겠다는 것은 속상하긴 하나, 남편의 혈통을 직접 이어 받은 자녀를 얻도록 하는 것이 조상에 대한 도리라는 생각이다(김혜숙, 2001).

제주여성노인들 또한 아들에 대한 집념은 한국 전통가족에 못지 않고 강한 생활력에도 불구하고 누군가 믿고 의지할 존재에 대한 집착을 나타낸다. 독립심이 강하면서도 어떤 정신적 지주를 필요로 하는 제주여성노인들의 잠재의식을 읽어낼 수 있고 설사 남편은 없더라도 아들은 있어야 한다는 생각에는 곧 남성 우월 이데올로기의 지배 결과로 보여진다(김혜숙, 2001). 여성은 일이나 하는 존재이고 남성이 집

3) 노부부가 독립해서 거주하다가 아주 노쇠하여 노동력이 없어 자녀와 합가할 때 반드시 장남이어야 한다기보다는 능력 있는 자녀가 모시게 된다(김태현, 1980).

안의 기둥이라는 가부장제적 관념이 깊게 뿌리 내리고 있으며 제사봉양을 위한 후손의 확보는 곧 의례적 영역에서 남성이 절대적 존재로 자리하는 것이다. 남편도 아들도 없는 즉 남성이 없는 여성의 홀로서기는 현재의 제주여성노인들에게는 상상밖의 세계였던 것이다.

한편 제주도에서는 노부부만의 가족이나 여자 혼자서 생활을 하는 가구에 일종의 사회복지 내지 사회보장의 혜택을 주기 위한 부가호제도(附加戶制度)⁴⁾가 있었다(최재석, 1979). 이러한 제도는 현재 제주도에서는 찾아 볼 수 없으나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지금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제주여성노인이 자녀의 부양을 거절하고 독립생활을 하는 모습은 여전히 볼 수 있는 현상이고 ‘움직일 수 있는데 무엇 하러 자녀들의 집에 가서 불편하게 지내겠는가. 나 먹고 싶을 때 먹고 놀고 싶을 때 놀아야지’라는 노인들의 공통된 응답으로 구속당하기를 싫어하는 기질과 심리를 드러낸다. 주체적 삶의 의지를 자신에게 두려는 여성의 강한 자의식은 고령이며 1인 가족이 된 여성노인도 움직일 수 있는 한 정신적 경제적으로 독립생활을 하도록 만든다.

70-80대의 고령의 할머니가 시장 한 모퉁이에 채소 몇 포기를 놓고 판다든지, 밖에 가서 일을 하고 있는 모습은 오늘날에도 도처에서 목격할 수 있다. 경제적으로 어려워서가 아니라 죽는 순간까지라도 남에게 심지어 자식에게조차 신세질 수 없다는 것이 제주여성들의 의식인 것이다(김혜숙, 2001).

제주여성노인의 강한 자의식이 반영된 개인의식이 우선시되는 경향은 고부관계에서도 그대로 드러난다. 한 울타리 내의 안·밖거리에 거주하면서 부세대나 자세대가 서로 농번기의 바쁜 시기에는 시모가 마당에서 농사일을 하는 것을 보면서도 며느리는 자신의 작업을 위해 그냥 지나치는 일이 보편화되어 있다. 일을 거들어 주지 않는다고 부모가 섭섭해 하거나, 도와주지 못해서 며느리가 미안해 하는 일이 거의 없이 자신의 일에만 열중하는 것이 상례이다. 또한 같은 부락 내이지만 가옥이 떨어져 생활할 때, 시모가 자녀의 집에 들러도 집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마당에서 필요한 서너마디의 대화를 하고 돌아가는 장면을 보게되는 것도 흔한 일이다(김혜숙,

4) 부가호제도 : 부락사회에서 자생적으로 생겨난 제도인데, 주로 부역(賦役)과 이세(里稅)를 면제해 주기위한 제도. 부가호제도는 두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부역과 이세를 함께 면제해 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부역만 면제해 주는 것인데 음력 12월말 부락총회에서 이세, 예산편성, 결산보고 등을 하면서 부가호를 결정하는데 이장(里長)이 미리 작성한 명단을 제출해서 총회의 승인을 받으면 결정된다. 부가호중 이세와 부역을 면제 받는 대상은 경제적으로 빈곤하고 노동력이 없는, 대체로 혼자사는 연로한 여자가구와 빈곤한 노인부부가족에게 많다(최재석, 1979).

1992).

시모에게 노동력과 경제력이 있는 한, 자녀들의 가사운영권에 있어서도 서로의 생활 영역에 대한 간섭이나 통제없이 제각기 수행해 나간다. 이러한 개인의식은 시모 자신도 전통가족에서와 같은 며느리에 대한 기대치가 약하기 때문에 갈등의 정도 또한 미약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부모는 부모대로 자녀들은 또한 그들대로 자신들의 삶을 이끌어어나가는 것일 뿐, 자녀들이 무관심한 것처럼 보이는 행동이 큰 불효를 저지르는 행위로 보지 않는 것은 부세대나 부락사회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오히려 부모의 생신을 지나치게 크게 마련한다든지, 선물을 자주 드리는 일까지도 살림을 규모 있게 꾸려나가지 못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성향마저 있어 근본적으로 사치를 싫어하는 근검의식이 체득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자녀들의 살림 규모가 커지고 부모가족이 축소되면 가족 규모가 큰 안채를 내주는 것은, 세대를 우선하지 않으려는 제주여성노인의 합리적이고 실리적이며 현실지향적인 의식구조의 반영이라고 볼 수 있다(김혜숙, 1992).

강한 개인의식은 가계관리에 있어서도 가족원들이 수입을 하나로 통합하지 않는 데서도 찾아볼 수 있다. 부부가 주머니를 따로 꿰차는 사례가 많으며, 딸들의 몫도 제각각이다. 부조 역시 부부, 부모자녀 각각 따로 한다. 육지와는 달리 자식이 결혼 후에는 분가하여 핵가족을 형성하므로 장남이라 할지라도 기혼자식과 부모세대 또한 부조를 따로 한다.

한편 미혼의 성인자녀가 독립적으로 부조하는 것은 스스로 번 돈을 따로 관리하여 각자의 몫을 분명히 하는데서 가능한 것으로 경제적 독립이 일찍부터 확립된 데 따른 것이다(김혜숙, 2001). 여성들의 활발한 부조 활동은 경제적 독립성이 확보되고 있음을 나타낸다. 여성들의 독립된 부조 관행을 통해 집안 대소사에서 여성들의 책임완수가 가능하다. 부조를 해주는 것은 일종의 적금이자 보험의 성격을 띤다. 여성들이 부조를 개별적으로 하는 것 자체가 여성들의 경제권, 결정권뿐만 아니라 실질적 생활의 책임자로서의 위치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그러나 산업화에 따라 농어업 중심의 경제기반이 약화되었고 아울러 제주사회의 독특한 밖거리, 안거리 가족형태는 점차 감소하고 있으며, 공동노동을 바탕으로 하는 마을공동체 역시 해체과정을 겪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제주 여성노인은 자녀들과 심리적, 경제적 유대관계를 맺는데 곤란함에 부딪쳤으며 공동노동을 통해 마을 공동체에 참여하고 또한 공동체로부터 심리적, 경제적 지원을 받기가 쉽지 않게 되었다.

즉, 자녀들이 노인부모세대와 가까이 살면서 그들은 심리적, 경제적으로 부양하기가 어려워졌고 공동목장, 공동어장, 계조직 등의 붕괴로 마을 공동체 의식이 크게 약화되어 제주여성노인의 심리적 경제적 소외는 증대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특히 건강의 악화로 자신의 노동력마저 상실한 노인들 중에는 재산도 없고, 자녀도 없으며, 자녀가 있어도 자신들의 생계조차 빈곤한 상황인 경우 자녀로부터의 경제적 도움을 얻을 수 없어 생활의 기본적 필요조차도 충족시킬 수 없는 노인이 적지 않다. 제주 여성노인은 산업화와 더불어 자신의 가족이나 마을로부터 심리적, 경제적 지원을 받기가 점차 어려워지면서 일반 육지의 타 지역 노인들과 비슷한 처지에 놓이게 된 것이다. 그러나 제주여성노인이 노후생활을 자녀에게 의존하기 보다는 스스로 일을 하거나 재산을 준비해 자립하려는 경향(김민호, 1992)이 전국의 일반노인들에 비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제주여성노인이 전통적인 제주 특유의 가족형태와 마을공동체적 삶 속에서 검소하고 근면하게 자립적이고 강인하게 성장해 온 세대이고, 산업화라는 새로운 변화에도 불구하고 오늘의 자신들이 경제적 문제를 타인에게 의존하려 하기보다는 스스로 해결하려는 성향이 강하다고 볼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자기정체성과 자주성, 자립성이 강한 제주여성노인이 성공적 노화를 어떻게 인식하며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력은 어떠한지를 알아보려고 한다.

3. 삶의 만족도

1) 삶의 만족도의 개념

삶의 만족도에 대한 개념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먼저 삶의 질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으므로, 이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많은 학자들은 삶의 질이라는 용어를 그 동안 안녕 혹은 복지, 심리적 복지(psychological well-being), 주관적 복지(subjective well-being), 생활만족, 행복, 긍정적-부정적 감정(positive and negative affect) 등과 같은 용어와 동의어로 사용하여 왔다. 그러나 다른 학자들은 삶의 질 개념을 주관적 복지나 생활만족 등을 포괄하는 보다 상위의 개념(김희주·주경희,

2008)으로 사용하기도 한다.

일부 학자들은 삶의 질은 다차원적인(multi-dimensional) 개념이라고 주장한다. 삶의 질은 삶의 만족이나 자신의 삶에 대한 긍정적 혹은 부정적 감정, 구체적으로는 결혼만족, 직업만족, 공동체 만족 등과 같은 여러 가지 요소들로 구성된 주관적인 정신의 상태(subjective state of mind)로서 각 요소들은 서로 독립적일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그런가 하면 또 다른 학자들은 삶의 질의 구성요소들 간의 높은 상관관계를 강조하면서 그 단일차원성(uni-dimensionality)을 주장한다. 그들은 요인 분석(factor analysis) 등의 방법으로 삶의 질의 단일차원적인 개념을 구성할 수 있다고 보고 삶의 질에 관한 기존의 다양한 척도들을 분석하기도 한다. 이처럼 삶의 질을 연구하는 학자들 간에 명확한 개념 정의(장주호, 2011)가 확립되지 못하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삶의 질을 ‘그 삶의 주체인 개인 복지 혹은 복지상태로 보고 그러한 개인복지를 증진시키는 것이 삶의 질 수준을 높이는 것이다’라는 경우도 있고, 또 삶의 질 문제를 ‘어떠한 여건들이 살기에 좋은 조건을 제공해 주는가, 무엇이 삶의 주체인 개인의 삶을 좋게 만드는가, 무엇이 삶을 가치 있게 하는가’라는 질문들이 삶의 질이 무엇이나에 대해 다양한 견해를 갖게 한다.

둘째, 삶의 질의 의미가 너무 포괄적이고 함축적이며 복합적이다. 삶의 질은 국가 또는 지역주민들이 공동으로 경험하는 사회적 조건과 같은 객관적 요소뿐만 아니라 개인의 욕구수준과 같은 주관적 요소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삶의 질 척도 구성을 위한 합의된 원칙을 도출하기가 어렵다.

셋째,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인이 무엇이나에 따라 삶의 질 내용이 크게 달라진다. 때문에 삶의 질 개념을 구성하는데 일관성을 유지하기가 어렵고 또 그동안 삶의 질 연구가 주로 이론적 측면보다 실용적 차원에서 진행되어 와서 연구자들 간에 이론적 합의가 부족하다.

이와 같은 여러 이유로 삶의 질에 대한 개념정의가 어려웠던 점은 제2차 세계대전 후에 이루어진 ‘삶의 질’에 대한 실증적 연구를 살펴보면, 그 상황이 보다 더 명확해진다. 삶의 질에 대한 경험적 측정치들은 그동안 꾸준히 축적되어 왔는데 각 측정치는 개념이나 강조점의 변화에 따라 나온 것이지만, 그 어느 것도 완전하지는 못하였다. 초기의 측정치들은 모두 객관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경제적인 것이었다. 특히 당시의 공리주의가 1인당 GDP를 사회복지의 측정치로 사용하는데 그 이론적

기초를 제공해 준다. 1인당 소득이나 부와 같은 경제적 측정치들(장주호, 2011)은 환경오염, 기대수명, 약물오용, 범죄율 등과 같이 삶의 다른 객관적 측면들에 대한 측정치들에 의해 보완되어, 지금도 사용되고 있다.

한편 1960년대부터는 이러한 경제적 지표들의 성공에 의해 자극을 받기도 하였지만, 그것들이 갖는 각종 한계에 근거하여 주거의 질과 같은 구체적인 지표로부터 삶의 질과 같은 포괄적인 측정치 등을 포함한 사회경제적 복지 지표들이 공공부문의 의사결정에서 경제적 지표들을 대신할 것을 주창하는 사회지표운동이 일어났다.

1970년대 이후에는 세계적으로 성장지향의 발전전략이 가난한 사람들의 복지를 증진시키지 못함에 따라 발전전략의 목표에 대한 회의가 개발도상국들뿐만 아니라 선진국에서도 일어남으로써 인간의 기초적 필요욕구(basic needs)가 국가발전의 중요한 목표로 대두되었다. 인간의 기초적 필요욕구의 충족과 절대빈곤의 감소를 강조하는 이 입장은 GDP 성장을 발전의 유일한 목표로 삼는 것을 거부하고 소득분배 문제에 주목하면서 사회에서 가난한 사람들의 삶의 질에 일차적으로 관심을 기울였다. 기초적 필요욕구 개념은 인간이 자신의 존엄성을 실현시켜 줄 수 있는 조건들 하에서 살아갈 수 있는 어떤 필수적인 요건들의 충족과 관련된다. 그래서 우선 음식, 의복, 거처, 건강, 교육, 사회보장, 근로조건, 인간의 자유 등과 같이 공통적으로 받아들여진 표준적 삶의 수준을 다루었다.

또 다른 한편에서는 1960년대와 70년대에 삶의 전반에 대한 만족감 혹은 행복감의 의미를 갖는 ‘주관적 복지’라는 새로운 개념이 측정 가능한 삶의 개념에 내적인 차원을 추가시켰다. 그 주창자들은 그것이 삶의 질에 있어 가장 중요한 의미를 갖는 차원으로 생각하였으며, 그러한 운동이 범세계적으로 이루어졌다. 그 후 윤리주의자 등의 비판을 받아 삶의 질에 있어서 인간개발 차원이 중요한 요소로 등장하게 되었는데, 이는 주로 철학적 성향을 지닌 경제학자 Amartya Sen에 의해 이루어졌다. 그리고 1990년대에 와서는 UNDP(유엔개발계획)가 ‘인간개발’에 관한 국가 간 보고서를 발간하기도 하였다. 그래서 경제적 표준생활, 사회적·생태적·물리적 환경, 공리주의적 행복함, 그리고 인간개발의 인본주의적 표준들 모두가 삶의 질(장주호, 2011)을 대변한다고 주장하게 되었다.

이렇게 볼 때, 삶의 질은 특정사회의 객관적 삶의 조건과 환경을 표현하는 개념이기도 하지만 개인이 스스로의 삶이 자신의 기대를 충족시킨다고 인식하는 주관적 수준에 따라서 변화하는 개념이기도 하다. 따라서 삶의 질 개념자체를 주제로 한

연구에서 삶의 질은 객관적인 삶의 조건에 대한 개인이나 집단의 주관적인 인지적 평가로 정의하면서 우선 삶의 질을 객관적인 차원과 주관적인 차원으로 구분하고, 객관적인 차원은 특정한 사회의 객관적인 삶의 조건과 환경을 포괄한다고 한다(임희섭, 1996). 예를 들면, 경제적인 생활수준이나 평균수명, 직업기회와 직업 선택의 다양성, 교육기회와 교육여건, 범죄율이나 교통사고율, 문화적인 시설, 의료보장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삶의 조건’들은 분명히 그 사회구성원들의 삶의 질에 직접 혹은 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한다.

한편 삶의 주관적인 차원은 개인의 삶이 자신의 명시적 혹은 묵시적인 내면적인 기준(기대수준)을 충족시킨다고 인지하는 정도인데 이는 똑같은 객관적인 조건에 대해서도 개인이나 집단에 따라 만족하는 정도가 다르다는 사실에 기초하고 있다. 그러나 적절하게 선택된 객관적인 지표들은 주관적인 삶의 만족도와 높은 상관관계를 지닐 수 있으며 객관적인 삶의 조건들은 주관적인 만족의 충분 조건은 아니라 해도 필요조건으로서의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주관적인 삶의 질(임희섭, 1996)은 개인이나 집단이 자신의 객관적인 삶의 조건을 인지적으로 어떻게 평가하는가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객관적인 조건을 나타내는 지표와 주관적인 만족을 나타내는 지표사이에는 개인의 성향이나 상황에 따라 때로는 정(正)의 관계로 때로는 부(負)의 관계로 나타나는 가변성을 지닌다고 한다.

이와 같이 삶의 질이란 인간생활의 객관적 조건과 주관적 심리상태를 모두 포함하는 종합적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그 개념 정의가 다양해질 수밖에 없다. 삶의 만족도 개념은 Neugarten, Havighust & Tobin(1961) 등이 활동이론과 분리이론 즉, 은퇴이론을 검증하기 위하여 삶의 만족을 종속변인으로 사용하여 지표를 개발하면서부터 일반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후 고도의 산업화를 거치면서 물질적인 풍요는 더 이상 인간으로 하여금 삶의 만족이 생존이 아닌 행복추구임을 인지하면서부터 삶의 만족에 대한 연구가 본격화되기 시작하였는데 삶의 만족도를 심리적 안녕으로 정의(최성재, 1986)하면서, 열의 대 냉담, 결심과 인내, 바라던 목표와 성취된 목표와의 일치성, 긍정적인 자아개념, 행복하고 낙천적인 태도와 기분상태 등 5개 척도를 구성하고, 이러한 감정적인 측면을 묻는 질문을 구성하여 삶의 만족도를 측정하였다.

이상과 같은 삶의 질의 개념을 고찰하면서 파악한 것처럼 결국 삶의 만족도는 삶의 질의 주관적인 측면을 말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삶의 만족도에서 말하는 ‘만족감’은

행복감, 기쁨, 안녕, 복지, 충만, 사기, 적응, 인간복지, 주관적 복지, 긍정적-부정적 감정, 삶의 질, 성공적인, 좋은 또는 바람직한 등의 개념과 혼용되거나 교환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처럼 삶의 만족도란 용어가 다양하게 사용되는 것은 인간의 만족감을 경험적으로 측정하는 방법이 다양하고 또한 만족감이라는 주관적 감정이 어떤 상태인지를 다양한 측면에서 논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삶의 만족에 대한 개념은 국내 학자들의 관점 혹은 준거의 특성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되어져 왔고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삶의 만족도를 주관적이고 상대적인 개념으로서 개인 자신에 대한 평가일 뿐만 아니라 미래에 대한 긍정적인 정도로 정의한다(이효재, 1979; 장상화, 1998; 민경진 외, 2007; 김원배, 2009) 둘째, 삶의 만족도를 개인의 일상적 경험을 통한 긍정적 및 부정적 감정에 대한 판단과 복합적인 감정으로 정의한다(박성연·최혜경, 1985; 김기태·박봉길, 1998)

공통적인 요소들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는 대표적으로 지극히 주관적이고, 일상 생활에서의 경험적 감정이며, 기대에 대한 충족과 행복을 도모하여 삶의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을 내포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삶의 만족은 삶의 전반에 질적인 부분과 관련이 있고 행복과는 직결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삶의 만족도의 개념을 개인이 처한 객관적 환경에 대한 주관적이고 인지적인 판단과 평가이며, 개인의 인구사회학적인 요인과 현재 삶에 대한 주관적인 기대감에 따라 그 정도가 상대적으로 인지될 수 있다는 상태라고 정의하고자 한다. 이에 따라 국내 학자들의 견해에 따른 삶의 만족도에 대한 정의를 정리하면 <표 2-3>과 같다.

<표 2-3> 삶의 만족도에 대한 정의

연구자	연구제목	정의
최성재(1986)	노인의 생활만족도척도 개발에 관한 연구	과거 및 현재의 삶과 활동에 대한 전반적 평가와 미래의 삶과 활동진반적인 전망에 대한 긍정적인 정도
박성연·최혜경 (1985)	노인의 생활만족도 향상을 위한 기초 연구	생활에 대한 기대와 현실적인 충족간의 합치여부에 서 오는 주관적인 만족감으로서, 개인의 심리적 특성과 환경적인 여건뿐만 아니라 생활의 역사를 통해서도 영향을 받는 복합적인 감정
김기태·박봉길 (1998)	재가노인과 시설노인의 생활만족도 비교	개인의 일상적 생활경험을 통한 긍정적 및 부정적 연속성에 대한 다양한 정서적 반응의 복합적인 상태
한정란·김수현 (2004)	농촌 남녀 노인의 사회적 구학적 변인과 자아존중감이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지금까지 살아온 생활전반에 걸쳐 느끼는 주관적인 감정에 대한 판단이며 기대에 대한 충족정도
김원배(2009)	한국노인의 생활만족도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활동이론과 자원이론을 중심으로	개인의 삶을 구성하는 모든 활동과 자원으로부터 물질적이든 정신적이든 간에 개인의 기대와 현실적 보상 사이의 일치이며, 개인이 주관적으로 경험하는 감정상태로서, 과거와 현재에 대한 개인 자신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일뿐 만 아니라 미래에 대한 희망의 긍정적 정도
이중섭(2010)	장애노인의 생활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절대적인 실제로 존재하기보다는 오히려 주관적이고 상대적인 개념으로서 개인의 기대와 충족도의 일치에서 오는 주관적이며 개인적인 현상으로서 생활영역전반에 대한 행복과 만족에 대한 주관적 평가
김재현(2013)	노인들의 여가 참여특성에 따른 우울감, 사회적응, 여가만족, 삶의 만족에 관한 연구	지극히 주관적이고 일상생활에서의 경험적 감정이며, 기대에 대한 충족과 행복을 도모하여 삶의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

* 출처: 김재현(2013) 재구성

2) 노인의 삶의 만족도

우리보다 먼저 노인 문제를 경험하기 시작했던 서구의 학자들은 노인문제해결을 위해 노인들이 과연 어떤 개인적, 사회적 조건 속에 최대의 만족과 행복을 느끼는지 알아내고자 하였다. 그 결과 노인의 삶의 만족도에 관한 연구(김남희, 2011)가 오랫동안 진행되어온 것이다. 노인의 삶의 만족도(김원배, 2009)는 노년기를 보내는 노인의 사회적 적응과 사회적 상호작용, 그리고 이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에 대한

질적 수준에 대한 인지적 평가인 동시에 주관적인 판단에 의존하는 개념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그리고 노인의 삶의 만족은 노인복지에서 관심의 초점이 되어 왔으며 노인의 삶의 질이나 주관적인 웰빙(well-being)의 인지적 차원이다.

결국 노인의 삶의 만족감(장주호, 2011)은 노인의 객관적 환경요인에 대한 주관적, 인지적, 정서적 판단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만족감은 삶에 대한 심리적 판단이므로 객관적인 삶의 질이 지표상에서 높다고 하여 반드시 비례적으로 높을 수 없으며, 개인이 자신의 환경과의 상호작용과 경험에 대한 반응과 의미부여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상대적인 평가이기도 하다.

삶의 만족도, 삶의 질은 삶의 양적이고 질적인 측면의 결합을 통하여 노인의 삶의 질과 만족도를 총체적으로 파악하려는 개념으로서, 실제로 이 개념들이 포함하는 내용을 서로 구분하기는 극히 어려우며, 노년기를 구성하는 전체적이고 포괄적이며 보편적인 생활요소들을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새로운 시대에 맞는 노화에 대한 개념규정이 필요하며, 동시에 성공적 노화에 포함되어 있는 각 기능들의 보완도 필요하다고 본다. 결국 노인의 삶의 만족도는 노인 자신의 주관적인 평가로 일상생활 전반에 걸친 삶에 대한 만족(박영례 외, 2005)이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이며, 노인의 삶의 만족도는 노인이 늙어간다는 현실에 성공적으로 적응함으로써 가능하다.

따라서 노인의 삶의 만족도란 현재 상황에 대한 기대와 현실적인 충족 여부에 의해 결정된다고 할 수 있으며, 현재 지위와 활동에 대하여 갖고 있는 정서적 만족감이라고 정의(김희주·주경희, 2008)될 수도 있다. 이 연구에서 노인의 삶의 만족도는 노인이 자신의 삶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는지를 주관적 관점에서 나타내는 것으로써 현재 삶의 객관적 환경요인의 구성요소 즉, 생활영역에 대한 노인의 주관적이고 인지적이며 정서적인 판단과 평가라고 정의하고자 한다.

4. 선행연구

1) 제주여성노인과 관련된 성공적 노화 선행연구

제주노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은 2000년도 이전에는 제주도 노인의 건강상태 및 건강관리방법(김성찬·강명훈, 1997)과 제주도 100세 이상 장수노인을 대상으로 장수요인 규명(김성혁, 1998), 제주도 노인들의 건강 생활양식(이경희, 1997) 등 제주노인의 현황과 건강실태에 관한 분야 등이 대부분이다. 그러나 ‘성공적 노화’에 대한 관심이 일기 시작한 2000년대 이후 제주도 노인을 대상으로 삶의 질에 관한 연구(고보선·유용식, 2002), 소득보장 정책개발연구(박차상, 2003), 제주노인의 사회적 지지 유형특성(고보선, 2004), 여가활동(김진영·김남진, 2008), 사회적 부양체계에 대한 연구(고승한·김진영, 2008), 노인여가정책 활성화 방안(고미영, 2010), 성생활 실태와 성문제 해결방안(김양이·송기오, 2010), 노인자원봉사활동(정광중·황석규·김준혁, 2010) 등 다양한 주제로 연구가 이루어졌지만 삶의 질에 관한 관심으로 이어진 성공적 노화에 관한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다.

제주도 노인들의 건강생활양식을 비교 문화적으로 검토하여 탐색한 연구(이경희, 1997)에서는 섬이라는 자연환경과 그로 인해 발생한 사회문화적 환경이 영향을 주며, 그 속에서 살아나가기 위한 방편으로 이루어져 온 것들이 제주도라는 하나의 문화를 형성하고 이것은 인간에게 영향을 끼쳐 건강을 위한 양식을 보인 것임을 알 수 있다. 건강에 대한 정의를 말할 때 문화를 빠뜨릴 수가 없으며 총체적인 입장에서 건강을 논의해야한다. 제주도의 자연, 인체, 인간, 신과의 조화를 이루면서 이들은 서로 역동적인 작용을 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제주도에 거주하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연구하려면 제주도의 총체적 환경을 인식하고 출발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고보선(2004)은 제주도에 거주하고 있는 65세 이상의 노인을 대상으로 그들에게 제공되고 있는 정서적 지지유형과 도구적 지지유형을 제공자와 수혜자의 상호작용 관계의 관점에 근거하여 지지정도와 지지만족도의 차이에 따라 유형을 구분하였다. 각 유형에 따라 일반적 특성, 건강특성 및 주관적 삶의 질 특성을 파악하여 노인의 사회적 지지유형에 따라 노인의 주관적 삶의 질 수준에 차이를 보이고 있다. 즉, 노인의 주관적 삶의 질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정서적 지지의 경우, 지지정도보다 이에 대한 노인의 만족도가 일치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다. 이는

제공자로부터 사회적 지지를 많이 받는 것이 곧 노인의 주관적 삶의 질 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이 아님을 보여준다.

이러한 결과들은 제주지역의 대표적인 특성인 개인의 자립성과 세대간 독립성으로 설명할 수 있다. 제주의 가족제도와 가족관계를 보면, 결혼과 동시에 장남이더라도 분가시켜 주거공간을 따로 하여 생활하고 남성과 여성 모두 생활에 투입되며, 이웃이나 친척관계에서도 각자의 삶을 존중하여 타인의 삶에 간섭하지 않는다. 이러한 특성은 자칫, 사회적 관계의 단절을 우려할 수 있으나, 개인의 자립성이나 세대간 독립성을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지역 자체 내에서 이들을 위한 노력이 있어왔다. 이러한 특성들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제공받는 지지의 정도보다 지지에 대한 만족도를 더 중요하게 생각한 것(고보선, 2004)이 자신의 삶의 질에 대한 인식에 표현된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긍정적 도구지지형’은 제주여성노인이 남성노인에 비하여 주관적 삶의 질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이러한 결과는 제주지역의 여성노인의 비율이 남성노인보다 높은 점을 고려할 때, 여성노인의 도구적 지지에 대한 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욕구사정과 프로그램 개발 등의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되고 제주여성들에 대한 좀 더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제주여성의 자아존중감과 삶의 만족도의 상관관계를 중심으로 노인인구의 독립성 영향요인을 살펴본 연구(고희자, 2005)에서는 삶의 만족도 요인을 인간관계, 개인생활, 경제, 가족관계, 여가활동, 심리 등의 만족도였으며, 인간관계 만족도가 가장 높고, 가족관계, 경제, 개인생활, 여가활동 만족도 순으로 심리적 삶의 만족도가 제일 낮은 것으로 보고 있다. 제주에 거주하고 있는 65세 이상 노인대학에 다니는 노인을 대상으로 성의식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연구(양연심, 2008)에서는 남성일수록, 서귀포노인들이, 종교를 가지고 있을수록, 배우자가 있을수록, 현재 직업을 가지고 있을수록, 본인이 생활비를 마련할수록,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고, 성인식도가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는 높아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노인들의 질적인 삶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조건들은 건강과 자신의 일에 대한 존재 가치, 경제적 안정, 가족이나 배우자를 통한 애정욕구의 만족 등 다양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노인들이 인간의 생존기초에 속하는 의식주 문제에 만족을 하지 못하고 한 차원 다른 삶의 패턴 중에서도 자아실현의 욕구, 인간본능의 사랑욕

구 등은 이성교제, 노후의 성 생활욕구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만성질환을 가진 제주도 노인들의 생활만족도를 살펴본 연구(고인순, 2008)에서는 선행연구에서 노인의 삶에 있어 가장 중요한 자원으로 언급된 ‘가족 지지’가 밝혀졌으며, 질적인 노후생활을 영위함에 있어서 빼 놓을 수 없는 중요한 요인으로 자리 잡고 있어 ‘가족지지’가 생활만족에 영향요인으로 확인되고, 무엇보다도 ‘배우자의 지지’가 강한 조력자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보여준다.

제주지역에서 시도되지 않았던 독신노인들의 성생활과 성의식이 삶의 질과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 살펴본 연구(고연희, 2008)에서 독신노인의 생활만족도 수준은 평균보다 조금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고, 생활만족도 하위변인 수준은 자아존중감, 현실만족감, 자아성취감, 노화에 대한 태도 순으로 나타났다. 노인의 자아존중감은 중요한 타인으로부터 신뢰, 사랑, 돌봄, 가치감이 보장되고 제공될 때 강화된다고 하였는데, 개인의 자아존중감은 행동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영향을 주며, 긍정적인 자아개념을 가진 사람일수록 모든 일에 적극적으로 성취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무엇보다 한국노인의 성공적 노후 척도를 근거로 하여 제주노인의 삶을 유형화하고 각 유형별 특성을 파악하여 노인의 성공적 노후를 유지, 향상시키기 위한 연구(고보선, 2008)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제주노인의 삶 유형을 ‘나홀로형’, ‘자녀중심형’, ‘성공노후형’, 그리고 ‘자녀조화형’으로 구분하였다. 유형 중 ‘성공노후형’의 분포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다른 유형에 비해 경제의존, 정서의존, 정신의존이 가장 낮은 것으로 보여준다. 여기서 보면, 전통적으로 경제적인 자립의 특성(한창영, 1998)을 지니고 있는 제주의 사회문화적 맥락에서 볼 때, 노인의 자립특성은 제주노인의 성공적 노후를 향상시킬 수 있는 또 하나의 요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으나 노화로 인한 의존적 욕구와 자립특성에 대한 기대 간의 갈등을 고려할 수 있도록 노인의 의존유형에 따라 접근방법을 다양하게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특히 제주지역은 분가주의, 개인단위의 의식 등의 독특한 가족관계의 특성을 보이지만, 가족관계에 대한 노인의 평가에 있어서는 노인 자신의 삶뿐만 아니라, 자녀 및 배우자와의 관계를 중요시하는 ‘성공노후형’ 노인이 가족관계를 더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앞으로 노인의 성공적 노후를 위해서는 노인 자신의 삶에 초점을 맞추는데서 벗어나, 원만하고 긍정적인 가족구성원들간의 상호작용 관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성공적 노화’에 관한 연구들이 많이 이루어져왔지만 연구대상이 특정한 지역, 부류, 계층 등에 한정되어 있어 빠른 고령화를 보이고 있는 제주에 거주하고 있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성공적 노화에 관한 연구는 거의 없다. 제주노인들의 성공적 노화 인식을 살펴본 연구(김혜숙·강기은, 2013)에서는 제주노인들이 무엇이든 스스로 하고, 기대하지 않으며, 독립적이고 자식에게 의지하지 않기 위해 저축을 해 두는 준비성이 있다는 특성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사별하거나 이혼을 한 경우에는 배우자의 존재, 그 자체만으로 성공적 노화라고 여기고 있었고,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부부관계의 질에 중점을 두고 사랑하고 사이 좋게 지내며, 싸우지 않는 것을 성공적 노화라고 여기고 있다. 무엇보다 제주여성노인은 남성노인보다 ‘자기효능감을 느끼는 삶’, ‘자녀성공을 통해 만족하는 삶’, ‘자기통제를 잘 하는 삶’을 더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준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여성노인의 성공적 노화에 대한 인식이 높고 자신의 삶을 잘 관리하고 자녀를 통한 만족을 느끼는 삶에서 높은 점수를 보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에 남성노인이 여성노인보다 성공적 노화의 인식정도가 더 높게 나타난 연구(신영희·이혜정, 2009)에서는 문화적 가치에 따라 성공적 노화의 인식정도가 달라질 수 있고 전통적으로 사회화되는 과정이 다르기 때문에 일관성이 없고, 상이한 결과를 보여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함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제주여성노인을 대상으로 성공적 노화 인식이 삶의 만족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좀 더 중점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다음 <표 2-4>는 제주여성노인과 관련된 성공적 노화 선행연구를 정리한 것이다.

<표 2-4> 제주여성노인과 관련된 성공적 노화 선행연구

연구자	연구제목	연구내용
고보선 (2008)	제주노인 삶의 유형별 건강 및 심리적 특성에 관한 연구	제주노인의 삶 유형은 ‘나홀로형’, ‘자녀중심형’, ‘성공노후형’ 그리고 ‘자녀조화형’으로 구분되었으며, 유형 중 ‘성공노후형’의 분포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김혜숙·강기은 (2013)	제주노인들의 성공적 노화에 관한 인식연구	제주여성노인은 남성노인보다 ‘자기효능감을 느끼는 삶’, ‘자녀성공을 통해 만족하는 삶’, ‘자기통제를 잘 하는 삶’을 더 중요하게 인식

2) 삶의 만족도와 관련된 성공적 노화 선행연구

노년기 삶의 만족도는 현재 상황뿐만 아니라 과거에서 현재까지 살아온 삶에 대한 총체적인 만족도라고 할 수 있다. 최근 들어 노인의 삶의 만족도(김주성, 2011)를 측정하고 그 요인을 밝히는 연구가 많아지고 있는데, 이는 노년기 생활전반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는가가 행복한 삶을 결정짓는 요소가 되기 때문이다.

노인에게 있어서 삶의 만족(조해경, 2002)이란 한 개인이 늙어간다는 현실에 성공적으로 적응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하나의 상태라고 볼 수 있으며 노인이 노후 생활에서 인생의 풍요함을 경험하는 정도, 과단성과 용기에 대한 민감도, 어떠한 목표에 대한 욕망과 성취와의 일치 정도, 행복을 느끼고 낙관적인 기분을 갖는 정도, 또한 육체적, 심리적, 사회적 자아를 높게 갖는 정도에 따라서 규정된다고 볼 수 있다.

노인의 삶의 만족도에 관련된 연구들로는 성, 연령, 학력, 종교 등 개인적인 특성과 삶의 만족도와의 관계를 설명하는 연구(박기남, 2004), 노인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연구(김미령, 2008) 등이 있다. 무엇보다 노인의 삶의 만족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김경호·김지훈, 2008)으로 우울을 꼽을 수 있는데, 우울한 노인일수록 삶의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사회참여와 삶의 만족도간의 관계에 대해 이루어진 연구(조주연·권중돈, 2000)에서는 노년기에 적극적인 사회활동의 참여가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며, 활동의 저하는 삶의 만족도를 저하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사회참여에 적극적인 노인일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았으며 노인들 스스로도 사회참여나 자원봉사활동이 삶의 만족도를 높여준다고 보고하는 이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은 맥락으로 성공적 노화와 삶의 만족도의 관계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성공적 노화와 삶의 만족도에 대한 연구들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Rowe & Kahn(1998)은 노인의 건강상태, 사회관계망의 특징, 심리적 특징, 신체적·인지적 기능, 생산적 활동 등의 5가지 영역을 측정하여 이들 간의 영향력 및 관련성을 다각적으로 분석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성공적 노화의 개념을 도출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 성공적인 노화의 개념에 질병과 질병에 의한 장애의 위험이 낮고, 높은 수준의 인지적·신체적 기능을 유지하며, 삶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를 포함하는 것, 이 세 가지가 성공적 노화의 이론적 구성요소이고 이러한 성공적 노화의 구성요소와 삶의 만족도와의 관계를 살펴보는 것(성혜영, 2005)은 노년기의 성공적인 노

화를 통해 삶의 만족도를 증진시키며 이에 따른 정책적·실천적 함의를 제공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또한 성공적 노화의 구성요소가 삶의 만족도를 얼마나 잘 설명해주는가를 검증하는 실증적인 자료를 제시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본다.

한국적 성공적 노후 척도를 활용한 노인의 삶의 만족에 대해 살펴본 연구(김희주·주경희, 2008)에서는 자녀의 성공을 통해 만족하는 노인들은 자기통제감과 자기효능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받게 되고, 결국 삶의 만족도도 높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자녀성공, 동반자적 삶의 가족적 요인이 노인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는 기존의 연구와 일치된 결과를 보이고 있다. 특히 배우자와의 관계가 사회적 삶의 활동 면에서 중요한 성공적 노화의 한 요소라는 연구(김미령, 2008)와 일치된 결과를 보이고 있다. 자녀들이 성공하고 행복하게 잘 살고 있다는 자체만으로 자신의 존재 이유와 안녕감을 증진시킨다는 가족적 요인이 개인적 요인에 영향을 미치는 결과는 백지은·최혜경(2005)의 연구에서 자녀들의 성공이 다른 사람들에게 내세울 수 있고 부러움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으로 자신의 자존감과 자아통합감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와 비슷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유배우자 노인을 중심으로 삶의 만족도가 성공적 노화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김경호·김지훈, 2008)에서는 성공적 노화 여부를 설명하는데 배우자 및 자녀와의 관계보다도 자신의 건강상태 및 경제적 지위에 대한 만족도와 동년배와의 상대적 비교 만족도가 결정적으로 중요한 변인임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노인의 보살핌을 당연시하는 전통적인 가족의 특성보다도 우리나라 가족이 서구화 즉, 핵가족화 및 개인주의화로 진행되고 있는 상태에서 IMF를 겪은 세대의 특성이 전기 노인세대에 반영되고 있다는 반증을 보여주는 특이한 상황이라 하겠다. 이러한 결과는 우리나라 노인세대는 유교문화의 전통 속에서 자녀가 잘 되고, 자녀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성공적 노화의 준거점으로 보고 있다(강인, 2003)는 선행연구와 상반된다고 볼 수 있다.

대구, 경북지역의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60세 이상 여성노인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성공적 노화의 구성요소를 살펴본 연구(김미령, 2008)에서는 성공적 노화의 세 요소가 삶의 만족도 변량을 약 40% 정도 설명하고 있어 상당히 높게 설명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건강인지가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아 노인이 인지한 신체건강은 성공적 노화의 중요한 요소임을 알 수 있고, 교육도 여성노인의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성공적 노화의 요소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직업 활동을 하는 것이

흔치 않은 현대의 노인세대에 여성노인들이 직장생활을 계속 할 경우 삶의 만족도가 직장생활을 하지 않는 노인보다 높음을 알 수 있다. 여성노인의 종교 활동 참여 수준이 많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고, 사회적 소외를 경험할수록 삶의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여성노인의 성공적 노화의 신체적·사회적 특성, 심리적 특성, 자아존중감 및 삶의 만족도의 구성요인을 알아보고, 여성노인의 신체적·사회적 특성이 자아존중감과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력을 확인하고자 한 연구(김남희, 2011)에서는 여성노인의 삶의 만족도에는 신체적 특성의 일상생활능력과 신체 기능, 사회적 특성의 종교활동과 사회활동이 영향을 주는 요인인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이는 노년기를 만족하면서 성공적으로 보내는데 있어 신체적 건강과 종교 활동을 통한 영적 안정 및 사회적 교류가 필요하다는 것을 나타내는 결과이다. 즉, 여성노인들은 건강하게 자신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스스로 노력해야 함은 물론, 종교를 갖거나 종교모임을 통한 적극적인 관계유지로 사회적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65세 이상 노인 중 자신을 노후 연령으로 인식하지 않은 집단과 자신을 노후 연령으로 인식하는 집단의 성공적 노화구성요소를 비교하고 성공적 노화의 구성요소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차이가 있는가를 비교한 연구(김미령, 2013)에서는 자신을 노인이라 인식하지 않을 경우 높은 만족감을 갖고 있고 자신의 삶을 성공적으로 보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신들이 스스로 젊은 연령인식을 갖고 있는 것은 성공적으로 적응하는 하나의 방법이며 기대수명의 증가에 적응하여 성공적 노화를 하기 위한 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기대수명이 증가함에 따라 연대기보다 젊은 연령인식을 갖고 있는 것은 노년층 자신들의 성공적인 노화 뿐 아니라 사회적 인식의 변화를 통하여 노화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하는 것으로 역시 중요한 성공적 노화의 요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그 동안의 선행연구는 같은 노인일지라도 성공적 노화 인식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관계를 단일변인에 의해 살펴본 연구에 국한되어 있다. 이 연구에서는 여성노인의 인구사회학적 요인 특성과 성공적 노화 6가지 요인 인식, 삶의 만족도 등이 연결되면서 그 차이와 영향을 살펴봄으로써 좀 더 다른 차원에서 검토하고자 한다. <표 2-5>는 삶의 만족도와 관련된 성공적 노화 선행연구를 정리한 것이다.

<표 2-5> 삶의 만족도와 관련된 성공적 노화 선행연구

연구자	연구제목	연구내용
김희주·주희경 (2008)	한국적 성공적 노후 척도를 활용한 노인 삶의 만족에 관한 연구	배우자, 자녀와의 관계가 노인의 삶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이 크며, 특히 자녀의 성공요소가 노인의 자기효능감을 높이고 결과적으로 삶의 만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침
김미령(2008)	여성노인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성공적 노화의 구성요소	성공적 노화 요소 중 건강인지가 높을수록, 종교 생활, 직업활동을 하는 여성노인들이 삶의 만족도 높음
김경호·김지훈 (2008)	삶의 만족도가 성공적 노화에 미치는 영향	성공적 노화 여부를 설명하는데 배우자 및 자녀와의 관계보다도 자신의 건강상태 및 경제적 지위에 대한 만족도와 동년배와의 상대적 비교 만족도가 결정적으로 중요한 변인
유재남(2011)	노년기 성공적 노화와 삶의 만족도 궤적에 관한 종단 연구	성공적 노화가 노인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종단적으로 검증한 결과, 여성노인이 남성노인보다 삶의 만족도가 더 높음
박영민(2011)	남녀노인의 성공적 노화 지각과 생활만족도 관계 비교연구	여성노인의 생활만족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변인은 경제수준이었으며, 성공적 노화 요인 중 '자녀에 대한 만족'과 '부부동반자적 삶'의 두 요인에 의해서 생활만족도가 결정됨
김남희(2012)	여성노인의 성공적 노화 인식이 자아존중감과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배우자, 종교가 있고 경제상태가 보통이거나 어렵지 않은 여성노인들이 자아존중감과 삶에 대한 만족도 높음
김미령(2013)	노후연령인식 여부에 따른 성공적 노화 구성요소 차이 및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노년기에 혼자 있는 것보다는 배우자와 함께 동거하는 것이 삶의 만족도에 중요한 요소임

3) 지역과 관련된 성공적 노화 선행연구

거주지역 환경은 노인의 삶의 질에 있어 개인의 심리적인 요소뿐만 아니라 거주지역 주변환경에 따라서도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인간의 삶의 질(김미령, 2008)은 개인의 내적 요소 뿐 아니라 외적 환경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다. 몇몇 학자들은 노인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로 환경적인 요인을 들고 있다.

서울과 춘천 지역 여성노인의 삶의 만족도 연구(박기남, 2004)에서는 춘천 여성노인의 경우 복지시설에의 접근도가, 서울여성노인의 경우 교육수준이 삶의 만족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의료·복지 시설

접근도에 따른 만족도가 춘천지역 노인들에게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춘천지역이 서울보다 의료·복지시설의 수준이나 다양성, 대중교통 등이 편리하다고 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렇듯 노년기 삶의 만족도 연구에 있어서 객관적인 조건과 주관적인 만족간의 괴리에 대해 보다 심화된 논의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군·지역에 거주하는 대부분의 노인들(서유석, 1994)은 각종 의료·운동 시설 등 제반편의 시설들이 없거나 부족하여 의료시설이용, 취미활동 또는 오락과 같은 일상적인 욕구를 충족시킬 수도 없고, 능력이 부족하여 경제적 문제와 건강의 문제에 직면하고 있으며, 안정적이고 다양한 서비스 시설들이 가까운 거리에 있는 노인들의 생활요인을 향상시키고 사회적 고립을 탈피하게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노인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로 지역사회환경요인을 들 수 있다. 즉 지역사회의 환경적 요인이 노인의 삶의 질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김미령, 2008). 지역사회 환경 접근성이 높은 노인일수록 삶의 질이 높은 것(배나래·박충선, 2009)으로 나타난 것으로 볼 때 거주지의 주변여건, 즉 거주지 환경이 노인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노인의 일상생활에 가장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삶의 터전인 거주환경은 크게 도시, 농촌이라 하는 지역적 특성에 따라 교육, 문화, 보건, 의료, 교통 등과 같은 서비스가 불균등하게 분포되어 있어서 노년기 삶의 만족에 다른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지역적으로 볼 때 도시와 농촌지역을 비교해 보면, 생활양식이 바뀌어감에 따라 산업화로 인한 경제·사회·문화적인 사회의 발전은 도시와 농촌간 서로 다른 구조로 차별성을 갖게 한다. 농촌의 경우는 도시에 비해 더욱 주변의 여건상 의료 및 여가시설 등 지역사회발전 인프라가 열악한 형편이다. 또한 산업특성상 농촌노인들의 경제활동(이소정, 2009)은 도시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농촌의 특성상 노인에 못 미치는 환경여건은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노인들의 인간관계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농촌노인들은 도시노인들에 비해 각종 행사나 봉사활동, 취미활동, 종교활동 등 참여기회 부족으로, 교육이나 사회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영역이 좁다(윤형준, 2010; 이신영, 2010). 특히 농촌지역은 특성상 지역인구가 적고 분산되어 있어 도시보다 거리가 멀고 시간이 많이 걸려 대부분 그 테두리 안에 머물러 있으며 사회적 관계가 활성화 되지 못하는 형태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나 있다. 그 결과, 농촌지역에서 살고 있는 노인보다 도시지역에서 살고 있는 노인들의 성공적 노화 수준이 높게 인

식되고 있다.

그러나 강신옥·방혜선(2010) 연구에서는 도시에 거주하는 노인이 농촌에 거주하는 노인보다 성공적 노화 수준이 낮게 나타나는 정반대의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물리적인 측면에서 가족과 지역사회의 해체 경향이 농촌에서 강하게 나타나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농촌에 거주하는 노인은 도시노인보다 그들의 삶을 긍정적으로 보는 태도가 강하다는 것이다. 이는 더 익숙하며 동질적인 이웃이 사는 농촌 환경에서 노인들이 익명성과 소외감, 다른 세대와의 갈등을 덜 받고 있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노인인구의 증가, 특히 노인인구 비율 중 여성노인의 증가현상에 주목하여 노년기 삶의 만족도에 대한 연구에서도 여성노인들은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여성노인들의 삶의 만족도가 훨씬 낮게 나타나(박기남, 2004), 여성노인 안에서도 지역에 따른 차이를 감안한 차별화된 여성노인 복지정책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지역의 물리적 환경이나 사회적 환경의 특성을 동시에 반영하기 위하여 강원도 내 시·군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만 60세부터 80세를 기준으로 남·여 노인들을 대상으로 설문문을 통하여 조사한 연구(윤형준, 2010)에서는 강원도의 지리적인 여건을 감안하여 성공적 노화의 실증적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이에 대한 거주지별 차이분석은 성공적 노화수준인 신체·정신·사회적 수준, 영향요인 집단 인식 모두가 시·군별로 차이가 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원인은 시 지역은 의료, 문화, 교통, 프로그램의 발달과 노인을 위한 기본적인 인프라 시설이 군 지역에 비해 높음에 따라 나타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인구 및 재정력에서 오는 차이로 볼 수도 있다.

그리고 지역사회 여건을 고려한 사업의 개발 및 추진이 노인일자리 사업의 성과를 가름하는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인식하에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을 구분하여 성공적 노화 간의 관계를 분석한 연구(이지영, 2013)에서는 도시지역의 심리적 요소에 대한 평가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난 것에 비해 농촌 지역의 경우에는 사회적 요소에 대한 평가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 차이를 보이고 있다.

노인들에게 주거지가 주는 상징적 의미는 매우 중요하며 개인의 정체성을 유지하는 중요한 요소다. 노인들은 노화에 적응하는 방법으로 지속성을 택하여 자신들의 지역사회 환경의 변화를 원하지 않고 계속 유지하려고 하므로(김미령, 2006), 거주 환경도 노인들의 삶의 질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 동안은 어느 한 지역만을 연구대상으로 성공적 노화에 대한 연구를 진행한 연구가 대부분이다(고윤순·이

정숙, 2009; 윤순덕·한경혜, 2004). 서로 다른 지역을 연구대상으로 한 성공적 노화 선행연구를 나타낸 것은 <표 2-6>에 제시되어 있다.

이 연구에서는 노인들에게 거주지역이 주는 상징적 의미가 매우 중요하며 개인의 정체성을 유지하는 중요한 요인이므로 제주여성노인의 성공적 노화 인식 특성을 분석하고자 서울여성노인의 성공적 노화 인식을 같이 살펴봄으로써 그 차이를 통해 다름을 알아보하고자 한다.

<표 2-6> 지역과 관련된 성공적 노화 선행연구

연구자	연구제목	연구내용
강신옥·방혜선 (2010)	농촌노인과 도시노인의 성공적 노화에 관한 비교연구	농촌 노인이 도시노인보다 건강 및 사회경제적 수준이 낮으나, 가족지지 및 일자리 참여효과, 노년기 활동인식이 도시노인보다 높고 또한 성공적 노화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음
윤형준(2010)	성공적 노화에 미치는 영향 요인과 인식에 관한 연구	시 지역 집단이 군 지역 집단보다 우울증, 인지력, 자기효능감 등이 낮게 나타남
이신영(2010)	성공적 노화 인식에 관한 성별 비교 연구	도시 여성노인의 경우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주관적 경제수준이 높을수록 성공적 노화에 대한 인식 높음
이지영(2013)	정부 노인고용 서비스 전달 체계의 효과성이 성공적 노화에 미치는 영향분석: 도시와 농촌지역의 차이비교	도시지역의 성공적 노화를 제고하기 위해 전문성 및 책임성을 높일 수 있도록, 농촌지역의 경우는 전문성 및 통합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함

Ⅲ. 연구방법

1. 혼합연구방법

이 연구에서는 설정된 연구목적과 모형을 검증하기 위해 양적 방법과 질적 방법을 혼합해서 사용하는 혼합연구방법 설계를 사용하였다. 양적 연구방법론과 질적 연구방법론의 발달로 인하여 2000년대 초반을 기점으로 혼합연구방법의 활용이 증가하고 있다. 혼합연구방법(이원석, 2011)은 역동적인 사회현상을 보다 잘 이해할 수 있고, 한 가지 방법론에서 나타날 수 있는 약점들을 최소화하고 한계와 편향을 상쇄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연구방법으로 인정을 받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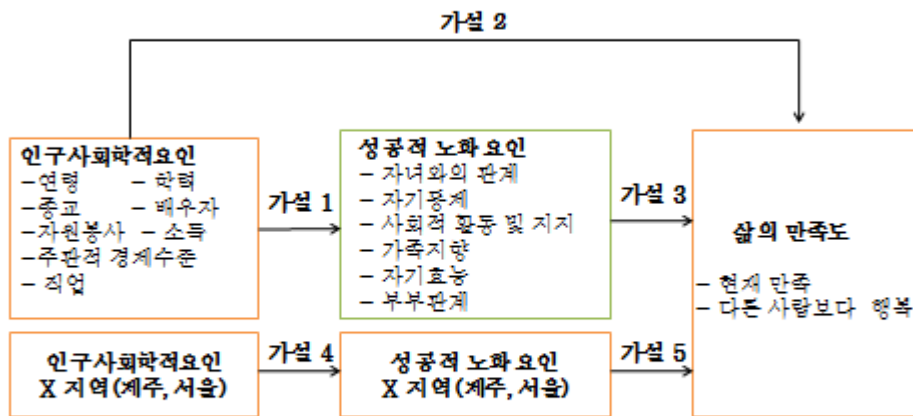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는 근본적으로 다른 학문적 전제와 연구목적에 기반을 두고 있지만 실용주의적인 접근을 통해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의 장점을 모두 살려서 연구문제에 효과적인 해답을 모색할 수 있다는 점에서 혼합연구방법은 적절한 방법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양적 자료 수집을 위해서는 설문지를 사용하였고, 질적 자료 수집을 위해서는 심층면접 방법을 활용하였다.

양적 자료와 질적 자료를 함께 사용하는 것은 성공적 노화 인식에 영향을 주는 변인 간의 관계에 대하여 양적 자료 분석을 통해 검증하고, 구체적인 변인간의 관계를 세부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질적 분석을 통하여 보완하기 위해서이다. 양적분석은 인구사회학적 요인에 따른 성공적 노화 인식과 삶의 만족도 차이관계, 성공적 노화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관계를 분석함과 동시에 연구모형에 나타나는 성공적 노화 인식이 현실상황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는지에 초점을 두고 질적 연구방법을 사용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2. 연구가설 및 문제

양적연구에서는 여성노인의 인구사회학적 요인을 선행변수로, 성공적 노화를 독립변수로 선정하고 삶의 만족도를 종속 변수로 하여 연구 분석틀을 설정하고자 한다. 그리고 제주여성노인을 좀 더 심층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지역(제주, 서울)을 검증변

수로 선정하여 연구모형을 만들고자 한다. [그림 3-1]은 이 연구의 모형을 그림으로 나타낸 것이다.



[그림 3-1] 연구모형

제주여성노인의 성공적 노화 인식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인구사회학적 요인(연령, 학력, 종교, 배우자유무, 자원봉사경험유무, 소득, 주관적 경제수준, 현재직업유무)에 따른 성공적 노화(자녀와의 관계, 자기통제, 사회적 활동 및 지지, 가족지향, 자기효능, 부부간의 관계) 인식과 삶의 만족도 차이관계가 분석될 것이다. 또한 성공적 노화 인식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관계를 살펴볼 것이다. 이러한 차이와 영향관계에서 지역(제주, 서울)을 검정 변수로 도입하여 관련된 가설을 설정하고자 한다.

가설 1. 여성노인의 인구사회학적 요인에 따라 성공적 노화 인식에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1-1. 여성노인의 ‘연령’에 따라 성공적 노화 인식에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1-2. 여성노인의 ‘학력’에 따라 성공적 노화 인식에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1-3. 여성노인의 ‘종교’에 따라 성공적 노화 인식에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1-4. 여성노인의 ‘배우자유무’에 따라 성공적 노화 인식에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1-5. 여성노인의 ‘자원봉사경험 유무’에 따라 성공적 노화 인식에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1-6. 여성노인의 ‘소득’에 따라 성공적 노화 인식에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1-7. 여성노인의 ‘주관적 경제수준’에 따라 성공적 노화 인식에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1-8. 여성노인의 ‘현재직업유무’에 따라 성공적 노화 인식에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2. 여성노인의 인구사회학적 요인에 따라 삶의 만족도에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2-1. 여성노인의 ‘연령’에 따라 삶의 만족도에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2-2. 여성노인의 ‘학력’에 따라 삶의 만족도에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2-3. 여성노인의 ‘종교’에 따라 삶의 만족도에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2-4. 여성노인의 ‘배우자유무’에 따라 삶의 만족도에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2-5. 여성노인의 ‘자원봉사경험 유무’에 따라 삶의 만족도에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2-6. 여성노인의 ‘소득’에 따라 삶의 만족도에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2-7. 여성노인의 ‘주관적 경제수준’에 따라 삶의 만족도에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2-8. 여성노인의 ‘현재 직업유무’에 따라 삶의 만족도에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3. 여성노인의 성공적 노화(자녀와의 관계, 자기통제, 사회적 활동 및 지지, 가족지향, 자기효능, 부부간의 관계) 인식이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4. 여성노인의 인구사회학적 요인에 따른 성공적 노화 인식 차이가 지역(제주, 서울)에 따라 다를 것이다.

가설 4-1. 여성노인의 '연령'에 따른 성공적 노화 인식 차이가 지역(제주, 서울)에 따라 다를 것이다.

가설 4-2. 여성노인의 '학력'에 따른 성공적 노화 인식 차이가 지역(제주, 서울)에 따라 다를 것이다.

가설 4-3. 여성노인의 '종교'에 따른 성공적 노화 인식 차이가 지역(제주, 서울)에 따라 다를 것이다.

가설 4-4. 여성노인의 '배우자 유무'에 따른 성공적 노화 인식 차이가 지역(제주, 서울)에 따라 다를 것이다.

가설 4-5. 여성노인의 '자원봉사경험유무'에 따른 성공적 노화 인식 차이가 지역(제주, 서울)에 따라 다를 것이다.

가설 4-6. 여성노인의 '소득'에 따른 성공적 노화 인식 차이가 지역(제주, 서울)에 따라 다를 것이다.

가설 4-7. 여성노인의 '주관적 경제수준'에 따른 성공적 노화 인식 차이가 지역(제주, 서울)에 따라 다를 것이다.

가설 4-8. 여성노인의 '현재 직업유무'에 따른 성공적 노화 인식 차이가 지역(제주, 서울)에 따라 다를 것이다.

가설 5. 여성노인의 성공적 노화(자녀와의 관계, 자기통제, 사회적 활동 및 지지, 가족지향, 자기효능, 부부간의 관계) 인식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은 지역(제주, 서울)에 따라 다를 것이다.

질적 연구에서 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나이듦’에 대한 생각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2. ‘성공적인 나이듦’에 대한 생각은 어떠한가

3. 연구대상 및 자료 수집방법

양적 연구의 대상은 제주와 서울지역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여자노인을 유의표집(purposive sampling)하였다. 유의표집은 모집단에 대한 정보가 많은 경우, 연구자의 주관적 판단의 기준에 따라 연구목적 달성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구성요소를 의도적으로 추출하는 방법이다. 자료 수집 장소에 있어서 제주지역은 교회, 경로당, 노인대학 등이며 서울지역은 복지관, 경로당, 문화센터 등으로 관계자의 협조를 얻어 설문조사하였다. 또한 연구대상이 노인이라는 특수성과 윤리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사전 훈련된 조사원들을 통해 면대면(face-to-face) 방식으로 문항에 대한 설명을 직접 하였다.

연구대상자인 노인들에게는 윤리적인 문제를 고려하여 연구목적과 의의를 설명하고 설문 참여함에 있어 어떤 불이익도 없음을 설명하였고, 익명성이 보장되며 설문내용은 연구 목적 이외에는 사용하지 않겠다는 것을 충분히 숙지시킨 후 참여에 대한 동의를 받았다. 설문의 진행은 본 연구자와 대학생 연구보조 2명이 직접 설문을 읽어주고 응답을 표기하거나, 글자해독이 가능한 대상자들이 직접 기입할 수 있도록 하였다. 자료수집기간은 2012년 12월 7일부터 2013년 1월 31일까지이며, 550부를 배부하여 회수된 539부 중 무응답과 응답오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한 504부(93.50%)를 최종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질적 연구에서의 대상은 건강하게 활동하는 노인들의 접근이 용이한 문화센터에서 스스로가 성공적으로 노화한다고 생각하는 3명을 선택적으로 표집하였다. 이후 성공적 노화에 대한 풍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참여자 9명을 소개받는 눈덩이 표집(snowballing sampling)을 하여 최종 12명을 분석의 대상으로 삼았다.

면접방식은 녹음을 원칙으로 하되, 연구목적으로만 사용하고 연구종결 후 폐기하며, 분석된 면담내용은 출판되고, 연구과정 중 익명성 보장을 통하여 자료에 대한

비밀이 유지됨 등에 대한 사항을 설명하였다. 이를 이해하고 동의한 참여자에게 서면 동의서에 자필 서명을 받은 후 연구를 진행하였다. 가능한 한 연구자가 면접노인과의 모든 의사소통에 개방성을 가지도록 노력하였다. 녹음할 수 없었던 면접 상황에 대한 간단한 메모, 노인이 속한 환경에 대한 관찰기록, 면접에 대한 느낌, 면접노인에 대해 면접자가 받은 인상 등이 연구의 보조 자료로 활용되었다. 참여자들은 녹음에 대해 거의 의식을 하는 것 같아 보이지는 않았으며 실제 자료 수집을 하는 동안 녹음에 대해 언급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

자료수집은 2013년 2월부터 8월까지 개인심층면접을 통하여 이루어졌고 자료의 충분함을 위하여 더 이상의 새로운 자료가 나오지 않고 분석된 구성요소가 모든 참여자에게서 포화될 때까지 면담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면담 장소, 날짜와 시간은 편안함을 고려하여 참여자들이 직접 결정하도록 하였다. 면담장소는 주로 참여자들의 집에서 이루어졌으며 4명은 참여자들이 일하는 일터에서 면담을 하였다. 면담은 참여자별로 2~3회에 걸쳐 이루어졌으며, 1회 면담에 소요된 시간은 약 60분에서 90분 정도이다.

4. 연구도구

양적연구에서는 앞서 설정한 연구모형에 입각한 연구가설을 검증하기 위하여 주요변수를 선정하고 변수측정을 위한 설문지를 <표 3-1>와 같이 구성하였다.

<표 3-1> 설문지 구성내용

변수		
선행변수	인구사회학적 요인 (연령, 학력, 종교, 배우자유무, 자원봉사경험유무, 소득, 주관적 경제수준, 직업유무)	8
독립변수	성공적 노화 요인	4
	자녀와의 관계	4
	자기통제	5
	사회적 활동 및 지지	8
	가족지향	4
종속변수	삶의 만족도	2
	자기효능	5
검정변수	지역(제주, 서울)	3
부부간의 관계		1
총 문항 수		40

- 선행변수 : 인구사회학적 요인

선행변수는 인구사회학적 요인으로서 이를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노인의 인구사회학적 요인과 관련된 척도는 연령, 학력, 종교, 배우자유무, 자원봉사경험유무, 소득, 주관적 경제수준, 현재직업유무 등으로 나누었다.

연령은 ‘60대’, ‘70대’, ‘80대 이상’으로 나누어 측정하였고, 학력은 ‘무학’, ‘초등학교 졸업’, ‘중학교 졸업’, ‘고등학교 졸업’, ‘대학교 졸업이상’으로 측정하였다. 종교는 ‘기독교’, ‘불교’, ‘천주교’, ‘종교 없음’ 등으로 나누어 측정하였고, 배우자 유무를 측정하기 위해 ‘있다’는 ‘1’이라는 숫자를 부여하고 ‘없다’는 ‘2’라는 숫자를 부여하여 측정하였다. 그리고 자원봉사경험유무를 측정하기 위해 ‘있다’는 ‘1’의 숫자를 부여하고 ‘없다’는 ‘2’의 숫자를 부여하여 측정하였다.

소득 면에서 월 소득의 수준이 어떠한지 알아보기 위해 ‘50만원 미만’, ‘50만원 이상~100만원 미만’, ‘100만원 이상~150만원 미만’, ‘150만원 이상’ 등으로 측정하였

다. 주관적 경제생활수준은 ‘낮다’, ‘보통’, ‘높다’ 등으로 나누어, 현재직업유무를 알아보기 위해 ‘있다’는 ‘1’의 숫자를 부여하고 ‘없다’는 ‘2’라는 숫자를 부여하였다.

- 독립변수 : 성공적 노화

이 연구에서는 한국노인의 성공적 노후 척도(김미혜·신경림, 2005)을 수정·보완한 후 재구성하여 새로운 척도를 구성하였으며 요인분석을 통해 검정하였다. 요인분석과 신뢰도 분석을 통해 구성한 성공적 노화 척도는 ‘자녀와의 관계’, ‘자기통제’, ‘사회적 활동 및 지지’, ‘가족지향’, ‘자기효능’, ‘부부간의 관계’의 6가지로 구성하였다. 성공적 노화 6가지 척도의 하위문항은 <표 3-2>와 같다.

<표 3-2> 성공적 노화 척도

구분	내용
자녀와의 관계	자녀들이 나를 돌봐줘야 한다
	내가 필요할 때 자녀들이 물심양면으로 도와줘야 한다
	자녀들과 자주 연락하거나 만나야 한다
	자녀들에게 공부를 많이 시켜야 한다
자기통제	매일 규칙적인 생활을 해야 한다
	건강을 위해 규칙적으로 운동을 해야 한다
	몸이 허락하는 한 활동을 계속해야 한다
	내 마음을 다스릴 수 있어야 한다
사회적 활동 및 지지	즐거운 마음으로 살아야 한다
	죽기 전에 해야 할 일을 다 할 수 있어야 한다
	나를 위해 무엇인가를 배워야 한다
	친·인척들과 자주 어울려야 한다
	주변 사람들에게 필요한 사람이여야 한다
	취미, 종교, 봉사 등 다양한 활동을 해야 한다
	친목 모임에 꾸준히 나가야 한다
가족지향	비슷한 환경이나 처지의 사람들과 서로 베풀며 살아야 한다
	자식들의 도움 없이 생활할 수 있는 돈이 있어야 한다
	자녀들이 결혼해서 화목하게 잘 살고 있어야 한다
	자녀들이 사회적으로 자리를 잡아야 한다
자기효능	자녀들이 건강해야 한다
	자녀들이 경제적으로 걱정없이 살고 있어야 한다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사람이 있어야 한다
	몸을 움직이는데 불편함이 없어야 한다
부부간의 관계	앞으로의 삶에 대해 희망을 가져야 한다
	알고 지내는 사람들과 계속 좋은 관계를 가져야 한다
	매일매일 할 일거리가 있어야 한다
	부부는 서로를 이해해야 한다
	부부는 집안 일을 서로 같이 해야 한다
	부부 모두 건강해야 한다

성공적 노화 척도 점수 부여는 모두 5점 Likert scale로 측정하여 ‘전혀 중요하지 않다’ 1점, ‘중요하지 않다’ 2점, ‘보통이다’ 3점, ‘중요하다’ 4점, ‘매우 중요하다’ 5점을 부여하여 성공적 노화 요인에 대한 인식 정도를 측정하였다.

- 종속변수: 삶의 만족도

노인의 삶의 만족도를 측정하기 위해 권미애(2008), 박지현(2011), 김창석(2012) 등의 연구내용을 기초로 ‘나는 현재의 전반적인 삶에 만족한다’,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행복한 편이다’ 는 항목으로 긍정적 생각의 2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삶의 만족도 척도 점수 부여는 모두 5점 Likert scale로 측정하여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그저 그렇다’ 2점, ‘보통이다’ 3점, ‘그렇다’ 4점, ‘매우 그렇다’ 5점을 부여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삶에 대한 만족도를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측정하였다.

- 검정변수 : 지역(제주, 서울)

지역은 인간의 사고와 인식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인간이 상호작용하는 중간환경인 ‘지역’의 지리적 차이가 문화적 차이를 가져오고, 이런 문화와 생활방식의 차이에 따라 생각하는 것이 다를 것이다. 지역에 따라 성공적 노화 요인에 대한 인식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지역은 ‘제주’ 지역을 ‘1’이라는 숫자를 부여하고 ‘서울’ 지역은 ‘2’라는 숫자를 부여하여 측정하였다.

질적 연구에서는 심층면접을 시도하였다. 면담내용은 보다 자연스럽고 정감 있는 분위기를 위하여 직접적인 대화주제보다 간접적인 주제로 친밀감을 조성한 후, 접근하였다. ‘나이들’과 ‘성공적 나이들’에 대한 구체적 질문으로 한정하기보다는 삶의 일상으로 자연스런 대화방식으로 유도하였다. 우선, 자신에 대한 일상적인 삶, 나이들에 대한 생각, 잘 늙었다고 느꼈을 때, 현재 삶에 대한 만족도 등에 대한 면담으로 연구참여자의 기억을 다방면으로 불러일으키고 연구자가 성공적 노화의 6가지 요인을 중심으로 발산적 제시를 진행하면서 이루어졌다. 또한 연구참여자들에게서 좀 더 풍부한 진술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면담시 연구참여자의 진술에 호응을 해주면서 후속 질문으로 ‘그 부분에 대해 좀 더 자세한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주변

에 다른 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많습니까?’ 등을 사용하였다.

질문내용은 나이듦에 대한 생각, 성공적 나이듦에 대한 것, 현재 삶에 대한 만족에 대한 생각 등이다. 심층면접은 연구자의 의도에 따라 몇 가지 준비된 질문으로 시작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질문은 구조화된 형태가 아니라 사례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충분히 할 수 있도록 개방형 질문으로 진행되었다.

참여자들이 자신들의 삶에 대해서 깊이 있게 생각하며 그 의미를 파악하는데 익숙하지 않았기 때문에 질문과 관련하여 먼저 떠오르는 생각을 이야기하도록 하고 연구자가 참여자들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재질문하는 방식으로 면담을 진행하였다. 참여자들은 출생, 성장과정, 인생의 다른 시기에 있었던 일, 사건 등의 공간을 넘나드는 이야기들을 풀어놓고 심층면접에는 노인들의 연령만큼 과거와 현재를 넘나들면서 겪은 풍부한 경험과 그 동안 맺어온 가족, 친구 등을 비롯한 폭넓은 인간관계가 반영되었다.

5. 자료분석방법

양적 연구의 실증분석은 모두 유의수준 $p < .05$, $p < .01$, $p < 0.001$ 에서 검정하였으며, 통계처리는 SPSS 18.0을 사용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첫째, 응답자들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자료를 분석하기 위하여 전체집단을 대상으로 연령, 학력, 종교, 배우자유무, 자원봉사경험유무, 소득, 주관적 경제수준, 현재직업 유무 등으로 제주지역과 서울지역의 응답자를 구분하여 빈도분석(Frequency Analysis)을 실시하였다.

둘째, 다문항으로 측정된 성공적 노화 인식 차원과 삶에 대한 만족도에 대한 신뢰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내적일관성 검정인 Cronbach's α 계수를 이용하였고, 타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탐색적 요인분석과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각 개념의 집중타당성과 판별타당성을 검정하였다.

셋째, 인구사회학적 요인에 따라 성공적 노화 인식 차이가 있는지 즉, 가설 1를 검정하기 위하여 t-test와 분산분석(ANOVA; analysis of variance)을 실시하였다.

넷째, 인구사회학적 요인에 따라 삶의 만족도에 차이가 있는지에 대한 가설 2를

검정하기 위하여 t-test와 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섯째, 성공적 노화 인식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가설 3을 검정하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여섯째, 인구사회학적 요인에 따른 성공적 노화 인식이 지역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지에 대한 가설 4을 검정하기 위하여 이원변량분석(two-way ANOVA)을 실시하였다.

일곱째, 성공적 노화 인식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관계에서 지역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지에 대한 가설 5를 검정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질적 연구 자료의 분석은 ‘지속적 비교분석 방법(constant comparative analysis)’에 근거하여 이루어졌다. 지속적 비교분석 방법(유태균, 2001)이란 자료를 읽으면서 나타나는 중심주제를 찾으면, 다시 이 주제를 견지하면서 자료들을 재검토하고, 이렇게 재검토하는 과정에서 새롭게 나타나는 하위 주제들을 발견하면서 자료 속에서 도출되는 중심개념과 주제들을 다듬어가는 방법이다. 참여자들로부터 수집된 자료를 여러 번 정독하면서 자료들 속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주제들을 찾아내며 자료들을 분류하고, 다시 분류된 자료들을 정독하였다. 그리고 그 내용들을 포괄할 수 있는 보다 상위의 주제들인 성공적 노화의 6가지 요인들을 찾아내고 이를 범주화하여 자료를 심층적으로 정리해 나갔다.

IV. 여성노인의 성공적 노화와 삶의 만족도에 대한 양적분석

1. 연구대상의 특성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관한 내용은 <표 4-1>에 제시되어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령은 60대가 제주지역은 33.3%, 서울지역은 46.5%이고 70대는 제주지역이 41.4%, 서울지역이 36.4%로 나타났고 80대 이상은 제주지역이 25.6%, 서울지역은 17.2%로 나타났다. 제주지역은 서울지역보다 70대, 80대 이상이 많이 분포되어 있어 연령이 다소 높다.

둘째, 학력은 서울지역이 고등학교 졸업이 42.1%로 가장 많았고 중학교 졸업(24.6%), 대학교 이상(18.5%), 초등학교 졸업(12.1%), 무학(2.7%) 순이다. 반면 제주지역의 경우 초등학교 졸업이 28.0%로 가장 많았고, 무학(25.6%), 고등학교 졸업(20.3%), 중학교 졸업(16.9%), 대학교 이상(9.2%) 순이다. 제주여성노인의 학력이 서울여성노인보다는 낮다.

셋째, 종교의 경우, 서울지역이 기독교가 42.4%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이어 불교(24.2%), 천주교(21.9%), 종교없음(11.4%) 순이다. 제주지역은 불교 44.0%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기독교(26.1%), 종교 없음(16.9%), 천주교(13.0%) 순이다. 제주여성노인은 과반수 이상이 종교를 가지고 있으며 불교신자가 많다.

넷째, 배우자 유무는 서울여성노인은 58.6%가 남편이 있다고 응답한 반면, 제주여성노인은 58.9%가 남편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자원봉사경험 유무에서 제주여성노인(55.6%)이 자원봉사경험이 있다고 한 비율이 서울여성노인(63.6%)보다 적다.

여섯째, 현재 본인소득에서는 서울여성노인은 150만원 이상이 36.0%으로 가장 많았고 50-100만원 미만(34.7%), 100-150만원 미만(15.5%), 50만원 미만(13.8%)으로 나타났다. 반면 제주여성노인은 50만원 미만이 41.1%로 가장 많았고 100-150만원 미만(22.2%), 150만원 이상(19.3%), 50-100만원 미만(17.4%)로 나타났다. 제주여성노인이 서울여성노인보다는 상대적으로 소득이 적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일곱째, 주관적 경제수준의 경우 서울여성노인은 66.3%가 보통이라고 응답하고 전체 14.8%만이 주관적 경제수준이 낮다고 응답하였다. 반면 제주지역은 47.8%가 보통이라고 응답하였고, 주관적 경제수준이 낮다고 응답한 응답자는 전체 40.6%를 차지하였다. 따라서 서울여성노인은 주관적 경제수준이 보통 이상이라고 생각하는 반면, 제주여성노인은 주관적 경제수준이 보통 이하라고 생각한다고 파악할 수 있다.

여덟째, 현재 직업의 유무의 경우 여성노인 모두 80% 이상이 직업이 없다고 응답하였다.

정리하면 제주여성노인은 70대, 80대 연령이 높으며 초졸, 무학이 많아 교육수준이 전반적으로 낮고 배우자가 없는 경우가 많으며 주관적 소득수준이 보통 이하인 특성을 보이고 있다. 전반적인 제주여성노인의 실제 삶에 대한 점검과 이에 대한 복지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표 4-1>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N=504명)

구분	제주		서울		
	빈도(명)	백분율(%)	빈도(명)	백분율(%)	
연령	60대	69	33.3	138	46.5
	70대	85	41.1	108	36.4
	80대 이상	53	25.6	51	17.2
학력	무학	53	25.6	8	2.7
	초등학교 졸업	58	28.0	36	12.1
	중학교 졸업	35	16.9	73	24.6
	고등학교 졸업	42	20.3	125	42.1
	대학교 이상	19	9.2	55	18.5
종교	기독교	54	26.1	126	42.4
	불교	91	44.0	72	24.2
	천주교	27	13.0	65	21.9
	없음	35	16.9	34	11.4
배우자유무	배우자 있음	85	41.1	174	58.6
	배우자 없음	122	58.9	123	41.4
자원봉사경험 유무	경험 있음	115	55.6	189	63.6
	경험 없음	92	44.4	108	36.4
소득	50만원 미만	85	41.1	41	13.8
	50이상-100만원미만	36	17.4	103	34.7
	100이상-150만원미만	46	22.2	46	15.5
	150만원 이상	40	19.3	107	36.0
주관적 경제수준	낮음	84	40.6	44	14.8
	보통	99	47.8	197	66.3
	높음	24	11.6	56	18.9
현재직업의 유무	직업 있음	30	14.5	50	16.8
	직업 없음	177	85.5	247	83.2
		207	100.0	297	100.0

2. 조사도구의 타당도 및 신뢰도 검정

이 연구는 Cronbach's α 계수를 이용한 내적일관성 검정을 통해 성공적 노화 인식과 삶에 대한 만족도의 측정문항에 대한 신뢰도를 검정하였다. 그 결과 <표 4-2>에 제시된 바와 같이 모든 개념에 대한 Cronbach's α 계수가 기준치 0.6보다 높게 나타나 측정개념에 대한 신뢰도 수준이 양호한 것으로 판단된다.

<표 4-2> 신뢰도 분석 결과

	문항 수	Cronbach's 계수
성공적 노화	자녀와의 관계	.735
	자기통제	.852
	사회적 활동 및 지지	.884
	가족지향	.781
	자기효능	.781
	부부간의 관계	.711
삶의 만족도	2	.731

다음 단계로 일련의 변수들로부터 기저에 깔려있는 잠재적 구조를 찾아내고 데이터의 축소를 위하여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탐색적 요인분석은 주성분 분석에 의한 직각회전방식인 배리맥스회전 방식을 사용하여 타당성을 검정하였다. 요인을 추출할 고유치(eigenvalue)는 1 이상의 값으로 추출하였으며 요인부하량(factor loading)이 0.4 이하이거나 두 개 이상의 요인에 중복적재되는 항목을 제거하고자 하였다. 초기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표 4-3>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고유치가 1 이상인 요인이 7개 추출되었다. 그러나 자녀관계3, 사회활동5, 자기효능5 문항은 2개 이상의 요인에 요인 부하량이 0.4이상으로 중복 적재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이상의 3개의 문항을 제거한 후 다시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4-4>에 제시된 바와 같다.

<표 4-3> 초기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1	2	3	4	5	6	7
자녀관계 1	0.747	0.183	0.173	0.192	0.002	0.078	-0.030
자녀관계 2	0.872	0.051	0.076	0.036	0.036	0.016	0.120
자녀관계 3	0.493	0.126	0.196	0.497	0.149	-0.101	0.327
자녀관계 4	0.454	0.198	0.192	0.307	0.123	0.242	0.311
자기통제 1	0.034	0.539	0.116	0.237	0.248	0.246	0.348
자기통제 2	0.096	0.676	0.176	0.308	0.182	0.116	0.148
자기통제 3	0.154	0.807	0.214	0.095	0.080	0.114	-0.039
자기통제 4	0.155	0.758	0.162	0.111	0.150	0.144	0.233
자기통제 5	-0.022	0.507	0.177	0.419	0.137	0.106	0.349
사회활동 1	0.078	0.133	0.654	0.153	0.384	0.047	-0.018
사회활동 2	0.129	0.219	0.683	0.209	0.213	-0.004	0.081
사회활동 3	0.198	0.067	0.663	0.125	0.184	0.191	0.172
사회활동 4	0.151	0.056	0.744	0.105	0.201	-0.040	0.048
사회활동 5	-0.086	0.216	0.548	0.508	0.112	0.049	-0.167
사회활동 6	-0.027	0.291	0.632	0.093	0.152	0.317	0.239
사회활동 7	0.093	0.170	0.608	-0.026	0.153	0.263	0.363
사회활동 8	0.060	0.228	0.598	0.131	0.127	0.282	0.398
가족지향 1	0.095	0.206	0.109	0.673	0.165	0.123	0.127
가족지향 2	0.084	0.096	0.006	0.674	0.145	0.241	-0.005
가족지향 3	0.032	0.047	0.184	0.727	0.135	0.182	0.122
가족지향 4	0.236	0.219	0.171	0.679	-0.005	0.027	0.198
자기효능 1	0.019	-0.012	0.242	0.088	0.651	0.164	0.310
자기효능 2	0.027	0.197	0.151	0.143	0.658	0.185	-0.218
자기효능 3	0.025	0.120	0.246	0.118	0.715	0.044	0.204
자기효능 4	0.027	0.229	0.295	0.211	0.624	0.062	0.103
자기효능 5	0.157	0.437	0.331	0.112	0.467	0.070	-0.083
부부관계 1	0.010	0.199	0.243	0.202	0.153	0.731	0.188
부부관계 2	0.214	0.261	0.418	0.100	0.034	0.573	0.027
부부관계 3	0.041	0.113	-0.015	0.397	0.247	0.667	0.034
삶의 만족 1	0.208	0.199	0.273	0.357	0.217	0.148	0.506
삶의 만족 2	0.159	0.308	0.224	0.283	0.043	0.095	0.619
고유값	2.060	3.261	4.344	3.519	2.699	2.004	1.903
누적설명분산(%)	6.645	17.165	31.177	42.529	51.234	57.698	63.837

<표 4-4> 최종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1	2	3	4	5	6	7
자녀관계 1	0.744	0.186	0.140	0.179	0.044	0.069	0.059
자녀관계 2	0.868	0.040	0.106	0.063	0.036	0.016	0.063
자녀관계 4	0.505	0.207	0.233	0.270	0.114	0.249	0.225
자기통제 1	0.089	0.518	0.114	0.170	0.295	0.300	0.363
자기통제 2	0.122	0.665	0.204	0.331	0.167	0.116	0.122
자기통제 3	0.139	0.819	0.237	0.098	0.045	0.101	-0.067
자기통제 4	0.149	0.776	0.198	0.102	0.150	0.141	0.180
자기통제 5	0.031	0.517	0.170	0.365	0.200	0.130	0.352
사회활동 1	0.032	0.129	0.695	0.214	0.316	0.015	-0.066
사회활동 2	0.123	0.216	0.675	0.178	0.225	-0.003	0.084
사회활동 3	0.192	0.086	0.704	0.151	0.155	0.162	0.071
사회활동 4	0.162	0.076	0.738	0.081	0.203	-0.040	-0.012
사회활동 6	-0.047	0.298	0.660	0.102	0.142	0.305	0.185
사회활동 7	0.106	0.166	0.648	-0.018	0.144	0.255	0.269
사회활동 8	0.068	0.217	0.631	0.147	0.121	0.270	0.358
가족지향 1	0.125	0.210	0.117	0.678	0.179	0.097	0.160
가족지향 2	0.080	0.103	0.054	0.762	0.096	0.172	-0.024
가족지향 3	0.043	0.069	0.220	0.761	0.105	0.169	0.083
가족지향 4	0.280	0.230	0.159	0.626	0.030	0.050	0.225
자기효능 1	0.017	-0.014	0.313	0.123	0.620	0.163	0.194
자기효능 2	0.029	0.245	0.185	0.162	0.613	0.177	-0.364
자기효능 3	0.064	0.132	0.256	0.084	0.758	0.060	0.128
자기효능 4	0.076	0.202	0.261	0.137	0.683	0.095	0.132
부부관계 1	0.012	0.191	0.272	0.199	0.133	0.755	0.152
부부관계 2	0.236	0.249	0.312	0.071	0.039	0.565	0.039
부부관계 3	0.087	0.102	-0.024	0.368	0.255	0.690	0.012
삶의 만족 1	0.247	0.178	0.303	0.333	0.244	0.147	0.507
삶의 만족 2	0.202	0.286	0.241	0.261	0.103	0.095	0.646
고유값	2.001	3.023	4.249	2.978	2.475	2.015	1.604
누적설명분산(%)	7.146	17.942	33.117	43.753	52.593	59.789	65.517

최종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각 요인별 측정 항목의 요인부하량이 0.4를 넘고 있었고 7개의 변수가 전체 분산의 약 66%의 설명력을 가지는 것으로 보여주고 있다. 최종 탐색적 요인분석결과 구성된 7개 변수에 대한 신뢰도 분석을 실시하였고 각 변수의 α 값이 대부분 0.7이상으로 도출되어 내적일관성이 수용할 만한 수준으로 판단된다. 이에 대한 결과는 <표 4-5>에 제시되어 있다.

<표 4-5> 최종 신뢰도 분석 결과

구분	문항 수		Cronbach's α 계수	
	초기	최종		
성공적 노화	자녀와의 관계	4	3	.703
	자기통제	5	5	.852
	사회적 활동 및 지지	8	7	.881
	가족지향	4	4	.781
	자기효능	5	4	.754
	부부간의 관계	3	3	.711
삶의 만족도	2	2	.731	

3. 분석결과

1) 가설 1 의 검정

가설 1. 여성노인의 인구사회학적 요인에 따라 성공적 노화 인식에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1-1. 여성노인의 '연령'에 따라 성공적 노화 인식에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여성노인의 '연령'에 따른 성공적 노화 인식에는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하여 일원분산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이에 대한 결과는 <표 4-6>에 제시되어 있다. '연령'에 따른 성공적 노화 인식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난 요인은 자녀와의 관계, 자기효능이었다. 즉, 여성노인의 '연령'에 따라 자녀와의 관계와 자기효능을 인식하는 정도에 차이가 있다.

구체적인 집단 간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Scheffe 검정 결과 60대, 70대 보다 80대 이상에서 자녀와의 관계가 성공적 노화를 위해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80대 이상에 이르면 신체적 건강, 사회적 관계, 여가활동 등 삶의 모든 측면에서 자녀에 대한 의존성이 커질 가능성이 높다. 향후 자녀와의 관계 질과 만족에 따라 노년의 삶의 질이 결정될 수도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60대와 70대는 자기효능감이 성공적 노화를 위해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자기효능감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지는 노년기에는 자기효능감(권중돈·손의성, 2010)이 노년기 상실과 쇠퇴를 중재하는 매우 중요한 변인으로 작용한다. 80대 이상보다는 60대와 70대 여성노인이 스스로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짐으로써 성취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지고 도전을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표 4-6> 연령에 따른 성공적 노화 인식 차이(가설 1-1) (N=504명)

구분		N	M	SD	F	Scheffe 검정
자녀와의 관계	a	207	3.97	.61	9.346***	a, b<c
	b	193	4.07	.58		
	c	104	4.29	.64		
자기통제	a	207	4.43	.50	0.149	-
	b	193	4.43	.50		
	c	104	4.46	.53		
사회적 활동 및 지지	a	207	4.20	.57	0.482	-
	b	193	4.21	.57		
	c	104	4.14	.77		
가족지향	a	207	4.64	.41	0.401	-
	b	193	4.62	.40		
	c	104	4.59	.48		
자기효능	a	207	4.49	.47	7.823***	a, b>c
	b	193	4.43	.51		
	c	104	4.25	.61		
부부간의 관계	a	207	4.43	.54	2.703	-
	b	193	4.47	.46		
	c	104	4.32	.65		

* p<0.05, ** p<0.01, *** p<0.001

주) M:평균, SD: 표준편차

a=60대, b=70대, c=80대 이상

가설 1-2. 여성노인의 '학력'에 따라 성공적 노화 인식에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여성노인의 학력에 따른 성공적 노화 인식에는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하여 일원분산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이에 대한 결과는 <표 4-7>에 제시되어 있다. 여성노인의 학력에 따른 성공적 노화 인식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낸 요인은 사회적 활동 및 지지, 자기효능이었다. 즉, 여성노인의 '학력'에 따라 사회적 활동 및 지지, 자기효능을 인식하는 정도에 차이가 있다.

Scheffe 검정 결과 무학보다는 교육수준이 있는 여성노인이 사회적 활동 및 지지가 성공적 노화를 위해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사회적 지위가 높고 또한 활동을 할 수 있는 관계의 범위가 넓어져 성공적 노화를 이루는데 중요하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학력이 있는 여성노인이 자기효능을 성공적 노화를 위해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교육수준은 전 생애를 통해 삶의 질을 결정해 주는 중요한 요인이다. 배움이 있는 여성노인이 자기 자신을 긍정적으로 보는 경향이 강하고, 이에 성공적 노화에 있어서도 중요하다고 인식 하고 있다.

<표 4-7> 학력에 따른 성공적 노화 인식 차이(가설1-2) (N=504명)

구분	N	M	SD	F	Scheffe 검정	
자녀와의관계	a	61	4.18	.62	1.874	-
	b	94	4.08	.65		
	c	108	4.11	.60		
	d	167	3.98	.60		
	e	74	4.15	.62		
자기통제	a	61	4.36	.63	1.661	-
	b	94	4.44	.48		
	c	108	4.47	.47		
	d	167	4.39	.52		
	e	74	4.55	.45		
사회적 활동 및 지지	a	61	3.95	.82	3.121*	a<b, c, d, e
	b	94	4.26	.52		
	c	108	4.25	.58		
	d	167	4.18	.61		
	e	74	4.25	.53		
가족지향	a	61	4.63	.46	1.546	-
	b	94	4.68	.39		
	c	108	4.57	.43		
	d	167	4.58	.43		
	e	74	4.68	.38		
자기효능	a	61	4.15	.72	6.440***	a<b, c, d, e
	b	94	4.35	.55		
	c	108	4.45	.43		
	d	167	4.48	.46		
	e	74	4.54	.48		
부부간의 관계	a	61	4.32	.60	0.831	
	b	94	4.42	.59		
	c	108	4.44	.50		
	d	167	4.41	.55		
	e	74	4.49	.44		

* p<0.05, ** p<0.01, *** p<0.001

주) a=무학, b=초졸, c=중졸, d=고졸, e=대졸이상

가설 1-3. 여성노인의 ‘종교’에 따라 성공적 노화 인식에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여성노인의 종교에 따른 성공적 노화 인식 차이를 살펴보기 위하여 일원분산분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는 <표 4-8>과 같다. 분석결과 종교에 따른 성공적 노화 인식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낸 요인은 자기통제, 사회적 활동 및 지지와 자기효능이었다.

여성노인의 ‘종교’에 따라 자기통제, 사회적 활동 및 지지와 자기효능을 인식하는 정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인 집단 간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Scheffe 검정 결과 기독교, 불교, 천주교 등 종교를 가지고 있는 여성노인이 성공적 노화를 위해서 자기통제를 중요시하고 있다. 종교는 노년기에 겪는 부정적 감정과 상실감을 덜어주어 자신의 삶에 있어서 통제력을 가지게 한다. 이러한 자기통제가 여성노인에게 있어서 성공적 노화를 이루는데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사회적 활동 및 지지가 종교를 가지고 있는 여성노인에게 있어서 성공적 노화를 위해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이는 여성노인이 종교생활을 함으로써 지역사회 소속감을 가지게 되어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고 성공적 노화를 이룰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종교생활을 하는 여성노인은 모든 일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이에 대한 자신감과 만족감이 높아짐으로써 자기효능감을 느끼고 성공적 노화를 할 가능성이 커진다.

<표 4-8> 종교에 따른 성공적 노화 인식 차이(가설1-3)

(N=504명)

구분		N	M	SD	F값	Scheffe 검정
자녀와의관계	a	180	4.06	.58	0.448	-
	b	163	4.06	.62		
	c	92	4.14	.64		
	d	69	4.07	.65		
자기통제	a	180	4.49	.45	3.540*	a, b, c>d
	b	163	4.40	.51		
	c	92	4.50	.49		
	d	69	4.29	.63		
사회적 활동 및 지지	a	180	4.28	.46	5.136**	a, b, c>d
	b	163	4.17	.59		
	c	92	4.23	.76		
	d	69	3.95	.73		
가족지향	a	180	4.57	.40	1.370	-
	b	163	4.64	.43		
	c	92	4.67	.46		
	d	69	4.63	.40		
자기효능	a	180	4.49	.43	4.178**	a, b, c>d
	b	163	4.39	.55		
	c	92	4.47	.48		
	d	69	4.24	.68		
부부간의 관계	a	180	4.48	.50	1.505	-
	b	163	4.38	.54		
	c	92	4.44	.60		
	d	69	4.34	.56		

* p<0.05, ** p<0.01, *** p<0.001

주) a=기독교, b=불교, c=천주교, d=없음

가설 1-4. 여성노인의 ‘배우자 유무’에 따라 성공적 노화 인식에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여성노인의 배우자 유무에 따른 성공적 노화 인식 차이를 살펴보기 위하여 t-test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4-9>에 제시되어 있다. 배우자 유무에 따른 성공적 노화 인식 차이를 살펴보면 자녀와의 관계와 자기효능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배우자가 없는 여성노인이 자녀와의 관계를 더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다. 이는 자녀와의 정서적 유대를 많이 가짐으로써 성공적 노화에 이를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반면, 배우자 있는 여성노인은 성공적 노화를 위해 자기효능이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노년기에 들어서면 부부는 함께 지내는 시간이 증가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부부간의 상호작용이 많아져 서로에게 관심을 가지게 되고, 이러한 관심이 여성노인 자신에 대한 믿음으로 발전하게 된다. 이러한 자기효능이 성공적 노화와 연결된다고 볼 수 있다.

<표 4-9> 배우자 유무에 따른 성공적 노화 인식 차이(가설1-4) (N=504명)

구분	배우자 유무	N	M	SD	t
자녀와의관계	유	259	3.98	.58	-3.456***
	무	245	4.17	.64	
자기통제	유	259	4.41	.50	-0.989
	무	245	4.46	.51	
사회적 활동 및 지지	유	259	4.20	.56	0.116
	무	245	4.19	.67	
가족지향	유	259	4.59	.41	-1.601
	무	245	4.65	.43	
자기효능	유	259	4.47	.46	2.354*
	무	245	4.36	.58	
부부간의 관계	유	259	4.46	.48	1.564
	무	245	4.38	.59	

* p<0.05, ** p<0.01, *** p<0.001

가설 1-5. 여성노인의 ‘자원봉사경험 유무’에 따라 성공적 노화 인식에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여성노인의 자원봉사경험 유무에 따른 성공적 노화 인식에는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하여 t-test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4-10>과 같다. 자원봉사경험 유무에 따른 성공적 노화 인식 차이를 살펴보면 사회적 활동 및 지지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원봉사경험이 있는 여성노인은 사회적 활동 및 지지가 성공적 노화를 위해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경제활동이나 양육 등에서 자유로워진 여성노인이 더 적극적으로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다. 이로써 긍정적 경험을 가지게 된 여성노인은 사회적 관계에서의 역할상실 혹은 감소에 따른 대체활동으로 자원봉사 활동을 할 수 있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표 4-10> 자원봉사경험 유무에 따른 성공적 노화 인식 차이(가설1-5) (N=504명)

구분	자원봉사경험유무	N	M	SD	t
자녀와의 관계	유	304	4.03	.61	-1.899
	무	200	4.14	.62	
자기통제	유	304	4.46	.49	1.298
	무	200	4.40	.53	
사회적 활동 및 지지	유	304	4.26	.50	3.191**
	무	200	4.08	.74	
가족지향	유	304	4.60	.40	-0.953
	무	200	4.64	.44	
자기효능	유	304	4.45	.51	1.864
	무	200	4.36	.54	
부부간의 관계	유	304	4.46	.49	1.866
	무	200	4.36	.60	

* p<0.05, ** p<0.01, *** p<0.001

가설 1-6. 여성노인의 '소득'에 따라 성공적 노화 인식에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여성노인의 소득에 따른 성공적 노화 인식차이를 살펴보기 위하여 일원분산분석을 실시하였고,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낸 요인은 가족지향이였다. 구체적인 집단간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Scheffe 검정 결과, 소득이 100-150만원 미만 집단에서 가족지향을 성공적 노화를 위해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적정한 월평균가계소득이 가정의 안정성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가족과 보내는 시간이 길어지는 노년기에 있어서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에 대한 결과는 <표 4-11>에 제시되어 있다.

<표 4-11> 소득에 따른 성공적 노화 인식 차이(가설1-6)

(N=504명)

구분		N	M	SD	F	Scheffe 검정
자녀와의 관계	a	126	4.12	.59	1.739	-
	b	139	4.09	.60		
	c	92	4.14	.67		
	d	147	3.98	.61		
자기통제	a	126	4.49	.52	1.942	-
	b	139	4.35	.50		
	c	92	4.43	.52		
	d	147	4.47	.49		
사회적 활동 및 지지	a	126	4.21	.65	0.736	-
	b	139	4.13	.69		
	c	92	4.22	.62		
	d	147	4.22	.49		
가족지향	a	126	4.64	.41	3.836**	a, b, d<c
	b	139	4.52	.47		
	c	92	4.69	.38		
	d	147	4.65	.39		
자기효능	a	126	4.36	.60	2.937	-
	b	139	4.37	.50		
	c	92	4.40	.55		
	d	147	4.52	.45		
부부간의 관계	a	126	4.46	.52	2.225	-
	b	139	4.35	.62		
	c	92	4.36	.55		
	d	147	4.49	.45		

* p<0.05, ** p<0.01, *** p<0.001

주) a=50만원 미만, b=50-100만원 미만, c=100-150만원 미만, d=150만원 이상

가설 1-7. 여성노인의 ‘주관적 경제수준’에 따라 성공적 노화 인식에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여성노인의 주관적 경제수준에 따른 성공적 노화 인식 차이를 살펴보기 위하여 일원분산분석을 실시하였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낸 요인은 사회적 활동 및 지지, 자기효능과 부부간의 관계이었다.

구체적인 집단 간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Scheffe 검정 결과, 주관적 경제수준이 높은 집단에서 사회적 활동 및 지지가 성공적 노화를 위해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경제적으로 불안한 여성노인은 인간관계의 위축을 경험할 수 있고 경제수준이 높은 여성노인은 인간관계의 확장을 만들어간다. 이러한 점에서 여성노인은 사회활동을 활발히 하고 이에 대한 지지경험을 가짐으로써 성공적 노화를 이룰 수 있다.

그리고 자기효능을 주관적 경제수준이 높은 여성노인은 성공적 노화를 위해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다. 안정된 수입원이 있는 여성노인이 자신의 능력을 믿고 일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리라는 신뢰감을 가지게 되어 성공적 노화를 이루게 된다고 이해할 수 있다. 또한 부부간의 관계가 주관적 경제수준이 높은 여성노인에게 성공적 노화를 위해서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특히 여성노인에게 있어서 배우자 사망으로 인한 경제적 위협은 삶의 질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적절한 재정적인 욕구충족으로 인한 만족이 성공적 노화에 있어서 중요하다. 이상의 결과는 <표 4-12>에 제시되어 있다.

<표 4-12> 주관적 경제수준에 따른 성공적 노화 인식 차이(가설1-7) (N=504명)

구분		N	M	SD	F	Scheffe 검정
자녀와의 관계	a	128	4.11	.60	2.220	-
	b	296	4.03	.62		
	c	80	4.18	.62		
자기통제	a	128	4.39	.54	2.308	-
	b	296	4.43	.49		
	c	80	4.54	.49		
사회적 활동 및 지지	a	128	4.11	.65	3.747*	a, b < c
	b	296	4.18	.62		
	c	80	4.35	.50		
가족지향	a	128	4.62	.40	2.602	-
	b	296	4.59	.44		
	c	80	4.71	.35		
자기효능	a	128	4.32	.61	4.879**	a, b < c
	b	296	4.42	.49		
	c	80	4.55	.47		
부부간의 관계	a	128	4.41	.57	5.457**	a, b < c
	b	296	4.38	.54		
	c	80	4.60	.43		

* p<0.05, ** p<0.01, *** p<0.001

주) a=하, b=중, c=상

가설 1-8. 여성노인의 ‘현재 직업 유무’에 따라 성공적 노화 인식에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여성노인의 현재 직업 유무에 따른 성공적 노화 인식차이를 살펴보기 위하여 t-test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4-13>과 같다. 현재 직업 유무에 따른 성공적 노화 인식 차이를 살펴보면 자기효능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이 있는 여성노인이 성공적 노화를 위해 자기효능을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다. 이는 현재 직업을 가지고 있는 여성노인이 자연스럽게 자기 자신이 얼마나 유능하고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자신에 대해 느끼고 있는 유능성, 효능성, 자신감이 성공적 노화를 이루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표 4-13> 현재 직업 유무에 따른 성공적 노화 인식 차이(가설1-8) (N=504명)

구분	현재직업유무	N	M	SD	t
자녀와의 관계	유	80	4.00	.61	-1.251
	무	424	4.09	.62	
자기통제	유	80	4.51	.44	1.421
	무	424	4.42	.52	
사회적 활동 및 지지	유	80	4.24	.57	0.694
	무	424	4.18	.62	
가족지향	유	80	4.60	.42	-0.336
	무	424	4.62	.42	
자기효능	유	80	4.59	.42	3.704***
	무	424	4.39	.53	
부부간의 관계	유	80	4.45	.59	0.616
	무	424	4.41	.53	

* p<0.05, ** p<0.01, *** p<0.001

2) 연구가설 2 의 검증

가설 2. 여성노인의 인구사회학적 요인에 따라 삶의 만족도에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2-1. 여성노인의 '연령'에 따라 삶의 만족도에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여성노인의 연령에 따라 삶의 만족도 인식 차이를 살펴보기 위하여 일원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러나 여성노인의 연령에 따라 삶의 만족도 인식 차이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즉, 여성노인의 연령에 따라 삶의 만족도 인식에는 차이가 없었다. 이에 대한 결과는 <표 4-14>와 같다.

<표 4-14> 연령에 따른 삶의 만족도 차이(가설 2-1) (N=504명)

구분	N	M	SD	F	Scheffe 검정	
삶의 만족도	a	207	4.29	.55	2.254	-
	b	193	4.38	.52		
	c	104	4.42	.62		

주) a=60대, b=70대, c=80대 이상

가설 2-2. 여성노인의 '학력'에 따라 삶의 만족도에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여성노인의 학력에 따라 삶의 만족도 인식 차이를 살펴보기 위하여 일원분산분석을 실시하였고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구체적인 집단 간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Scheffe 검정 결과, 초졸, 대졸이상의 여성노인이 삶의 만족도가 높다.

이는 학력이 있고 없음이 아니라 교육수준의 정도 차이가 삶의 만족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현재의 여성노인은 사회문화적 측면에서 전통적 한국 사회의 가부장적 사회구조와 규범 밑에서 제약을 많이 받아(한진숙·이주영, 2010),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 따라서 노인대학이나 경로당 등에서 실시되는 노인교육을 통하여 여성노인 자신에 대해 긍정적이고 스스로에 대해 만족하게 하여 궁극적으로는 노인의 삶의 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대안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이에 대한 결과는 <표 4-15>에 제시되어 있다.

<표 4-15> 학력에 따른 삶의 만족도 차이(가설2-2) (N=504명)

구분	N	M	SD	F	Scheffe 검정	
삶의 만족도	a	61	4.36	.68	2.463*	a, c, d<b, e
	b	94	4.48	.54		
	c	108	4.31	.54		
	d	167	4.27	.53		
	e	74	4.41	.53		

* p<0.05

주) a=무학, b=초졸, c=중졸, d=고졸, e=대졸이상

가설 2-3. 여성노인의 ‘종교’에 따라 삶의 만족도에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여성노인의 종교에 따라 삶의 만족도 인식 차이를 살펴보기 위하여 일원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구체적인 집단 간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Scheffe 검정 결과, 기독교, 불교, 천주교 등 종교를 가지고 있는 여성노인의 삶의 만족도가 높다.

종교는 합리적인 사고방식과 과학적 능력으로도 해결될 수 없는 죽음, 고통, 부정의와 같은 인간의 비합리적인 정황에 대한 해석의 틀을 제공(이지영·권기호, 2012)할 뿐만 아니라 인간의 생애 경험과 존재에 의미를 부여한다. 또한 종교는 삶의 방향성을 제시하기 때문에 인간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주요한 사회적 맥락이다. 따라서 종교적 믿음을 가지고 있는 여성노인은 삶의 만족도가 높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상의 결과는 <표 4-16>과 같다.

<표 4-16> 종교에 따른 삶의 만족도 차이(가설2-3) (N=504명)

구분	N	M	SD	F	Scheffe 검정	
삶의 만족도	a	180	4.33	.49	3.682*	d<a, b, c
	b	163	4.41	.51		
	c	92	4.41	.58		
	d	69	4.16	.74		

* p<0.05

주) a=기독교, b=불교, c=천주교, d=없음

가설 2-4. 여성노인의 ‘배우자유무’에 따라 삶의 만족도에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여성노인의 배우자 유무에 따라 삶의 만족도 인식 차이를 살펴보기 위하여 t-test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4-18>과 같다. 여성노인의 배우자 유무에 따라 삶의 만족도 인식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즉, 배우자 있는 여성노인이 삶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부가 건강하게 해로하는 ‘부부 복’(김미혜·신경림·강미선·강인, 2004)은 성공적으로 노후를 보내기 위한 여러 조건들 중의 하나로 노년기의 배우자는 정서적인 위로

를 주고 의지하며 즐거움을 나누는 친구와 같은 존재임과 동시에 곁에 살아 있는 것만으로도 마음에 큰 위안이 되는 존재이다. 노년기에 가장 친밀한 존재인 배우자가 있음으로써 심리적 만족을 느껴 삶의 만족도가 높다고 볼 수 있다.

<표 4-17> 배우자 유무에 따른 삶의 만족도 차이(가설 2-4) (N=504명)

구분		N	M	SD	t값
삶의 만족도	배우자 유	245	4.40	.58	2.139*
	배우자 무	259	4.30	.53	

* p<0.05,

가설 2-5. 여성노인의 '자원봉사경험 유무'에 따라 삶의 만족도에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여성노인의 자원봉사경험 유무에 따라 삶의 만족도 인식 차이를 살펴보기 위하여 t-test를 실시하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즉, 여성노인의 자원봉사경험 유무에 따라 삶의 만족도 인식에는 차이가 나지 않았다. 이상의 결과는 <표 4-18>에 제시되어 있다.

<표 4-18> 자원봉사경험 유무에 따른 삶의 만족도 차이(가설 2-5) (N=504명)

구분		N	M	SD	t값
삶의 만족도	자원봉사경험 유	304	4.33	.52	-.705
	자원봉사경험 무	200	4.37	.61	

가설 2-6. 여성노인의 '소득'에 따라 삶의 만족도에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여성노인의 소득에 따라 삶의 만족도 인식 차이를 살펴보기 위하여 일원분산분석을 실시하였고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Scheffe 검정결과, 여성노인의 소득에 따라 삶의 만족도 인식에는 차이가 나지 않았다. 이상의 결과는 <표 4-19>와 같다.

<표 4-19> 소득에 따른 삶의 만족도 차이(가설 2-6)

(N=504명)

구분	N	M	SD	F값	Scheffe 검정	
삶의 만족도	a	126	4.39	.60	0.457	-
	b	139	4.32	.54		
	c	92	4.36	.58		
	d	147	4.32	.53		

주) a=50만원 미만, b=50-100만원 미만, c=100-150만원 미만, d=150만원 이상

가설 2-7. 여성노인의 ‘주관적 경제수준’에 따라 삶의 만족도에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여성노인의 주관적 경제수준에 따라 삶의 만족도 인식 차이를 살펴보기 위하여 일원분산분석을 실시하였고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구체적인 집단 간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Scheffe 검정결과, 주관적 경제수준이 높은 여성노인이 삶의 만족도가 높다.

노인의 경제상태(윤순덕·한경혜, 2004)는 기본적인 생계유지뿐만 아니라 경제활동 등을 통한 사회참여로 노인의 육체적, 심리적 만족감을 증진시켜 노년기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요인이다. 여성노인은 실제 경제상태보다 은퇴 등으로 인한 소득의 감소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며, 따라서 여성노인의 생활만족도에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은 노인 개개인이 빈곤하다고 느끼는 정도에 따른 주관적 경제 상태에 대한 인식이라 할 수 있다. 소득의 절대적 수준보다는 상대적인 상태가 노인의 삶의 만족도에 더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로써 주관적 경제수준이 높은 여성노인은 경제적 욕구가 충족되어 여러 생활영역에서 긍정적 영향을 받고 이에 대한 삶의 만족도가 증가한다. 이상의 결과는 <표 4-20>과 같다.

<표 4-20> 주관적 경제수준에 따른 삶의 만족도 차이(가설 2-7) (N=504명)

구분	N	M	SD	F	Scheffe 검정	
삶의 만족도	a	128	4.33	.60	4.593*	a, b<c
	b	296	4.31	.55		
	c	80	4.52	.49		

*p<0.05

주) a=하, b=중, c=상

가설 2-8. 여성노인의 ‘현재 직업 유무’에 따라 삶의 만족도에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여성노인의 현재 직업 유무에 따라 삶의 만족도 인식 차이를 살펴보기 위하여 t-test를 실시하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즉, 여성노인의 현재 직업 유무에 따라 삶의 만족도 인식에는 차이가 없었다. 이에 대한 결과는 <표 4-21>에 제시되어 있다.

<표 4-21> 현재 직업의 유무에 따른 삶의 만족도 차이(가설 2-8) (N=504명)

구분	N	M	SD	t	
삶의 만족도	현재직업 유	80	4.30	.55	-.812
	현재직업 무	424	4.36	.56	

3) 연구가설 3의 검정

가설 3. 여성노인의 성공적 노화(자녀와의 관계, 자기통제, 사회적 활동 및 지지, 가족지향, 자기효능, 부부간의 관계) 인식이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여성노인의 성공적 노화 인식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하고자 단순상관관계와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4-22>, <표 4-23>와 같다.

먼저 성공적 노화 인식과 삶의 만족도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표 4-22>에서와 같이 통계적으로 높은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공적 노화 인식에 대한 삶의 만족도는 모든 변인에서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다. 자기통제($r = .603$), 사회적 활동 및 지지($r = .572$), 가족지향($r = .562$), 자녀와의 관계($r = .497$), 부부간의 관계($r = .492$), 자기효능($r = .439$)의 순으로 $p < 0.01$ 수준에서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22> 성공적 노화 인식과 삶의 만족도 간의 상관관계

구분	자녀와의 관계	자기통제	사회활동 및 지지	가족지향	자기효능	부부간의 관계	삶의 만족도
자녀와의 관계	1						
자기통제	.448**	1					
사회적 활동 및 지지	.422**	.574**	1				
가족지향	.458**	.555**	.444**	1			
자기효능	.283**	.505**	.612**	.411**	1		
부부간의 관계	.390**	.563**	.559**	.500**	.469**	1	
삶의 만족도	.497**	.603**	.572**	.562**	.439**	.492**	1

** $p < 0.01$

성공적 노화 인식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한 결과 자녀와의 관계, 자기통제, 사회적 활동 및 지지, 가족지향이 삶의 만족도에 영향력이 있다고 볼 수 있으며, 그 설명력은 51.1%로 나타났다. 그러나 자기효능, 부부간의 관계에 대한 인식은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즉, 여성노인의 자기통제가 있을수록, 사회적 활동을 활발히 할수록 가족지향적이고 자녀와의 관계가 좋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노년기 특성상 자신의 삶에 대한 통제력을 가지고 있고 여성노인도 사회적 존재로서 일정한 사회적 지위를 획득하고 사회적인 관계를 유지함으로써 삶의 만족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유교적 전통 하에서 가족주의 가치가 강한 우리나라

라(김도환, 2001; 송예현, 2001)에서 가족은 전생애에 걸쳐 직·간접적으로 개인의 삶과 행복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가족에 대한 지지가 강할수록, 자녀와의 관계에 있어서 정서적 교류가 잘 될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4-23> 성공적 노화와 삶의 만족도에 대한 회귀분석

구분	삶의 만족도		Multiple R	R Square	
	B	β			
성공적 노화	자녀와의 관계	.135	.171***	.715	.511
	자기통제	.247	.253***		
	사회적 활동 및 지지	.195	.251***		
	가족지향	.272	.231***		

*** p<0.001

4) 연구가설 4 의 검정

가설 4. 여성노인의 인구사회학적 요인에 따른 성공적 노화 인식 차이가 지역(제주, 서울)에 따라 다를 것이다.

여성노인의 인구사회학적 요인에 따른 성공적 노화 인식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이원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가설 4-1. 여성노인의 '연령'에 따른 성공적 노화 인식 차이가 지역(제주, 서울)에 따라 다를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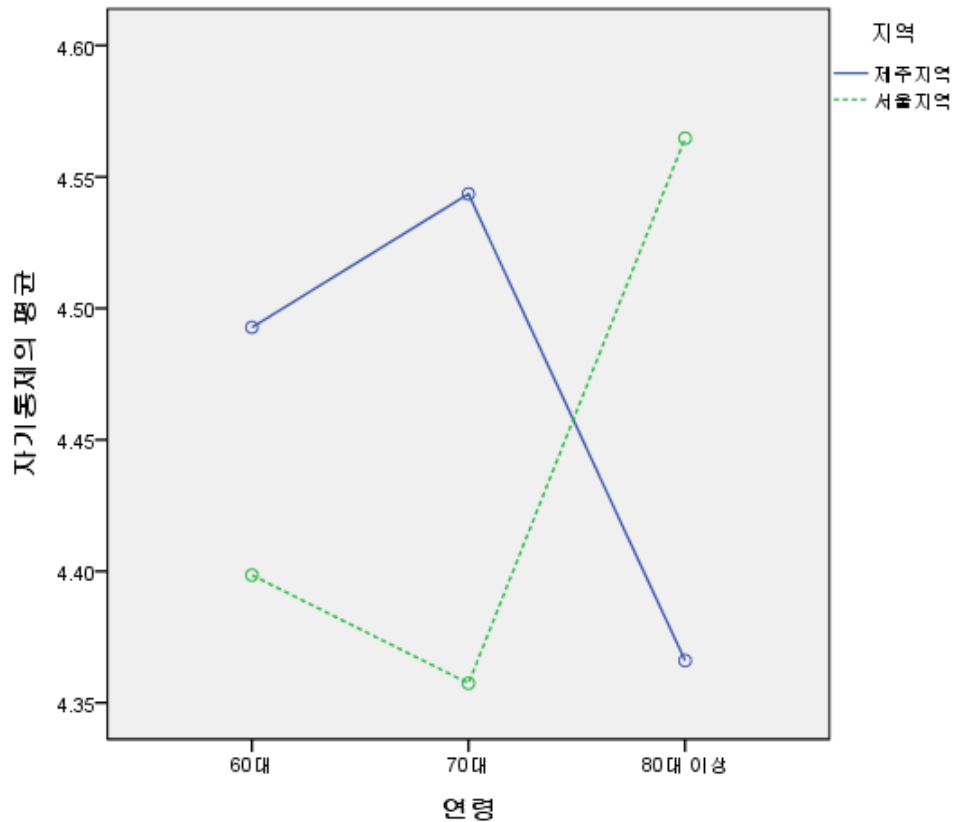
여성노인의 연령에 따른 성공적 노화 인식과 지역에 대한 이원변량분석결과는 자기통제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여성노인의 연령에 따라 자기통제 인식에 있어서 지역(제주, 서울)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는 <표 4-24>와 같다.

<표 4-24> 연령에 따른 성공적 노화 인식과 지역에 대한 이원변량분석 (N=504명)

구분	연령	제주 지역			서울 지역			F
		N	M	SD	N	M	SD	
자녀와의 관계	a	69	3.92	.66	138	4.00	.58	1.324
	b	85	4.13	.53	108	4.02	.61	
	c	53	4.27	.67	51	4.30	.62	
자기통제	a	69	4.49	.53	138	4.39	.48	4.922**
	b	85	4.54	.45	108	4.35	.53	
	c	53	4.36	.62	51	4.56	.40	
사회적 활동 및 지지	a	69	4.19	.62	138	4.21	.54	0.436
	b	85	4.17	.65	108	4.24	.50	
	c	53	4.06	.72	51	4.22	.81	
가족지향	a	69	4.74	.34	138	4.59	.44	1.775
	b	85	4.72	.33	108	4.53	.43	
	c	53	4.59	.46	51	4.59	.50	
자기효능	a	69	4.50	.52	138	4.49	.44	0.646
	b	85	4.44	.55	108	4.42	.48	
	c	53	4.19	.71	51	4.30	.49	
부부간의 관계	a	69	4.45	.66	138	4.41	.47	0.103
	b	85	4.52	.45	108	4.43	.47	
	c	53	4.34	.57	51	4.29	.73	

** p<0.01

주) a=60대, b=70대, c=80대 이상



[그림 4-1] 연령에 따른 자기통제 인식과 지역에 대한 관계

여성노인의 연령에 따른 자기통제 인식이 지역(제주, 서울)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제주여성노인 60대 70대가 80대 이상보다는 자기통제에 대한 인식 정도가 높다. 80대 이상 제주여성노인이 신체적 쇠퇴, 사회적 후퇴, 만성질환, 가난, 장애 등의 이유로 인한 자신에 대한 통제감이 급격히 상실되는 것을 경험하고 있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고령 제주여성노인의 심리적 적응과 정신적 건강유지를 위해 노인관련 시설이나 기관의 확대 설치와 함께, 제주여성노인들의 주관적 통제감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제공이 필요하다. 이상의 결과는 [그림 4-1]에 제시되어 있다.

가설 4-2. 여성노인의 ‘학력’에 따른 성공적 노화 인식 차이가 지역(제주, 서울)에 따라 다를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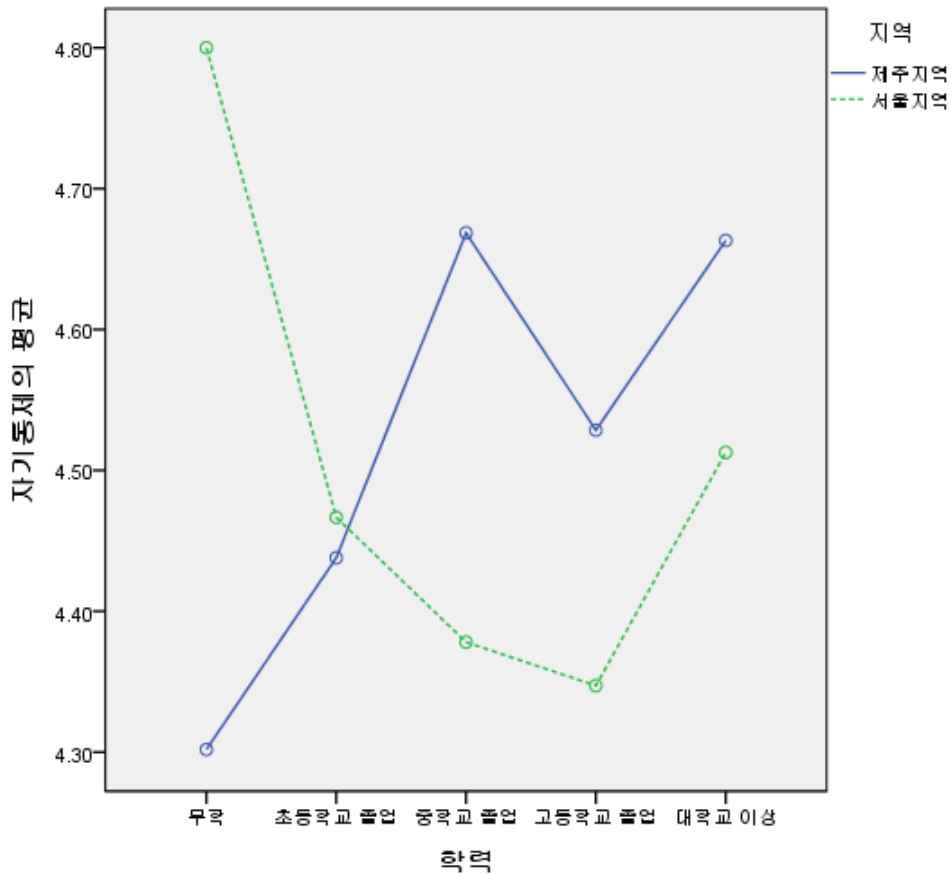
여성노인의 학력에 따른 성공적 노화 인식과 지역에 대한 이원변량분석 결과는 <표 4-25>와 같이 자기통제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여성노인의 학력에 따른 자기통제 인식이 지역(제주, 서울)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표 4-25> 학력에 따른 성공적 노화 인식과 지역에 대한 이원변량분석 (N=504명)

구분	학력	제주 지역			서울 지역			F
		N	M	SD	N	M	SD	
자녀와의 관계	a	53	4.12	.63	8	4.53	.36	1.500
	b	58	4.04	.68	36	4.15	.60	
	c	35	4.20	.62	73	4.06	.59	
	d	42	3.97	.60	125	3.98	.60	
	e	19	4.29	.50	55	4.11	.66	
자기통제	a	53	4.30	.64	8	4.80	.32	3.904**
	b	58	4.43	.48	36	4.46	.48	
	c	35	4.66	.45	73	4.37	.45	
	d	42	4.52	.48	125	4.34	.52	
	e	19	4.66	.38	55	4.51	.47	
사회적 활동 및 지지	a	53	3.93	.75	8	4.07	1.2	0.432
	b	58	4.22	.54	36	4.34	.49	
	c	35	4.28	.65	73	4.24	.55	
	d	42	4.13	.71	125	4.19	.58	
	e	19	4.32	.48	55	4.23	.55	
가족지향	a	53	4.61	.46	8	4.75	.46	0.962
	b	58	4.72	.32	36	4.63	.49	
	c	35	4.70	.32	73	4.51	.46	
	d	42	4.72	.36	125	4.54	.44	
	e	19	4.77	.33	55	4.65	.39	
자기효능	a	53	4.09	.72	8	4.50	.64	2.088
	b	58	4.35	.57	36	4.34	.52	
	c	35	4.54	.48	73	4.41	.40	
	d	42	4.61	.43	125	4.43	.46	
	e	19	4.68	.39	55	4.50	.50	
부부간의 관계	a	53	4.28	.61	8	4.62	.45	2.353
	b	58	4.50	.57	36	4.31	.62	
	c	35	4.61	.51	73	4.36	.47	
	d	42	4.49	.51	125	4.38	.57	
	e	19	4.40	.49	55	4.52	.42	

** p<0.01

주) a=무학, b=초졸, c=중졸, d=고졸, e=대졸이상



[그림 4-2] 학력에 대한 자기통제 인식과 지역에 대한 관계

여성노인의 학력에 따른 자기통제 인식이 지역(제주, 서울)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그림 4-2]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초졸 이상의 제주여성노인이 자기통제에 대한 인식 정도가 높다. 이는 교육수준이 있는 제주여성노인이 자신 스스로를 돌볼 수 있고 자신의 삶에 있어서 증가하는 통제력을 가지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가설 4-3. 여성노인의 '종교'에 따른 성공적 노화 인식 차이가 지역(제주, 서울)에 따라 다를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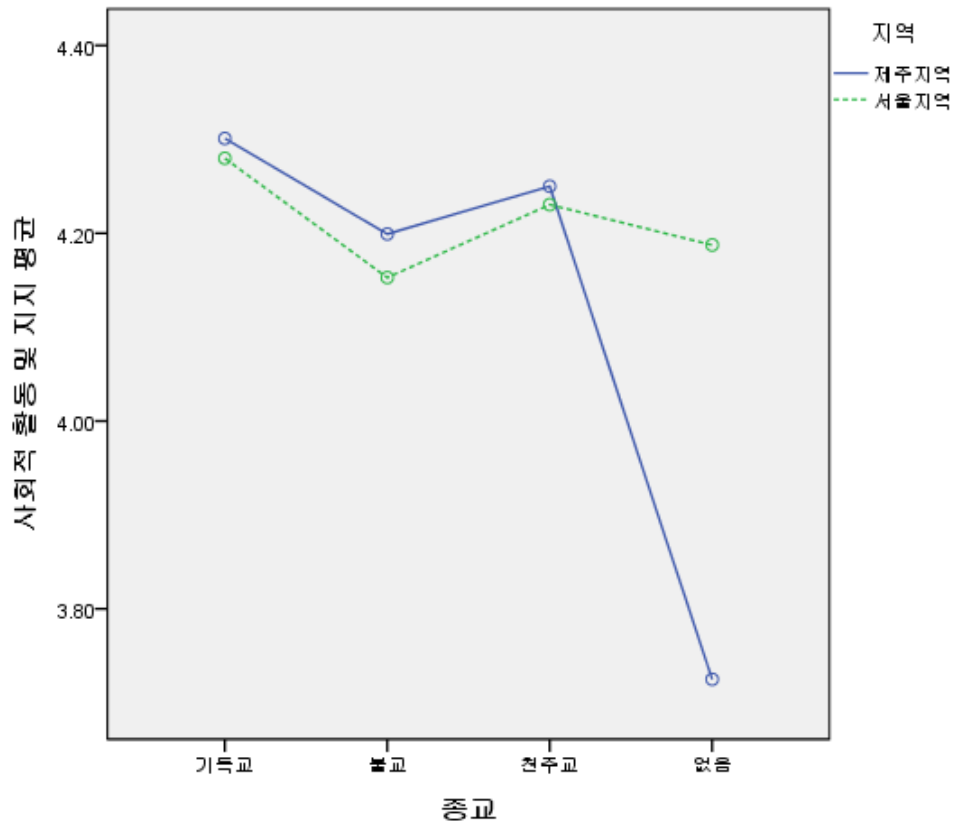
종교에 따른 성공적 노화 인식과 지역에 대한 이원변량분석결과는 자기효능과 사회적 활동 및 지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여성노인의 종교에 따라 자기효능과 사회적 활동 및 지지 인식에 있어서 지역(제주, 서울)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이에 대한 결과는 <표 4-26>에 제시되어 있다.

<표 4-26> 종교에 따른 성공적 노화 인식과 지역에 대한 이원변량분석 (N=504명)

구분	종교	제주 지역			서울 지역			F
		N	M	SD	N	M	SD	
자녀와의 관계	a	54	4.06	.58	126	4.06	.58	2.107
	b	91	4.04	.66	72	4.08	.58	
	c	27	4.40	.43	65	4.03	.68	
	d	35	4.05	.69	34	4.08	.62	
자기통제	a	54	4.62	.42	126	4.44	.46	2.368
	b	91	4.44	.50	72	4.35	.52	
	c	27	4.66	.37	65	4.44	.52	
	d	35	4.20	.72	34	4.37	.51	
사회적 활동 및 지지	a	54	4.30	.46	126	4.28	.46	3.251*
	b	91	4.19	.59	72	4.15	.59	
	c	27	4.25	.81	65	4.23	.74	
	d	35	3.72	.79	34	4.18	.60	
가족지향	a	54	4.60	.39	126	4.56	.41	1.090
	b	91	4.73	.36	72	4.53	.48	
	c	27	4.77	.34	65	4.62	.49	
	d	35	4.67	.37	34	4.58	.43	
자기효능	a	54	4.50	.45	126	4.48	.42	5.345**
	b	91	4.43	.57	72	4.34	.51	
	c	27	4.59	.47	65	4.41	.48	
	d	35	4.02	.76	34	4.46	.49	
부부간의 관계	a	54	4.54	.56	126	4.45	.46	1.149
	b	91	4.42	.54	72	4.33	.53	
	c	27	4.59	.42	65	4.38	.66	
	d	35	4.28	.65	34	4.40	.46	

* p<0.05, ** p<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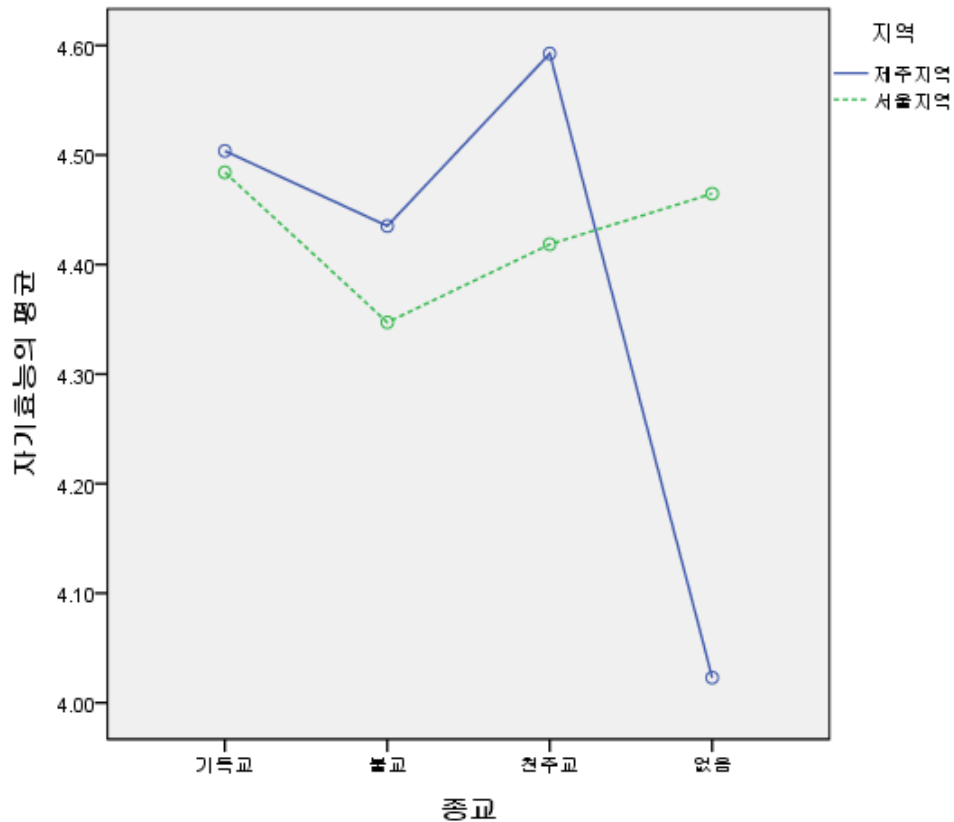
주) a=기독교, b=불교, c=천주교, d=없음



[그림 4-3] 종교에 따른 사회적 활동 및 지지 인식과 지역에 대한 관계

여성노인의 종교에 따른 사회적 활동 및 지지 인식이 [그림 4-3]에서 볼 수 있듯이 지역(제주, 서울)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종교가 없는 제주여성노인이 사회적 활동 및 지지에 대한 인식이 가장 낮다.

노년기 종교활동(홍현방, 2002)은 노인들이 노년기에 가장 쉽게 선택할 수 있는 사회적 활동이다. 이는 제주여성노인이 비교적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종교생활을 통해 사회적 활동의 기회를 얻고 삶의 활력을 얻을 필요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4-4] 종교에 따른 자기효능 인식과 지역에 대한 관계

여성노인의 종교에 따른 자기효능 인식이 지역(제주, 서울)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즉, 종교가 없는 제주여성노인이 자기효능에 대한 인식이 가장 낮다. 제주여성노인은 종교를 갖거나 종교 모임을 통한 적극적인 관계를 유지함으로써 사회적 소외를 느끼지 않고 자신의 삶을 영위할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한 결과는 [그림 4-4]에 제시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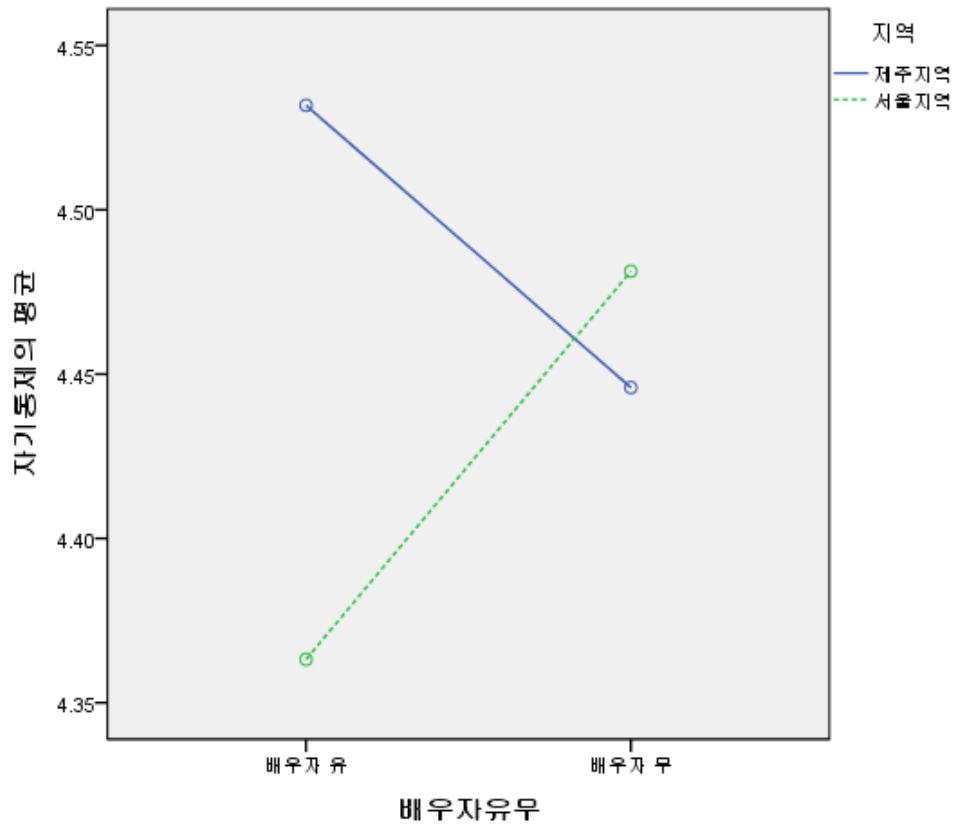
가설 4-4. 여성노인의 ‘배우자 유무’에 따른 성공적 노화 인식 차이가 지역(제주, 서울)에 따라 다를 것이다.

배우자 유무에 따른 성공적 노화 인식과 지역에 대한 이원변량분석 결과는 <표 4-27>과 같이 자기통제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여성노인의 배우자 유무에 따른 자기통제 인식이 지역(제주, 서울)에 따라 다르다.

<표 4-27> 배우자유무에 따른 성공적 노화 인식과 지역에 대한 이원변량분석 (N=504명)

구분	배우자 유무	제주 지역			서울 지역			F
		N	M	SD	N	M	SD	
자녀와의관계	유	85	3.91	.61	174	4.02	.56	3.755
	무	122	4.23	.61	123	4.12	.66	
자기통제	유	85	4.53	.47	174	4.36	.51	4.733*
	무	122	4.44	.56	123	4.48	.46	
사회적 활동 및 지지	유	85	4.19	.67	174	4.20	.50	1.263
	무	122	4.12	.65	123	4.26	.68	
가족지향	유	85	4.71	.34	174	4.53	.44	2.096
	무	122	4.68	.40	123	4.62	.46	
자기효능	유	85	4.50	.48	174	4.46	.45	1.435
	무	122	4.33	.65	123	4.39	.49	
부부간의 관계	유	85	4.54	.50	174	4.42	.47	1.064
	무	122	4.39	.59	123	4.37	.60	

* p<0.05



[그림 4-5] 배우자유무에 따른 자기통제 인식과 지역에 대한 관계

여성노인의 배우자 유무에 따른 자기통제 인식이 [그림 4-5]에서 볼 수 있듯이 지역(제주, 서울)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배우자 있는 제주여성노인이 자기통제에 대한 인식 정도가 높다. 제주도 가족(김혜숙, 1999)은 남편 또는 부인 어느 쪽에도 결정권이 치우치지 않고 있으며, 일치형 가족이 타 지역에 비해 상당히 높은 편이다. 이러한 현상은 제주도 가족이 보다 민주적, 타협적 분위기라 볼 수 있으며 부부가족제를 취하는데서 비롯된다. 부부간의 의사결정에서 상대적으로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제주여성노인이 자기통제력에 대한 인식정도가 높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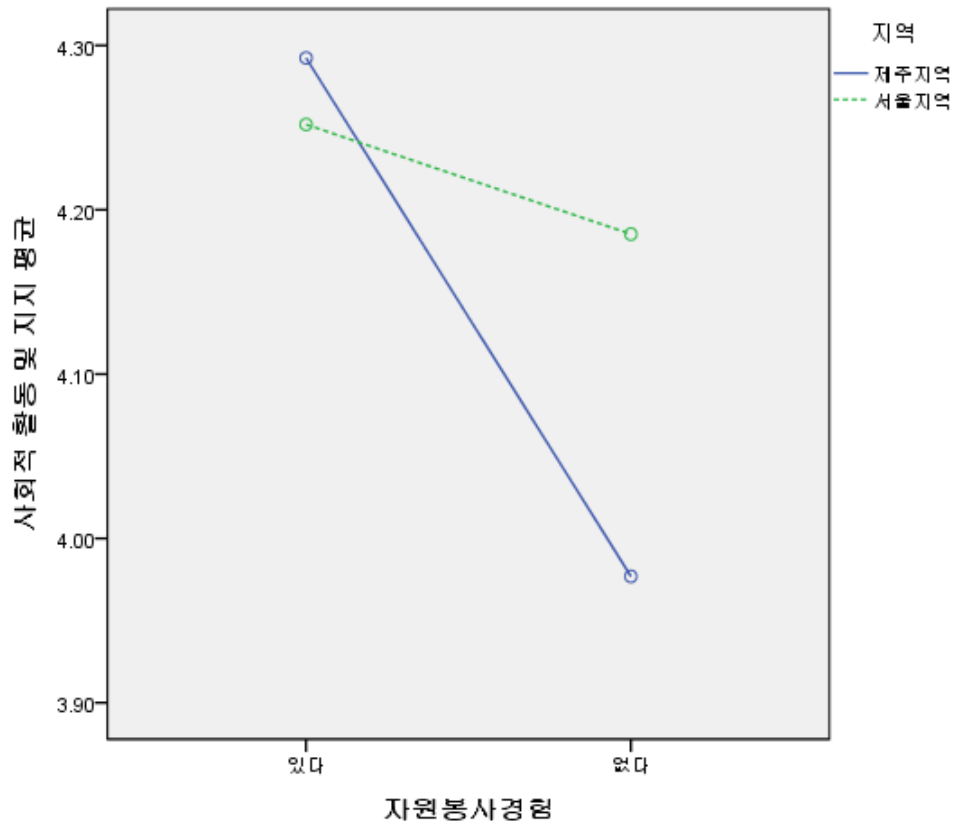
가설 4-5. 여성노인의 ‘자원봉사경험유무’에 따른 성공적 노화 인식 차이가 지역(제주, 서울)에 따라 다를 것이다.

자원봉사경험 유무에 따른 성공적 노화 인식과 지역에 대한 이원변량분석결과는 <표 4-28>에서 볼 수 있듯이 자기효능과 사회적 활동 및 지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여성노인의 자원봉사경험 유무에 따라 자기효능과 사회적 활동 및 지지 인식에 있어서 지역(제주, 서울)에 따라 다르다.

<표 4-28> 자원봉사경험유무에 따른 성공적 노화 인식과 지역에 대한 이원변량분석결과 (N=504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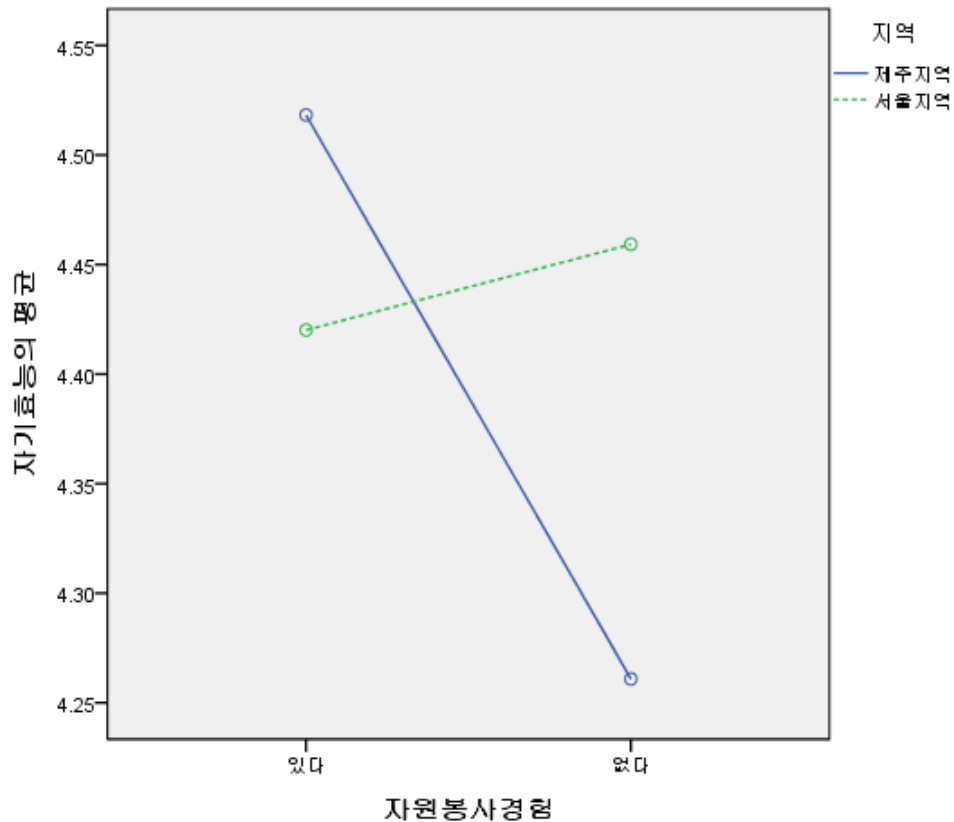
구분	자원봉사 경험유무	제주 지역			서울 지역			F
		N	M	SD	N	M	SD	
자녀와의관계	유	115	4.03	.62	189	4.04	.60	0.717
	무	92	4.19	.62	108	4.10	.62	
자기통제	유	115	4.55	.48	189	4.40	.49	3.644
	무	92	4.38	.57	108	4.41	.50	
사회적 활동 및 지지	유	115	4.29	.52	189	4.25	.48	4.882*
	무	92	3.97	.76	108	4.18	.72	
가족지향	유	115	4.66	.40	189	4.57	.40	1.469
	무	92	4.74	.32	108	4.56	.51	
자기효능	유	115	4.51	.57	189	4.42	.46	9.463**
	무	92	4.26	.59	108	4.45	.48	
부부간의 관계	유	115	4.51	.54	189	4.42	.46	0.716
	무	92	4.37	.58	108	4.36	.62	

* p<0.05, ** p<0.01



[그림 4-6] 자원봉사 경험유무에 따른 사회적 활동 및 지지 인식과 지역에 대한 관계

여성노인의 자원봉사경험 유무에 따른 사회적 활동 및 지지 인식이 지역(제주, 서울)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즉 자원봉사경험이 있는 제주여성노인이 사회적 활동 및 지지에 대한 인식 정도가 높게 나타났다. 노인자원봉사활동(정진석·조미정·채현탁, 2009)은 노인의 4중고(重苦)중 고독과 무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가 될 수 있다. 제주가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면서 제주여성노인의 자원봉사활동 참여는 지역사회주민과 교류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다. 제주여성노인이 자원봉사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와 관계를 맺고 사회에 봉사하여 사회복지에 공헌할 뿐 아니라 노인 또는 노화에 대한 인상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 이에 대한 결과는 [그림 4-6]과 같다.



[그림 4-7] 자원봉사 경험유무에 따른 자기효능 인식과 지역에 대한 관계

여성노인의 자원봉사경험 유무에 따른 자기효능 인식이 [그림 4-7]에서 볼 수 있듯이 지역(제주, 서울)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즉 자원봉사경험이 있는 제주여성노인이 자기효능에 대한 인식 정도가 높다.

개개인에 적합한 노인자원봉사활동(손동선, 2005)은 노인들에게 자기개발과 자아성취의 욕구를 채워줄 수 있는 최고의 활동이다. 자원봉사경험이 있는 제주여성노인이 무엇보다 긍정적인 자아상을 유지시킴으로써 자기효능에 대한 인식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가설 4-6. 여성노인의 '소득'에 따른 성공적 노화 인식 차이가 지역(제주, 서울)에 따라 다를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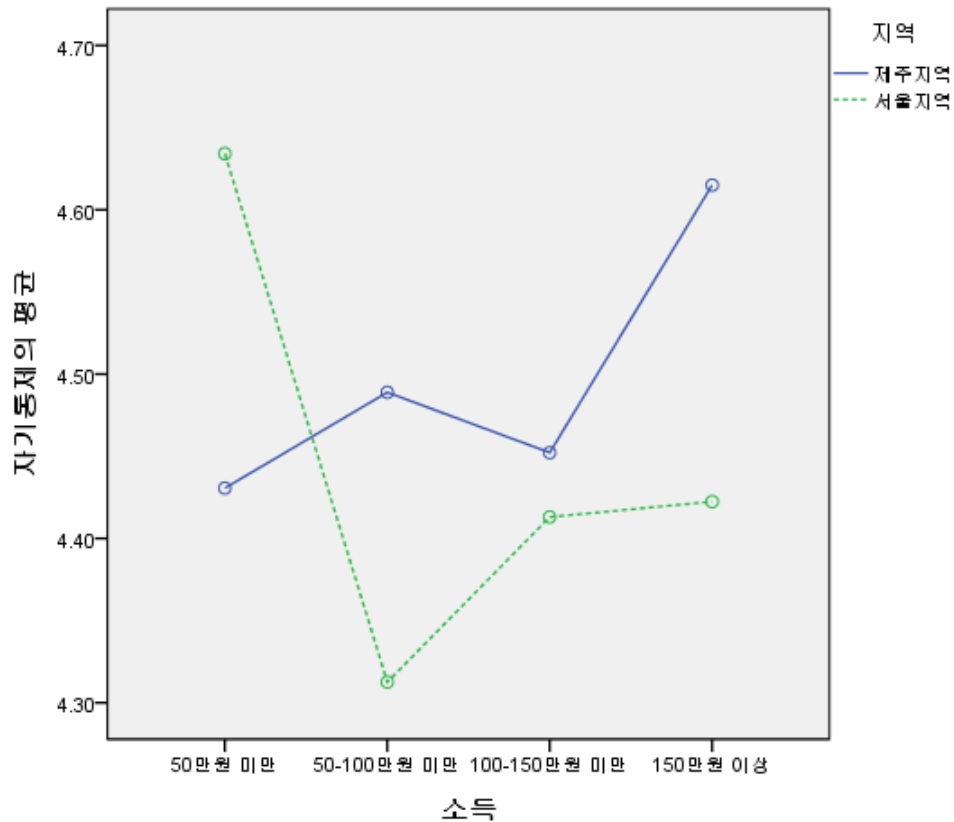
소득에 따른 성공적 노화 인식과 지역에 대한 이원변량분석 결과는 <표 4-29>에 제시되어 있듯이 자기통제, 가족지향, 자기효능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다. 즉, 여성노인의 소득에 따른 자기통제, 가족지향, 자기효능 인식이 지역(제주, 서울)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표 4-29> 소득에 따른 성공적 노화 인식과 지역에 대한 이변량분석결과 (N=504명)

구분	소득	제주 지역			서울 지역			F
		N	M	SD	N	M	SD	
자녀와의관계	a	85	4.08	.62	41	4.20	.52	0.698
	b	36	4.09	.60	103	4.08	.60	
	c	46	4.21	.67	46	4.08	.67	
	d	40	4.00	.61	107	3.97	.61	
자기통제	a	85	4.43	.56	41	4.63	.43	3.636*
	b	36	4.48	.46	103	4.31	.51	
	c	46	4.45	.56	46	4.41	.48	
	d	40	4.61	.48	107	4.42	.49	
사회적 활동 및 지지	a	85	4.16	.61	41	4.33	.70	1.919
	b	36	4.01	.82	103	4.17	.64	
	c	46	4.10	.69	46	4.34	.53	
	d	40	4.31	.53	107	4.18	.48	
가족지향	a	85	4.62	.39	41	4.69	.44	2.844*
	b	36	4.70	.36	103	4.46	.49	
	c	46	4.77	.35	46	4.62	.40	
	d	40	4.75	.35	107	4.61	.40	
자기효능	a	85	4.28	.65	41	4.52	.45	4.866**
	b	36	4.43	.55	103	4.35	.48	
	c	46	4.33	.60	46	4.46	.48	
	d	40	4.70	.38	107	4.46	.45	
부부간의 관계	a	85	4.47	.52	41	4.43	.53	1.300
	b	36	4.51	.65	103	4.29	.61	
	c	46	4.34	.60	46	4.39	.51	
	d	40	4.49	.51	107	4.49	.4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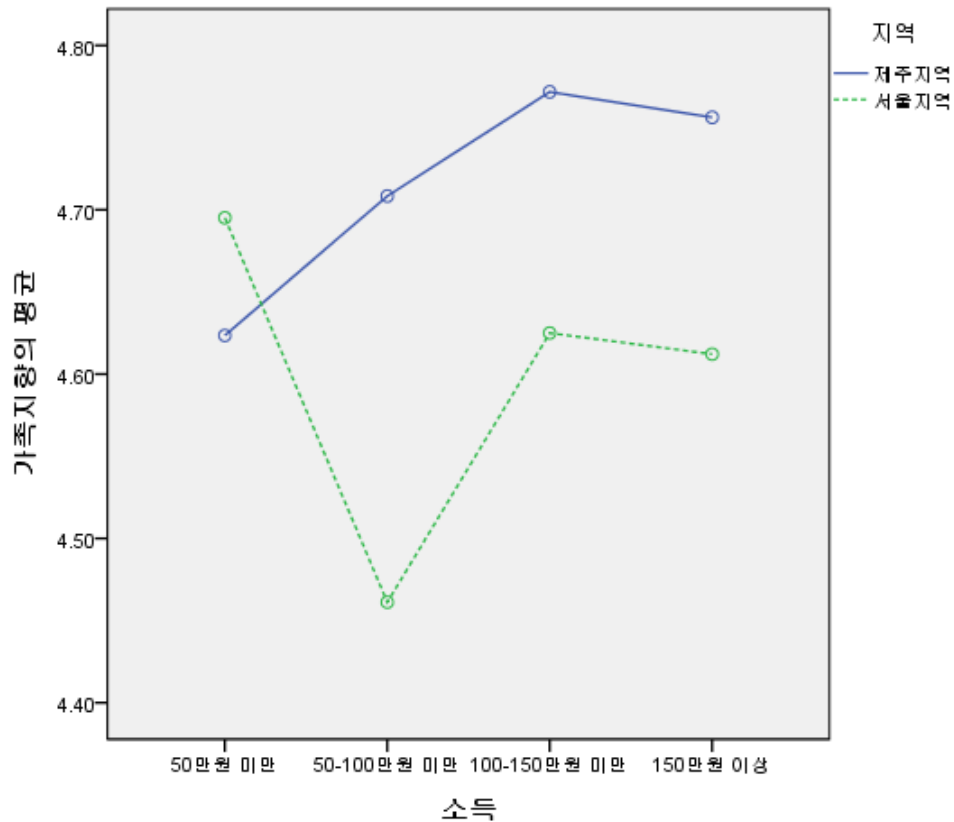
* p<0.05, ** p<0.01

주) a=50만원 미만, b=50-100만원 미만, c=100-150만원 미만, d=150만원 이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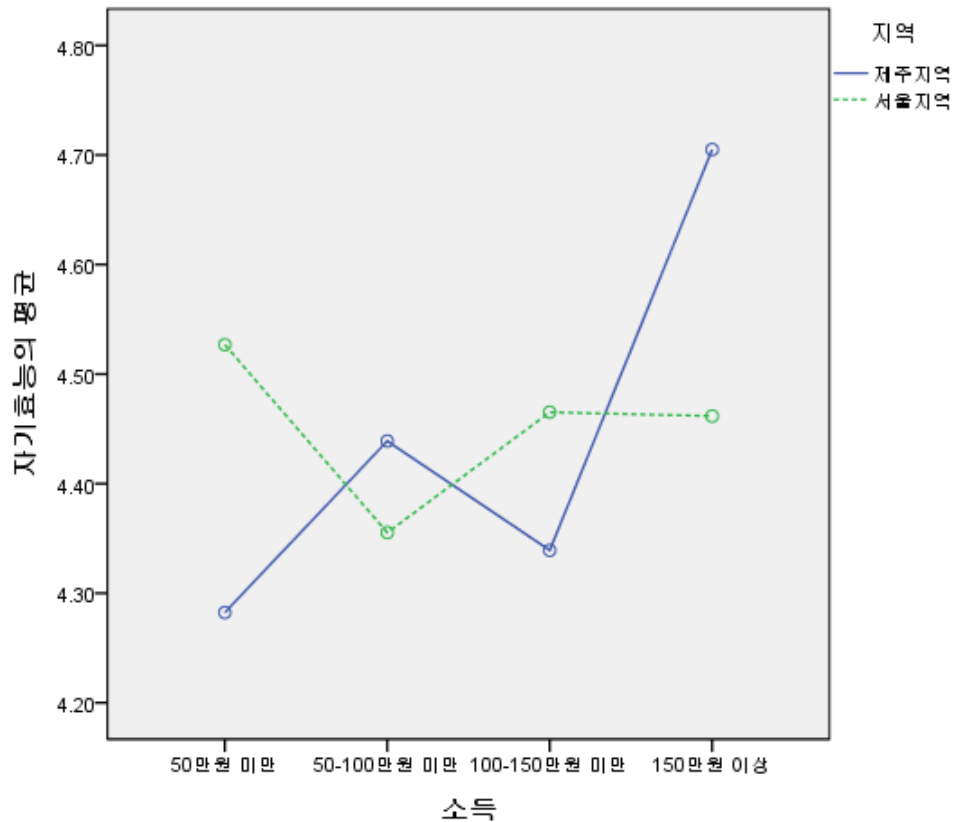
[그림 4-8] 소득에 따른 자기통제 인식과 지역에 대한 관계

여성노인의 소득에 따른 자기통제 인식이 지역(제주, 서울)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즉 50만원 이상의 본인 소득이 있는 제주여성노인은 자기통제에 대한 인식 정도가 높다. 노년기의 수입 감소(남현주·이현지, 2005)는 노인생활에 있어서 역할변화를 초래하는 요인이 되어 자신의 삶에 대한 통제감 저하를 경험하게 된다. 어느 정도의 본인 소득이 있는 제주여성노인의 경우는 자기통제력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상의 결과는 [그림 4-8]과 같다.



[그림 4-9] 소득에 따른 가족지향 인식과 지역에 대한 관계

여성노인의 소득에 따른 가족지향 인식이 [그림 4-9]에서 볼 수 있듯이 지역(제주, 서울)에 따라 다르다. 즉 50만원 이상의 본인 소득이 있는 제주여성노인은 가족지향에 대한 인식 정도가 높다. 경제적 어려움에 얽매이지 않을수록 성공적 노화에 대한 관심(최혜경, 2005)이 자기 자신에게서 가족, 그리고 삶에 대한 태도로 확장되어 간다. 어느 정도 본인 소득이 있는 제주여성노인인 경우에는 경제적 안정감을 가지고 원만한 가족생활을 유지함으로써 성공적 노화에 관한 가족지향의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그림 4-10] 소득에 따른 자기효능 인식과 지역에 대한 관계

여성노인의 소득에 따른 자기효능 인식이 지역(제주, 서울)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즉 150만원 이상의 본인 소득이 있는 제주여성노인은 자기효능에 대한 인식 정도가 높다. 경제적 능력을 가진 제주여성노인의 경우에는 자기유용감을 확인하게 되어 자기관리 능력과 성취감을 느껴 자기효능에 대한 인식을 하게 된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대한 결과는 [그림 4-10]에 제시되어 있다.

가설 4-7. 여성노인의 ‘주관적 경제수준’에 따른 성공적 노화 인식 차이가 지역(제주, 서울)에 따라 다를 것이다.

주관적 경제수준에 따른 성공적 노화 인식과 지역에 대한 이원변량분석결과는 자기효능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여성노인의 주관적 경제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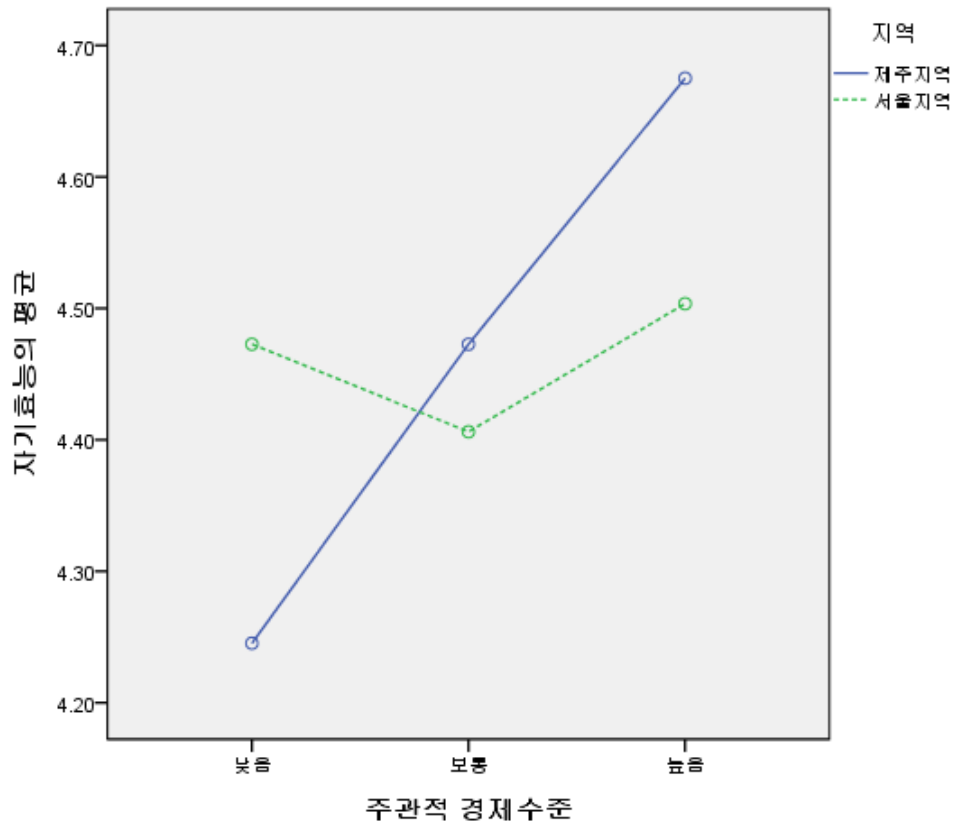
에 따라 자기효능에 있어서 지역(제주, 서울)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이에 대한 결과는 <표 4-30>과 같다.

<표 4-30> 주관적 경제수준에 따른 성공적 노화 인식과 지역에 대한 이원변량분석 (N=504명)

구분	주관적 경제수준	제주 지역			서울 지역			F
		N	M	SD	N	M	SD	
자녀와의관계	a	84	4.14	.60	44	4.06	.58	0.087
	b	99	4.04	.66	197	4.02	.60	
	c	24	4.19	.58	56	4.18	.64	
자기통제	a	84	4.37	.58	44	4.43	.46	1.997
	b	99	4.54	.48	197	4.37	.49	
	c	24	4.59	.45	56	4.52	.51	
사회적활동 및 지지	a	84	4.08	.64	44	4.19	.66	0.370
	b	99	4.15	.70	197	4.20	.58	
	c	24	4.39	.50	56	4.34	.50	
가족지향	a	84	4.64	.39	44	4.59	.43	2.384
	b	99	4.73	.36	197	4.52	.43	
	c	24	4.71	.34	56	4.71	.33	
자기효능	a	84	4.24	.67	44	4.47	.47	4.203*
	b	99	4.47	.53	197	4.40	.46	
	c	24	4.67	.41	56	4.50	.48	
부부간의 관계	a	84	4.42	.57	44	4.37	.57	0.028
	b	99	4.42	.56	197	4.35	.54	
	c	24	4.66	.49	56	4.57	.41	

* p<0.05

주) a=하, b=중, c=상



[그림 4-11] 주관적 경제수준에 따른 자기효능 인식과 지역에 대한 관계

여성노인의 주관적 경제수준에 따른 자기효능 인식이 지역(제주, 서울)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즉 주관적 경제수준이 높은 제주여성노인은 자기효능에 대한 인식 정도가 높다. 경제적 지위(최성재·장인협, 2003)는 노인의 지위와 자아를 유지시켜주는 요인이기에 경제력이 있는 제주여성노인의 경우, 자기 자신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강하게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상의 결과는 [그림 4-11]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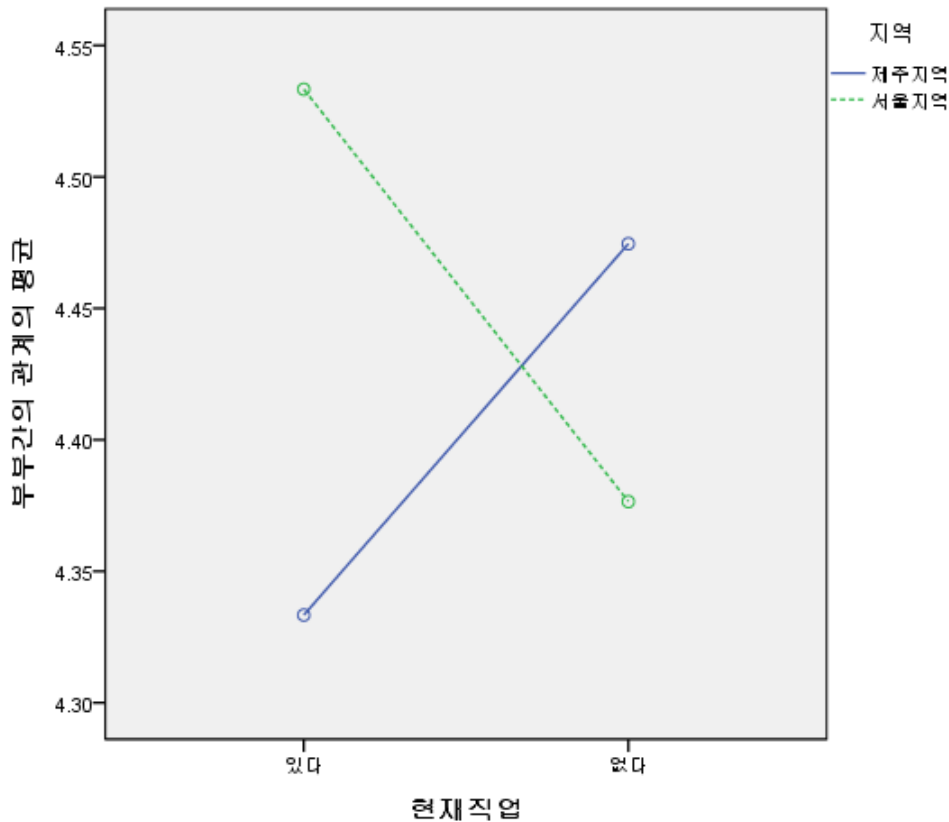
가설 4-8. 여성노인의 ‘현재직업 유무’에 따른 성공적 노화 인식 차이가 지역(제주, 서울)에 따라 다를 것이다.

현재 직업 유무에 따른 성공적 노화 인식과 지역에 대한 이원변량분석결과는 부부간의 관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4-31>에서 볼 수 있듯이 여성노인의 현재 직업 유무에 따라 부부간의 관계에 있어서 지역(제주, 서울)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표 4-31> 현재직업 유무에 따른 성공적 노화 인식과 지역에 대한 이원변량분석 (N=504명)

구분	현재직업 유무	제주 지역			서울 지역			F
		N	M	SD	N	M	SD	
자녀와의 관계	유	30	4.03	.60	50	3.98	.62	0.019
	무	177	4.11	.63	247	4.08	.60	
자기통제	유	30	4.54	.48	50	4.50	.41	0.082
	무	177	4.47	.53	247	4.39	.51	
사회적 활동 및 지지	유	30	4.24	.59	50	4.24	.56	0.335
	무	177	4.13	.67	247	4.22	.58	
가족지향	유	30	4.62	.42	50	4.60	.42	1.209
	무	177	4.70	.36	247	4.56	.45	
자기효능	유	30	4.66	.35	50	4.54	.45	1.789
	무	177	4.35	.62	247	4.41	.47	
부부간의 관계	유	30	4.33	.76	50	4.53	.45	4.794*
	무	177	4.47	.52	247	4.37	.54	

* p<0.05



[그림 4-12] 현재 직업유무에 따른 부부간의 관계 인식과 지역에 대한 관계

여성노인의 현재 직업 유무에 따른 부부간의 관계 인식이 [그림 4-12]에서 볼 수 있듯이 지역(제주, 서울)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즉 현재 직업이 없는 제주여성노인은 부부간의 관계에 대한 인식 정도가 높다. 제주가족(김혜숙, 1999)에서 여성이 가사에만 종사한다고 하여 결정권이 약화되거나, 직장을 가졌다고 하여 더 강화되는 등의 의미 있는 차이는 없었다. 직업이 없는 제주여성노인이 부부간의 관계에 대한 인식이 높다는 것은 예부터 제주도 가족의 생활중심이 부부에게 있어왔다는 면에서 이해할 수 있다.

5) 연구가설 5의 검증

가설 5. 여성노인의 성공적 노화 인식(자녀와의 관계, 자기통제, 사회적 활동 및 지지, 가족지향, 자기효능, 부부간의 관계)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은 지역(제주, 서울)에 따라 다를 것이다.

여성노인의 성공적 노화 인식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은 지역(제주, 서울)에 따라 다를 것이다라는 것에 대해 분석하고자 단순상관관계와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성공적 노화와 삶의 만족도 간의 상관관계(제주)를 분석한 결과 <표 4-32>에서와 같이 통계적으로 높은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다. 성공적 노화 인식에 대한 삶의 만족도는 모든 변인에서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사회적 활동 및 지지($r = .580$), 자기통제($r = .558$), 부부간의 관계($r = .534$), 자기효능($r = .534$), 가족지향($r = .502$), 자녀와의 관계($r = .425$)의 순으로 $p < 0.01$ 수준에서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32> 성공적 노화 인식과 삶의 만족도 간의 상관관계 (제주)

	자녀와의 관계	자기통제	사회활동 및 지지	가족지향	자기효능	부부간의 관계	삶의 만족도
자녀와의 관계	1						
자기통제	.347**	1					
사회적 활동 및 지지	.325**	.613**	1				
가족지향	.364**	.416**	.367**	1			
자기효능	.214**	.587**	.663**	.458**	1		
부부간의 관계	.349**	.562**	.611**	.400**	.498**	1	
삶의 만족도	.425**	.558**	.580**	.502**	.534**	.534**	1

** $p < 0.01$

제주여성노인의 경우를 살펴보면 성공적 노화 6가지 요인 중에 자녀와의 관계, 자기통제, 사회적 활동 및 지지, 가족지향, 부부간의 관계 등이 삶의 만족도에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33>에서 볼 수 있듯이 사회적 활동에 참여할수록, 가족의 지지를 중요하게 인식할수록 자신의 삶에 대한 통제력을 가질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다. 그리고 자녀와의 관계와 부부간의 관계가 긍정적일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다.

<표 4-33> 성공적 노화와 삶의 만족도에 대한 회귀분석 (제주)

	삶의 만족도		Multiple R	R Square
	B	β		
자녀와의 관계	.119	.151**	.705	.497
자기통제	.175	.179**		
사회적 활동 및 지지	.191	.257***		
가족지향	.310	.225***		
부부간의 관계	.125	.134*		

* p<0.05, ** p<0.01, *** p<0.001

성공적 노화와 삶의 만족도 간의 상관관계(서울)를 분석한 결과 통계적으로 높은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공적 노화 인식에 대한 삶의 만족도는 모든 변인에서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자기통제(r=.635), 가족지향(r=.593), 사회적 활동 및 지지(r=.590), 자녀와의 관계(r=.560), 부부간의 관계(r=.456), 자기효능(r=.367)의 순으로 p<0.01 수준에서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는 <표 4-34>와 같다.

<표 4-34> 성공적 노화 인식과 삶의 만족도 간의 상관관계(서울)

	자녀와의 관계	자기통제	사회활동 및 지지	가족지향	자기효능	부부간의 관계	삶의 만족도
자녀와의 관계	1						
자기통제	.528**	1					
사회적 활동 및 지지	.508**	.552**	1				
가족지향	.527**	.644**	.527**	1			
자기효능	.351**	.438**	.561**	.408**	1		
부부간의 관계	.422**	.561**	.523**	.565**	.449**	1	
삶의 만족도	.560**	.635**	.590**	.593**	.367**	.456**	1

** p<0.01

서울여성노인의 경우를 살펴보면 <표 4-35>와 같다. 성공적 노화 6가지 요인 중 에 자녀와의 관계, 자기통제, 사회적 활동 및 지지, 가족지향 등이 삶의 만족도에 영향력이 있다. 즉, 자녀와의 관계가 좋고 자신의 삶에 대한 통제력을 가질수록 사회적 활동에 참여할수록 서울여성노인의 삶의 만족도가 높다. 그리고 가족에 대한 관심과 지지가 있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다.

<표 4-35> 성공적 노화와 삶의 만족도에 대한 회귀분석 (서울)

	삶의 만족도		Multiple R	R Square
	B	β		
자녀와의 관계	.148	.192***	.733	.538
자기통제	.273	.283***		
사회적 활동 및 지지	.190	.240***		
가족지향	.195	.18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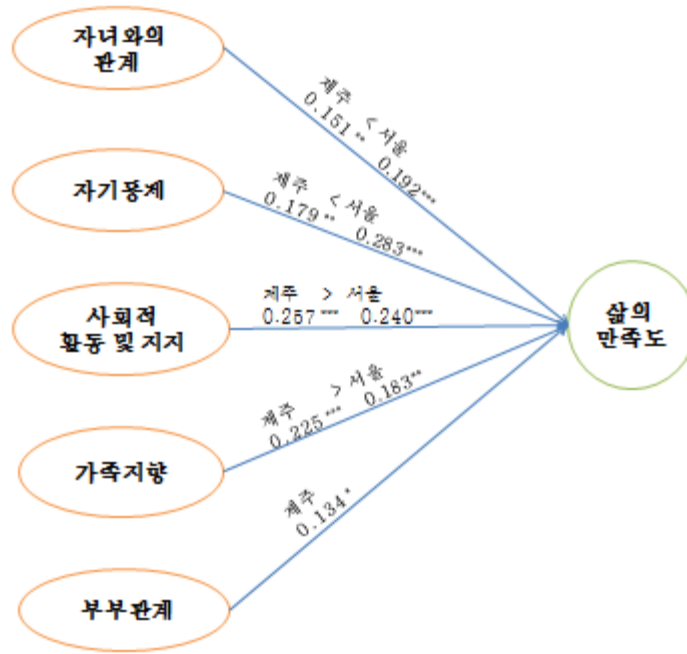
** p<0.01, *** p<0.001

여성노인의 성공적 노화 인식(자녀와의 관계, 자기통제, 사회적 활동 및 지지, 가족지향, 부부간의 관계)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력이 지역(제주, 서울)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그림 4-13]에서 볼 수 있듯이 제주여성노인의 사회적 활동 및 지지와 가족지향에 대한 인식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력이 서울여성노인보다 크다. 특히 부부간의 관계에 대한 인식은 제주여성노인에게만 나타나고 있다.

사회적 활동 및 지지에서 사회적 지지를 많이 받는 것이 곧 노인의 주관적 삶의 질 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이 아님을 보여준 연구(고보선, 2004)에서 지지정도와 이에 대한 노인의 만족도가 일치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개인의 자립성과 세대간 독립성으로 설명할 수 있는 제주여성노인의 특성에서 자칫 사회적 관계의 단절을 우려할 수 있으나 이 연구에서는 사회적 활동 및 지지에 대한 인식이 제주여성노인의 삶의 만족도에 중요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제주도 가족에서 아들을 중시하는 남아선호의식이 강하며 조상을 숭배하고 조상제사를 중시하고 문중조직이 발달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조상제사를 장남이 전담하는 곳에서는 종손의식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아들이 없을 때에는 양자를 들이려고 노력한다(최재석, 1979). 이러한 가족지향에 대한 인식이 강하게 작용하여 제주여성노인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력을 보이고 있다.

제주도는 숲을 갈라 살림이 분리되면서 시작되는 철저한 독립정신(김혜숙, 1999)은 부모세대와 아들 세대간 엄격한 수직구조를 형성하지 않게 된다. 일정한 거리를 둠으로써 서로의 생활공간을 인정하고 부모가 자녀의 내적 생활에 통제나 간섭이 적어, 갈등이 약하고 정서적 유대가 강화될 수 있다. 장남까지 분가시킴으로써 부부중심가족을 이루는 제주여성노인에게 부부간의 관계에 대한 인식은 타 지역 여성노인과는 다르게 나타나는 중요한 부분이다. 이 연구에서는 제주여성노인의 부부간의 관계에 대한 인식이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그림 4-13] 성공적 노화 인식과 삶의 만족도 영향관계

4. 소결

이 장에서는 여성노인을 대상으로 인구사회학적 요인에 따라 성공적 노화 인식과 삶의 만족도 차이관계가 어떠한지 알아보고 더 나아가 성공적 노화 인식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관계를 분석하였다. 특히 성공적 노화 인식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력에서 제주와 서울의 검정변수 효과를 검정하는 과정을 통해 밝혀진 제주여성노인의 특성을 중심으로 알아보고자 한다. 이러한 양적연구결과에 대해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여성노인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제주지역이 서울지역보다 70대, 80대 이상이 많이 분포되어 있어 연령이 다소 높다. 학력의 경우, 제주여성노인이 초등학교 졸업이 28.0%로 가장 많고 무학이 25.6%로 서울여성노인보다 학력이 낮다. 종교의 경우, 제주지역은 불교(44.0%), 서울지역은 기독교(26.1%)로 가장 많았고 제주여성노인 절반이상인 58.9%가 배우자가 없다고 응답한 반면, 서울지역은 58.6%가 배우자가 있다. 자원봉사경험에 대해 살펴보면 제주지역은 55.6%, 서울지역 63.6%가 자원봉사경험이 있다. 소득의 경우 제주지역이 50만원 미만인 41.1%로 가장 많았고 다음이 100-150만원 미만(22.2%)으로 나타났으며 서울지역은 150만원 이상(36.0%)으로 제주여성노인이 서울여성노인보다 상대적으로 소득이 적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제주여성노인의 주관적 경제수준은 보통 이하라고 생각하고 있는 반면, 서울여성노인의 주관적 경제수준은 보통 이상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직업유무의 경우에는 제주, 서울지역 모두 80% 이상이 직업이 없다고 응답하였다.

둘째, 가설 1의 검정결과에 따르면 연령이 80대 이상에서는 자녀와의 관계를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고 60대 70대에서는 자기효능을 중요시하고 있다. 무학보다는 교육수준이 있는 여성노인이 사회적 활동 및 지지와 자기효능을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다. 그리고 종교가 있는 여성노인이 자기통제, 사회적 활동 및 지지, 자기효능에 대한 인식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배우자가 없는 여성노인은 자녀와의 관계가 성공적 노화를 위해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고, 배우자가 있는 여성노인은 자기효능이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자원봉사경험이 있는 여성노인이 사회적 활동 및 지지에 대한 인식에서 차이를 보였다. 월소득 100만원 이상 150만원 미만인 집단에서는 가족지향을 더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주관적 경제수준이 높다고 응답한 여성노인이 사회적 활동 및 지지, 자기효능, 부부간 관계가 더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직업이 있는 여성노인이 자기효능에 대한 인식에서 차이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성공적 노화를 이루는데 있어 요인별 차이가 나타나, 여성노인 삶의 다양한 측면을 고려한 성공적 노화의 적절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볼 수 있다.

셋째, 가설 2의 검정결과에 따르면 교육수준, 종교, 배우자가 있으며 주관적 경제수준이 높은 여성노인이 삶의 만족도가 높다. 가정생활의 안정감이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무엇보다 여성노인에게 있어서 정서적 교류를 가장 많이 사람이 배우자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소득의 절대적 수준보다도 경제적으로 만족하느냐 하지 않느냐가 여성노인 삶의 만족도와 관련하여 더 중요시되고 있다. 사람의 행복감이 반드시 객관적인 부나 생활조건의 정도와 비례하지 않는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넷째, 가설 3의 검정결과에 따르면, 자녀와의 관계, 자기통제, 사회적 활동 및 지지, 가족지향 등이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다양한 사회적 관계망을 형성함으로써 개인적 위안 제공 이상의 의미를 찾고 가족에 대한 지지, 자녀와의 관계에 있어서 원만하고 정서적 교류가 이루어질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다섯째, 가설 4의 검정결과에 따르면 60대, 70대이며 학력, 배우자가 있으며 본인 소득이 50만원 이상인 제주여성노인이 자기통제에 대한 인식이 크다. 사회적 활동 및 지지는 종교, 자원봉사경험이 있는 제주여성노인에게서 인식정도가 크며 종교, 자원봉사경험, 주관적 경제수준이 보통 이상인 제주여성노인은 자기효능에 대한 인식정도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무엇보다 현재 직업이 없는 제주여성노인은 부부간의 관계를 더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다.

여섯째, 가설 5의 검정결과에 따르면 제주여성노인은 사회적 활동 및 지지와 가족지향 인식에 있어 서울여성노인보다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부부간의 관계에 대한 인식이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은 제주여성노인에게만 나타난 결과이다.

지금까지 연구가설의 검정 결과, 여성노인의 인구사회학적 요인에 따른 성공적 노화 차이관계와 성공적 노화 인식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관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차이와 영향에서 지역(제주, 서울)이 유의한 검정변수 효과를 보이고 있다.

첫째, 성공적 노화에 있어 여성노인의 ‘자녀와의 관계’ 인식이 커질수록 삶에 대한 만족도가 크다. 자녀들을 교육시키고 사회적으로 출세하고, 또한 노년기에도 자녀들에게 물심양면으로 도움을 줄 수 있을 정도의 여유 있는 삶을 유지하여 다른 사람에게 내세울 수 있고, 부러움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면 성공적인 노화라고 이해할 수 있다. 자녀에 대한 부모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자녀와의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노년기에 있어서 자신의 삶에 대해 만족할 수 있는 중요한 요인임을 알 수 있다.

둘째, 60대, 70대 제주여성노인이 중졸 이상의 학력을 가지고 배우자가 있으며 본인 소득이 50만원 이상인 경우, ‘자기통제’에 대한 인식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젊은 연소노인, 교육수준이 있으며, 배우자가 있는 제주여성노인이 자신을 스스로 통제하고 다스릴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성공적인 노화에 있어서 제주여성노인이 ‘자기통제’에 대한 인식에 크다고 이해할 수 있다.

셋째, ‘사회적 활동 및 지지’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 종교가 있고 자원봉사경험이 있는 제주여성노인이 유의미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주목할 점은 성공적 노화에 있어 제주여성노인의 사회적 활동 및 지지에 대한 인식이 클수록 삶의 만족도가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본인 소득 50만원 이상인 제주여성노인이 ‘가족지향’에 대한 인식이 더 크다. 특히 제주여성노인의 가족지향에 대한 인식이 커질수록 삶에 대한 만족도가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제주여성노인이 매일의 일상을 보내고 부양을 제공받는 생활맥락일 뿐 아니라, 노인세대의 중심적인 삶의 가치로 ‘가족’이 자리 잡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섯째, 종교가 있고, 자원봉사경험이 있으며, 본인 소득이 150만원 이상, 주관적 경제수준이 보통 이상인 제주여성노인의 ‘자기효능’에 대한 인식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 ‘자기효능’에 대한 인식이 삶의 만족도에는 영향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섯째, 현재 직업이 없는 제주여성노인이 ‘부부간의 관계’에 대한 인식 차이를 보이고 있다. 특히 제주여성노인의 ‘부부간의 관계’에 대한 인식이 커질수록 삶에 대한 만족도가 증가하고 있다. 제주여성노인은 자녀가 교육과 취업을 위해 제주를 떠나고 부부만이 남아 농사일이나 개인적인 일을 계속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전통적인 성역할에 얽매이지 않는 제주여성노인의 특성을 보여주듯이, 부부중심 가족에서 서로 관심과 애정을 교류하고 상호작용이 빈번하고 오랜 시간을 유지해 성공적

노화를 위해 필요한 기본적인 지지를 제공해주고, 정서적 안녕감을 증진시켜줌으로써 삶의 만족과 연결된다고 볼 수 있다.

V. 제주여성노인의 성공적 노화에 대한 질적 분석

1. 연구대상의 특성

연구의 참여자는 총 12명으로, 일반적인 특성은 <표 5-1>에 제시되어 있다. 참여자의 연령은 65세부터 78세이고, 학력은 중졸 4명, 고졸 6명, 대졸 2명이다. 종교는 기독교 3명, 천주교 3명, 불교 6명이고, 결혼관계는 배우자 있음 7명, 배우자 없음은 모두 사별상태로 5명이다. 자원봉사경험 있음은 7명이고, 자원봉사경험 없음은 5명이다. 소득은 50만원~100만원 미만 3명, 100만원~150만원 미만 5명, 150만원 이상 4명이다. 주관적 경제수준 높음은 10명이고, 보통이 2명으로 나타나 있다. 현재 직업으로는 대학강사 1명, 작가 1명, 청소용역 2명, 임대업 1명, 숙박업 1명, 학교이사 1명, 음식업 1명, 전업주부가 4명이다.

<표 5-1> 연구참여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구분	연령	학력	종교	배우자유무	자원봉사경 험유무	소득	주관적 경제수준	현재직업
1	65	대졸이상	불교	없음(사별)	있음	150만원 이상	높음	대학강사
2	75	고졸	기독교	있음	없음	100만원이상 150만원미만	높음	작가
3	65	중졸	기독교	있음	있음	50만원이상 100만원미만	보통	용역
4	74	대졸	천주교	없음(사별)	있음	150만원 이상	높음	임대업
5	68	중졸	불교	있음	없음	150만원 이상	높음	숙박업
6	75	고졸	기독교	있음	있음	100만원이상 150만원 미만	높음	주부
7	68	중졸	불교	있음	없음	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	높음	용역
8	72	고졸	불교	없음(사별)	없음	100만원 이상 150만원 미만	높음	학교 이사
9	78	고졸	불교	없음(사별)	있음	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	보통	주부
10	77	고졸	천주교	없음(사별)	있음	100만원 이상 150만원 미만	높음	주부
11	78	고졸	천주교	있음	있음	100만원 이상 150만원 미만	높음	주부
12	66	중졸	불교	있음	없음	150만원 이상	높음	음식업

2. 제주여성노인의 성공적 노화에 대한 심층면접결과

1) ‘나이듦’에 대한 인식

연구참여자의 ‘나이듦’에 대한 인식내용을 ‘긍정형’, ‘중간형’, ‘부정형’으로 범주화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대부분의 연구참여자가 ‘나이듦’에 대한 ‘긍정형’을 보여주고 있다. 제주여성노인 자신의 노화현상을 거부할 수 없는 것으로 인식하고, 이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것이다. 이는 신체적 쇠약이 가속화되는 현상을 부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 이렇게 자신의 신체적인 변화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때, 노년의 삶이 긍정적으로 변화할 수 있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참여자 2와 5는 ‘나이듦’을 ‘자유로움’이라는 표현으로 젊었을 때의 고생에서 벗어남과 동시에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삶이라고 인식하고 있다. 그리고 ‘노인’이라는 인식 자체가 스스로 자신감도 없어지고 도전하고 싶은 마음을 무너뜨리게 되었다고 했는데 이런 깨달음 역시 시간이 흘러 70세가 넘어가서야 알게 되었다고 한다. 특히 참여자 2는 늙어가는 것은 즐거울 수 없고, 앞으로 삶에 대한 ‘희망’ 이라기보다는 삶 자체가 ‘희망’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다.

“사회적 책임에서 가족 책임에서 자유로워지는 때가 노년인 것 같아.

자기 마음먹기 때문에 우주와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가 노년이야 젊었을 때는 우주와 소통이 잘 안 돼. 세상을 관조할 수 없지. 이 지구상의 아름다움 경이로움 느끼면서 충분히 감사가 있어.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살았으면 해. 주어진 인생을 살아왔다는 자체에 감사해. 여러 가지 사건, 사고로 죽을 수도 있는데..... 이 나이까지 살아왔다는 것 자체에 주는 축복은 누구도 나눌 수 없다. 노년에 정서의 상태 ‘자유로움’이야. 이러한 자유로움을 즐기고 감사하는 것이 성공적 노화지“ (참여자 2)

“옛날에는 60세 들면 죽을 날만 생각했어. 지금은 살기 좋으니까. 사실 60세 넘어

가니까 한해 두해가 틀려. 여기저리 아프고 그래. 젊을 때 너무 고생을 많이 했어. 그래서 그 보람을 지금에야 느끼고 있지. 내가 하고 싶은 일 하면서 자유롭게 살면서 남에게 피해주지 않고 나름대로 잘 살고 보람을 느낀다. 젊을 때 진짜 고생 많이 했다. 이쁘게 늙어가는 사람 보면 부럽지. 그건 그 사람 취향이고 남들이 호화스럽게 산다고 부럽지는 않아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살아가시는 분 보면 제일 따라하고 싶지” (참여자 5)

특히 참여자 4 는 지금 죽어도 후회 없이 잘 살아왔고 지금 모든 것이 만족스럽다는 표현을 하고 있다.

“난 지금 모든 것이 만족해. 이 정도면 후회 없이 잘 살았지. 내일 죽어도 후회없어. 미련 없고 이만큼 살면 잘 살았다고 생각하지. 내가 남편이랑 7살 차이가 나거든. 3년 전에 사별했는데..... 남편이 60대 접어드니까. 모든 사업규모와 주변 일을 하나하나 줄이고 정리를 하더라구. 그때는 이해가 안 되었는데 내가 70세가 되어보니 모든 것들이 이해가 되고 삶이 달라 보이고 관조적으로 감사하게 되네.”

(참여자 4)

참여자 6 은 ‘나이듦’에 대한 인식 자체를 하지 않음으로써 종교의 힘으로 ‘나이듦’에 대한 인식을 조절하고 있고 주변에서 외적으로 늙지 않았다는 말에 힘을 얻는 모습을 볼 수 있다. 그리고 참여자 8은 ‘나이듦’을 자연스러운 현상이고 당연한 순리임을 강조하고 있다.

“난 내가 나이 들었다고 생각 안 해. 깜박 잊어. 내가 잊어버릴 때가 많아. 하하하 신앙의 힘이 있지. 아침 새벽기도가고 주일에 좋은 말씀 듣고..... 오늘도 잔치 집에 갔는데..... 늙지 않는다고. 어떤 사람이 오늘 TV에 나온 70세 할망보다 더 젊다고 하는데..... 어디 가도 늙었다는 소리 안 들어.“ (참여자 6)

“나이 드는 거..... 자연스러운 거 아닌가? 나무에 잎새가 나고 계절이 바뀌면 낙엽이 지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누구나 자연스런 것이 나이 드는 것이 아닌가?”

(참여자 8)

참여자 10은 좋은 약 먹고 오래 살아 자식들에게 고통을 주느니 80세까지만 살다가 가고 싶다는 마음으로 오래 살고 싶지 않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문화센터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는 참여자 11의 경우는 ‘나이’의 기준을 65세로 정하기에 ‘나이듦’의 표현을 하기에 부적절한 것이며 노인의 기준을 75세 정도로 늦춰야 한다는 인식을 하고 있다. 그리고 참여자 12 역시 부정할 수 없는 현실 ‘나이듦’을 받아들이면서 주어진 삶에 대한 감사함을 가지고 있다.

“‘나이듦’에 대한 생각..... 받아들이기도 하지만 벌써 이렇게 나이가 들었나 하는 생각도 들고. 갑자기 나이가 든 것 같아서 마음이 좀 그렇지만 그냥 받아들이자. 즐겁게 살자..... 하는 생각만 해.근데 난 오래 살고 싶지 않아. 요즘 100세 시대라고 이야기하는데.....좋은 약 먹고 이려고 사는 거 싫어. 오래 살면 자식들에게 고통을 주잖아. 80세까지만 살다 갈 거야“

(참여자 10)

“65세는 노인도 아니야. 요즘 정신적, 육체적으로 얼마나 젊은데..... 한 70세..... 아니다. 70세도 젊어. 내가 다니는 문화센터에 거의 70세가 많은데. 아주 젊어. 75세 정도는 되어야지. 노인이라 불리지. 난 이런 점에서 노인기준을 75세로 늦춰서 예산을 잘 썼으면 좋겠어. 복지에산도 필요한 데 써야지. 무작정 아무나 다 받는 것은 아닌 것 같아.” (참여자 11)

“내 나이가 66살이지만, 굳이 나이듦에 대한 거부할 필요가 있다. 현실을 부정할 수 없잖아. 주어진 삶을 항상 감사하게 살고 있지. 굳이 어떻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현실을 받아들이게 돼.” (참여자 12)

‘나이듦’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 긍정적, 부정형도 아닌 중간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참여자 3, 7, 9는 중간형에 속한다. 참여자 3은 ‘나이듦’이 자연현상이고 받아들이지만 신체적으로 아프지 않고 얼굴에 검버섯 없이 외모상으로 곱게 늙어가고 싶은 마음을 강하게 표현하고 있다. 참여자 3과 9는 ‘나이듦’에 대한 인식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지만, ‘노인’, ‘나이’ 라는 용어에 대한 거부감을 보이고 있다.

“남들도 나보고 ‘노인’이라고 안 불러. 나이 드는 거..... 그냥 자연현상이 아닌가. 곱게 늙어가고 싶어. 얼굴에 검버섯 없이 깨끗하게 늙어가고 싶어.....

나이가 많다는 것은 ‘고령’이잖아. 고령이라고 하면 쇠퇴, 남에게 짐이 되는 것이라고 재앙이라고 생각해. 다른 한편으로는 ‘장수’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은 ‘성공적 축복’이라고 생각해. 그리고 난 ‘노인’이라는 말 싫어. 그런 소리 듣고 싶지 않아” (참여자 3)

“나보고 ‘나이’라고 말하지 말어. 난 누가 물으면 50대라고 이야기해. 나이 많은 사람은 아예 조사 같은 거 안 하는데..... 예전에 뭐 물어보겠다고 조사한다고 전화가 왔었는데.....내 나이를 말했거든. 그러면 아예 조사를 안 하는거야. 이것은 무슨 조사야?” (참여자 9)

또한 참여자 7은 ‘나이듦’으로 인해 용기가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향후 미래의 모습에 있어서는 외적으로 곱게 늙고 싶은 소망을 나타내면서 피부, 허리, 머리 등 외모적인 변화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여주고 있다.

“예전에 용기가 있었는데..... 무슨 일을 할려고 했거든. 나이 드니까..... 용기가 없어졌어. 뭘 할려고 해도 선뜻 용기가 나지 않아. 나이 들면 ‘건강’이지. 내가 어렸을 때, 그때는 다 공부를 많이 안 했잖아. 중학교밖에 안 나왔지만 해녀 일을 했어. 남편 직장이 제주시로 발령나는 바람에 같이 왔지. 건강하니까..... 이렇게 나와서 일하고, 아무래도 곱게 늙은 사람. 피부도 곱고 허리도 굽지 않고 머리도 단정하게 외모상으로 곱게 늙은 사람이 제일 부럽고 나도 저렇게 늙었으면 하지” (참여자 7)

‘나이듦’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 ‘부정형’에 속하는 참여자 1는 강한 부정적 인식을 보여주고 있다.

“나이 들어가니까.....희망이 없어. 나야 지금은 필요한 사람이지. 지금 손주들 보고 있지. 지금 손주녀석들이 내가 필요하지만 손주 녀석들이 크면 내가 도와줄 수 있나? 없지. 그럼, 내가 필요 없을 거 같아.” (참여자 1)

제주여성노인의 ‘나이듦’에 대한 생각은 ‘희망 없다’, ‘후회스럽다’, ‘쇠퇴’, ‘재앙’ 등의 부정적인 단어와 함께 ‘노인’이라는 말이 싫고 ‘선뜻 용기가 나지 않는다’ 등 수동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우주와 소통할 수 있는 기회’, ‘이 나이까지 살아왔다는 것 자체에 감사’, ‘현실을 받아들이자’ 등 제주 특유의 자연환경에서 버텨온 제주여성의 강인함과 순응성을 엿볼 수 있다.

따라서 제주여성노인의 운명론(정광중, 2003)을 살펴볼 수 있는데, 역사적으로 제주여성노인들은 삶에 있어서 큰 변화가 다가오는 것들에 대해서 적극적인 저항도 아니고 적극적인 수용도 아닌 입장을 취했다. 노동과 역사 또는 정치라는 덩어리가 무게를 갖고 다가오는 현상들이 지나갈 때까지 납작 엎드려서 살아온 것이다. 물론 ‘나이듦’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도 강한 거부감보다는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고, 순응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살아가는 과정에 자연스럽게 진행이 되어 만족하려는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다. 이상의 결과를 정리하면 <표 5-2>에 제시되어 있다.

<표 5-2> ‘나이듦’에 대한 인식

범주화	구분	‘나이듦’에 대한 인식내용
긍정형	2	사회적 책임에서 가족 책임에서 자유로워지는 때가 노년인 것 같아
	4	이 정도면 후회 없이 잘 살았어
	5	옛날에는 60세가 되면 죽은 날만 생각했어. 요즘은 살기 좋으니까. 70세 정도 돼야 나이 들었다고 할 수 있지
	6	내가 ‘노인’이라는 거..... 깜박 잊고 살아.
	8	자연스러운 거 아닌가? 나무에 잎새가 나고 계절이 바뀌면 낙엽이 지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10	갑자기 나이 든 것 같아서..... 마음이 좀 그렇지만 그냥 받아들이자. 즐겁게 살자.
	11	65세는 노인도 아니야. 요즘 정신적 육체적으로 얼마나 젊은데..... 75세 정도는 되어야지 노인이라 불리지.
중간형	12	굳이 나이 드는 거 거부하지 않아. 현실을 부정할 수 없잖아. 주어진 삶에 항상 감사해
	3	‘노인’이라는 말 듣고 싶지 않아
	7	나이 드니까..... 용기가 없어졌어.
부정형	9	나한테 ‘나이’라고 말하지 말어. 난 누가 물으면 50대라고 해
	1	‘희망’이 없어.

2) ‘성공적 나이듦’에 대한 인식

(1) 자녀와의 관계

연구참여자의 ‘자녀와의 관계’에 대한 인식내용을 ‘독립형’, ‘상황형’, ‘의존형’으로 범주화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제주여성노인의 ‘자녀와의 관계’에서 ‘독립형’에 속하는 참여자 3은 자식 도움 없이 독립적인 생활을 보여주고 있고, 참여자 4는 자녀들이 같은 아파트에 살아도 스스로 먼저 자녀들 집 현관문을 열어 들여다보지 않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참여자 5와 10은 자식들에게 의지하지 말고 독립적으로 살아가고 있으며 특히 당신들이 살아갈 돈을 조금 남기고, 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자녀들에게 미리 나눠주었다.

“마음 터놓고 이야기할 자식은 없지만 내 나름대로 자기들이 알아서 사니까.....
자식 도움 없이 잘 살고 있지“(참여자 3)

“지금 아래층 큰 아들 부부, 옆동에 작은 아들 부부가 사는데..... 난 절대로 먼저
아들들 집에 들어가지 않아. 며느리들에게 이야기했어. 너희들이 없는 집에 그리고
특별한 일 없는 한, 난 너희들 집에 안 간다. 난 내 자신이 충분히 열심히 모임에
나가고 열심히 사니까 너희들은 맘 놓고 너희들 일하면서 산다. 내가 먼저 그 현관
문을 스스로 들어가면 아들부부들이 사는 모습 보면 자연스럽게 뭔가 이야기할 것
이고..... 그러니 아예 들여다보지 않는 것으로 스스로 정했다.” (참여자 4)

“자식들에게 짐도 안 되고 피해도 안 주려고 한다. 3년 전에 자식들에게 줄 것 다
주고 정리했다. 이제 남은 인생 활기차게 열심히 살면 되는 것이지” (참여자 5)

“독립성을 가져야 해. 자식들 의지하지 말고 잘 살아야지. 내가 아프면 착한 아들, 며느리. 다
불효자 되거든. 난 일찍 사별했어. 혼자 3남1녀를 키웠어. 힘들었지. 바람 잘난 가지 없다고
아이들이 크면서 내게 큰 고통을 주더라구. 아이들에게 이야기해. ‘돈’이 전부가 아니라고 건
강, 화목이 중요하다고. 그러면 모든 것이 형통하지 큰 아이가 사업하면서 힘들어했거든. 그
일 있는 후에 내가 가진 것을 다 알려주고 자식들에게 줬어. 자식들에게 주고 난 후, 내가
살아갈 돈 조금 남기고..... 자식들에게 이야기해. ‘욕심’ 버리라고. 자식들이 아이들 키울 때
큰 것 없다고 이야기해. 즐거운 추억 많이 만들어주라고 이야기하거든“ (참여자 10)

‘자녀와의 관계’에서 ‘상황형’에 속하는 참여자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참여자
2는 먼저 자녀들에게 도움을 청하지 않지만 자녀들의 도움을 요청하면 언제든지 도
와줄 준비를 하고 있다. 배우자 사별한 참여자 8은 자녀들이 육지에 있지만 자주
연락을 하면서 밀착된 관계를 보이고 있으며, 참여자 11, 12 은 지금은 서로 간섭
안 하는 것이 최고라는 인식을 하고 있지만 자녀들의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경
제적으로나 심적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난 내가 가진 지식, 지혜를 나눠주고 알려주고 싶은데 먼저 이야기 하면 젊은 사
람들이 받아들이지 못하고 잔소리로만 여기니까 절대 먼저 도움을 청하기 전에는

이야기 하지 않아. 만약 먼저 요청하면 진심으로 도와주지. 먼저 말하면 잘 안 통하고 잔소리이고 갈등이 발생하지. 젊은이들과 같이 살려면 절대 강압이나 주장이 없어야 해. 어떨 때는 ‘얼른 죽어버렸으면 좋겠다’하는 생각도 가져. 자식들이 속상할 때 난 자식, 내 문제만으로도 벅차서 누구를 도와주거나 봉사할 여유가 없어. 마음이 넉넉해야 성공적 노화지.” (참여자 2)

“내가 활동을 많이 해서 어디 있나 위치추적은 며느리가 해. 하하..... 하루에 한번 여러번 전화 오거든. 특히 며느리는 내가 어디에 있는지 잘 알고 있어. 아들, 딸 모두 육지에 있어서 나 혼자 살거든. 전화를 자주 해. 기쁘지“ (참여자 8)

“자녀들이 독립하고 자리잡고 있거든. 딸이 4명이고 막내가 아들이야. 아들 내외가 제주도에 사는데 맞벌이 가정이거든. 둘 다 일하니까 내가 도와주고 있지. 아들 내외가 3명 낳았거든. 애국자지. 며느리가 착해. 직장 다니면서고 아이들 3명을 키우는 것 보고 내가 도와 주고 있어. 손주녀석들 봐주고 있지. 경제적으로도 도와주고 있어. 사실 육지에 사는 딸들한테 받은 돈으로 막내 아들에게 조금 도와주고 있어. 하하하..... 내 나이가 있어서 아이들에게 간섭 안 하고 아이들과는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고 말이야 서로 간섭 안 하는 것이 최고야.“ (참여자 11)

“살아오면서 자식위주로 살아왔어. 자녀시대랑 우리시대 다르잖아. 우리는 급급하게 먹고살기에 바빴어. 그냥 주어진대로 살았는데..... 자녀들은 좀 더 나은 세상에서 자라고 있으니.....풍족하잖아. 나름대로 좀 더 높은 삶을 꿈꿨으면 좋고 그래. 나뿐만 아니라 우리세대 모든 사람들이 자식과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는 삶이 되어 버렸어. 아들 하나, 딸 하나 있는데.. 난 아들이 한의대에 들어가 아픈 사람들을 도와줬으면 했거든. 아들은 약대로 들어가더라구. 근데 자기 나름대로 약사되어서도 어려운 사람들 도우면서 강의도 나가고 자기 꿈을 펼쳐나가는데..내 마음대로 잘 되지 않지만 나름대로 잘 살고 있으니 좋지“ (참여자 12)

‘자녀와의 관계’에서 ‘의존형’에 속하는 참여자 1, 9를 살펴보면 자녀와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는 삶을 살고 있는 것으로 보여주고 있다. 참여자 1은 사별한 이후 자녀들에 대한 애착이 커지면서 삶의 의지로 여기고 있고, 참여자 9는 ‘미혼인 딸들의

결혼이 곧 내 삶의 성공'이라는 표현을 함으로써 자녀와의 강한 애착을 보여주고 있다.

“나같이 사별한 사람에게는 자녀와의 관계는 정말 중요해. 자식들에게 의존하게 되고 의지하게 돼. 그러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계속 자식들에게 의지하게 되네..“

(참여자 1)

“내 딸들 시집만 가면 난 다 산 거야. 시집을 안 가서 걱정이지. 시집만 가면 100% 내 삶인데 말이야. 딸들 생각은 시집 가고 싶은 생각이 없는 거지. 난 보내고 싶은 데 말이야.” (참여자 9)

제주여성노인은 ‘자녀와의 관계’에서 전통적으로 분가주의와 자식에게 의존하지 않으려는 강한 독립생활의지가 있다. ‘독립형’에서 제주여성노인의 특징을 살펴볼 수 있지만 ‘상황형’에서 자녀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도와주고 싶은 마음을 표현하고 있고 ‘의존형’에서는 배우자의 부재로 인해 정서적 위안을 자녀와의 관계에서 얻음을 시사하고 있다. 무엇보다 제주여성노인이 혼인한 자녀들과는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생활하고 자녀에게 기대지 않으려는 강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이상의 결과를 정리하면 <표 5-3>과 같다.

<표 5-3> ‘자녀와의 관계’에 대한 인식

구분	구분	‘자녀와의 관계’에 대한 인식내용
독립형	3	자식들 도움 없이 잘 살고 있어. 마음 터놓고 이야기할 자식 없지만 나름대로 자식들이 알아서 살고 있으니깐 절대로 내가 먼저 아들집에 들어가지 않아.
	4	난 열심히 사니까 너희들은 맘 놓고 일하면서 살아라 하지. 자식들 살아가는 모습 들여다보지 않는 것으로 정했어.
	5	자식들에게 짐도 안 되고 피해도 안 주려고 해
	7	자식들 자기분야에서 열심히 일하고 자리 잡고 있지. 자식들보다 남편이 더 좋아
	10	자식들 의지하지 말고 독립성을 가지고 살아야지
상황형	2	내가 가진 지식, 지혜를 자녀들에게 나눠주고 알려주고 싶어 딸이 육지로 시집가서 많이 우울했어.
	6	마음 터 놓고 지낼 자식이 없네. 신앙생활하면서 이겨냈지. 극복해야지.
	8	자녀성공은 곧 내 성공이지. 아직은 내 세대 사람들과 같은 생각하고 있지 아들 내외가 3명을 낳았어. 애국자지.
	11	며느리가 착하고 직장을 다녀서 내가 손주 녀석들 봐주고 있어. 경제적으로 도움도 주고 말이야.
	12	자식과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는 삶이지.
의존형	1	자식들에게 의존하게 되고 의지하게 돼. 그러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계속 자식들에게 의지하게 되네
	9	딸들이 시집을 안 가. 시집만 가면 100% 내 삶인데 말이지.

(2) 자기통제

연구 참여자의 ‘자기통제’에 대한 인식내용을 ‘강’, ‘약’로 범주화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참여자 대부분이 자기통제가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자 2는 내 자신의 욕망은 커가고 그에 비해 몸은 늙어가고 잘 안 따라주는데서 오는 격차를 느낄 때, 스스로 자제력을 가지고 만족감을 가지고 있을 때 성공적 노화라고 여기고 있다.

“남에게 피해를 주지 말아야 해. 건강도 몸과 정신으로 나누어서 생각할 수 있는데 끊임없는 성찰하고 배움을 잃지 않는 열정이 있어야지. 젊은 세대 이해하려고 하고 본인 스스로 자제하고 할려고 하는 힘. 이것이 성공적 노화라고 생각해.

삶에 대해서 좌절하거나 하는 이유가 내가 정신적으로 성숙하지 못하다는 것인데. 정신이 육체를 따라가지 못할 때..... 육체가 늙는 만큼 정신이 성숙하면 좋은데..... 자기욕구에 대한 절제가 제일 중요하지. 지식과 지혜가 많은 현대사회에서는 몸으로 잘 지탱하는 것. 건강이지 뭐.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 마음이 넉넉하게 살아야 하고.“ (참여자 2)

특히 참여자 9, 10에게 나타나는 공통적인 특성은 남에게 피해를 주지 말아야 한다는 생각을 강하게 하고 있다. 남에게 잘못된 것은 없는지 스스로 반성하면서 젊을 때도 생각했지만 특히 나이 들고 보니까, 더욱이 70대 이후에는 마음 정리 하는 방법을 터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난 항상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살아. 누구한테 도움을 주지 못하더라도 피해를 주면 안 되잖아. 남에게 잘못된 것은 없는지..... 항상 돌아보지. 내 마음을 잘 다스리니 여기까지 왔지. 절에도 다니고 운동도 하고 그래“ (참여자 9)

“남에게 피해주지 말자. 젊을 때도 생각했지만 나이들고 보니까..... 더욱 70대 이후 내가 ‘암’에 걸렸거든. 지금은 괜찮은데..... 그 때 이후 모든 것을 정리하게 되더라구. 마음을 비우자. 마음을 비우니 모든 것을 포용하게 되는 마음이 생기더라구. 남을 사랑하게 되는 거지. 지금도 아침 운동하러 가면 거기 있는 사람들과 차 한잔 마시거든. 그런 이야기해. 마음 비우고 살자고. 마음 비우면 포용해지고 진짜 사랑을 하게 된다고 그러면 건강해지고 활기차고 웃게 되지. 그러면 주름도 없어지고 말이야. 열심히 건강하게 살거야“ (참여자 10)

그리고 참여자 4, 8, 11은 제주 특유의 자연환경에서의 산책과 운동으로 건강을 유지하면서 종교를 통해 마음을 다스리면서 자기관리를 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연구참여자 12는 불교신자로서 절에 자주 가지는 못하지만 매일 새벽 수영장에서 레이스를 돌면서 스스로 수행한다고, 불공드린다고 생각하면서 마음 속

으로 내가 가진 것에 대한 감사함을 가지고 있다.

“늙으면 어느 종교든지 상관없이 사이비 빼고 정통교에 들어갈 필요가 있어. 사람은 원래 약한 존재야. 의지도 약하고 종교적 믿음이 있으면 삶 대해 감사하고 절대자에 대한 신념, 감사하는 마음이 저절로 생겨. 그래서 주변 후배나 친구들에게 이야기 하지. 종교를 꼭 가지라고. 난 70대 접어드니까 삶에 대해 종교에 대해 모든 것들이 다르게 보이더라구. 내 자신이 최선을 다해서 살아왔기에 남들 부럽거나 저렇게 살았으면 하는 거 없어. 남들 부러워하거나 이상 더 바라면 자괴감만 생겨. 긍정적으로 지금 이 상황이 너무 만족스럽고 감사해. 앞으로의 희망보다는 지금 현재 이 순간에 감사하고 희망을 가지고 있지. 무언이가를 배우기보다 내 삶 자체에서 주변 사람들이 뭔가 배우고 있지. 후배들이 자주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구. 나 본받고 싶다고. 나처럼 늙고 싶다고. 자식들 중 불행한 자식도 있지만 다들 성인이고 열심히 사니까. 걱정 안해.. 나름대로 자기 자리에서 열심히 살아가니까.. 운동도 너무 많이 하지 않고 내일 운동하고 싶은 마음 있을 정도로만 하지. 70% 정도만 운동하지. 매일매일 꾸준히..... 그래서 지금 이렇게 건강을 유지하는 것 같아.“ (참여자 4)

“마음을 다스리는 것. 내가 29살 때 결혼해서 33살 때 남편과 사별했거든. 남편이 떠난 이후 ‘마음’ 다스리는 일은 내 삶이 되어버렸어. 종교에 대한 믿음은 강하지 않지만 ‘신’의 존재에 대한 믿음은 있어. 젊을 때부터 마음을 다스려서..... 지금 이렇게 잘 살고 있지 않을까. 항상 마음을 다스릴려고 노력했어.” (참여자 8)

“아침 운동 1시간 30분 정도 하거든. 제주도 산책길 잘 되어 있어 40분 걷고 스트레칭하고 공원에 있는 운동기구가 12개 있거든. 그거 다 하고 나면 40-50분 되지. 난 성당에 다녀. 삶에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종교가 있으니 삶이 항상 긍정적이야.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고 있어. 지금 삶이 너무 좋지“ (참여자 11)

“난 내 안의 ‘나’를 찾으려고 노력해.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하고 말이야 큰 욕심 없어. 모든 삶이 감사해. 우리 집 앞에 정신지체아가 살아. 아침 등굣길에 항상 마주치는데..... 내가 가진 것들이 너무 고맙고 감사하게 느껴지더라구.

새벽에 항상 수영하러 가거든. 불교라서 절에 항상 가지 못하지만.. 매일 아침 수영 하면서 수행한다고, 불공드린다고 생각해. 내 생활이 별거 없어. 바보 같은 삶 같기도 하고..... 그렇지만, 바로 이것이구나. 하루 하루 일상에서 마음을 내려놓고 사는 거 말이야.“ (참여자 12)

제주여성노인이 인식하는 자기통제는 자기욕구에 대한 절제를 가지면서 스스로 자제력을 가지고 삶의 만족감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연구참여자들에게서 제주여성노인의 정신적 강인함을 엿볼 수 있으며 자기통제와 연결되어 이해할 수 있다. 이상의 결과를 정리하면 <표 5-4>와 같다.

<표 5-4> ‘자기통제’에 대한 인식

범주화	구분	‘자기통제’에 대한 인식내용
자기통제 강	2	자기욕구에 대한 절제가 제일 중요하지
	3	지금 내 모습 좋아. 종교적 믿음으로 항상 감사하면서 살아
	4	무엇보다 아침에 일어나면 화장하고 예쁜 옷 입고 하루를 시작해 요즘 젊은이들 노력 안 하고 편하게 살려고 해.
	5	고생을 안 할려고 해서 안타까워. 난 젊었을 때 고생을 너무 많이 해서. 지금은 보람 있어.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살아
	6	새벽기도에 꼭 나가. 성경책을 그동안 7권을 읽었어. 매번 읽을 때마다 새로워.
	7	일부러 밖에 나와서 일을 하고 있어. 집에 있으면 공상, 망상..... 생각만 많아져.
	8	내가 29살 결혼해서 33살 때 남편과 사별했거든. 남편 떠난 후 ‘마음’ 다스리는 일은 내 삶이 되어버렸어.
	9	남에게 잘못된 것은 없는지 항상 내 자신을 되돌아보지 남에게 피해를 주지 말자. 젊을 때도 같은 생각했지만.....
	10	70대 이후 ‘암’에 걸리고 난 후, 지금은 괜찮아졌는데..... 그 때 이후 모든 것을 정리하게 되더라구.
	11	성당 다니고 있어. 종교가 있으니까 삶이 항상 긍정적이야 내안의 ‘나’를 찾으려고 노력해.
	12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하고 말이야
	자기통제 약	1

(3) 사회적 활동 및 지지

‘사회적 활동 및 지지’에 대한 인식 내용을 ‘적극형’, ‘중간형’, ‘소극형’으로 범주화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연구참여자 대부분이 ‘사회적 활동 및 지지’의 ‘적극형’이 나타났다. 현재 직업이 있는 참여자 7, 8에서 알 수 있듯이 집에서 벗어나 밖으로 나와서 일을 하니까 삶의 활력을 느끼고 기분이 좋다는 표현을 하고 있다.

“난 치매가 무서워. 걸리고 싶지 않아. 허리 굽은 할망구 보면 난 저러면 안 되는데. 집에 있으면 공상, 망상..생각이 많아져서 치매 걸릴 것 같아. 일부러 밖으로 나와서 일도 하니까. 사람이 활기차고 마음이 상쾌해. 기분이 너무 좋아. 일거리가 있어야 해.“ (참여자 7)

반면, 참여자 9와 10은 70대에 들어서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해왔던 것들은 내려놓고 여고모임 등 친목모임에만 꾸준히 나가서 친구들과의 만남을 통한 삶의 활력을 느끼고 있다.

“여러 가지 활동은 잘 못하지만 모임은 꾸준히 잘 나가. 나갔다고 하면 좋아. 가장 중요한 것 같아. 가서 친구들 만나서 이야기 나누고 오면 너무 좋아. 친구들이랑 그런 이야기 많이 해. 자식들에게 절대 의존하지 말고 살자고 말이야. 절대 피해주지 말고 살자고. 난 내 친구들랑 시간이 있을 때 여행을 가거든. 자식들이랑 안 가. 친구들이랑 갈 때 너무 좋아. 시간날 때 마다 가까운 곳이라도 꼭 여행을 가. 재밌어. 현재 삶 즐겁고 좋지“ (참여자 9)

“모임 나가지. 예전에 활동 많이 했는데..지금은 젊은 사람들에게 주고 나왔지. 여고모임 60년 이상 되었어. 그 친구들 만나고 오면 너무 좋아”(참여자 10)

그리고 참여자 2 는 아버지가 등록금을 주지 않아 대학교를 중퇴함으로써 학자의 길이나 언론인으로서의 길을 가지 못해 지금의 활동범위가 넓지 못한 데에 대한 아쉬움이 강하다. 참여자 11는 문화센터 중창단 활동을 하면서 활력을 느끼고 있는데

이러한 활동 또한 80세가 되면 스스로 나가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꾸준히 한 길을 걸어서 한 사회, 국가에 도움이 된 사람 보면 부럽고 저렇게 살았으면 좋다고 생각하지. 나도 저럴 수 있었을텐데..... 대학교 때 등록금이 없어서 아버지가 등록금을 주지 않아서 중퇴했지. 제주대학교 영문학과를..... 그 때 졸업했으면 학자나 언론계에 종사했을텐데..... 제주도 시대적 상황이라든지, 가족적 문제 때문에 내꿈을 펼치지 못해서 아쉽지. 현재 수필강좌를 열심히 배우면서 현재 살아있다는 삶 자체에 대한 감사함을 가지고 즐겁게 나아가고 있어. 수필을 배우고 있고.. 수필관련 문학 관련 모임에 꾸준히 나가고 있지. 작가의 길을 가고 있는...학자나 언론에서 일할 수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지. 시대적 상황, 가족적 문제로 인해 배움의 길 못 걸었어.” (참여자 2)

“봉사활동은 못 나가고 친목모임은 한 달이 7-8번 있거든. 그리고 설문대 센터에서 중창단 활동을 해. 일주일 1번 1시간 노래하고 1시간 운동하고 오면 상쾌해. 여러 사람 만나고 오면 좋고. 중창단 생긴 지는 몇 십년 되었는데...난 7년동안 활동했어. 거의 70대 중반이지. 80세 넘어가면 스스로 그만두드라구.” (참여자 11)

그러나 ‘사회적 활동 및 지지’의 ‘중간형’인 참여자 1, 8는 모임에 나가 사람들과 어울리는, 사회적 활동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이듦’에 의한 신체적 노화로 인해 자신감이 없어서 마음은 있지만 행동으로는 잘 안 되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

“사람들이랑 잘 어울려야 하고 하는거 잘 아는데.. 모임에도 나가고 사회활동해야 한다는 거 아는데..... 내 몸이 아프니까 자신감이 없어서. 일단 나이가 드니 자신감이 없어지네. 마음은 앞으로 계속 활동하고 싶은데 말이야.” (참여자 1)

“틈틈이 학교 관리 이사 일을 하니까 활력이 되고 있어. 젊을 때부터 학교 개교 일 때부터 도왔던 일이라서 지금은 봉급은 받지 않지만 학교에 행사가 있거나 재단에 서 사람이 왔을 때 내가 나가서 도와주지.” (참여자 8)

‘사회적 활동 및 지지’의 ‘소극형’을 보여주고 있는 참여자 12는 음식업에 종사하는 일 성격상 하루 종일 시간이 필요한 일이기에 자주 모임에 나가지는 않지만 한 명이라고 진실된 만남이 있으면 이에 대한 만족을 느끼고 있다.

“난 자주 모임에는 안 나가. 난 여러 명 사귀는 것보다 1명이라도 ‘나’를 보여주고 받아들여주는 그런 사람을 만나거든. 자식들에게도 그렇게 말해...한 사람이라도 진실 되게 믿음 있게 만나라고 말이야.” (참여자 12)

제주여성노인이 인식하는 ‘사회적 활동 및 지지’에 관한 인식은 참여자 대부분이 ‘적극형’에 속하여 사회적 활동의 중요성을 강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친목모임 활동, 직업 활동 등 사회적 교류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자 하는 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제주여성노인은 사회구성원으로서 사회적 활동에 참여를 중요한 것으로 생각하였으나 ‘중간형’에서 보여주듯이 사회적 활동이 참여하는데 신체적 건강이라는 조건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건강기능의 회복에 따른 지속적 사회적 활동의 참여를 강조하고 있다. 이상의 결과는 <표 5-5>와 같다.

<표 5-5> ‘사회적 활동 및 지지’에 대한 인식

범주화	구분	‘사회적 활동 및 지지’에 대한 인식내용	
적극형	2	수필 관련 문학 모임에 꾸준히 나가고 있지	
	3	꾸준히 일을 하고 있으니까 늙지 않아. 아픈 곳도 없고 활동적으로 일하고 좋아	
	4	난 모임이 많아. 친구들, 후배들..... 맛있는 거 먹고 사는 이야기하고 오지	
	5	몸이 허락하는 한 지금 하는 일(숙박일) 계속 하고 싶어. 항상 노력하고 있지	
	6	목요일마다 교회에 나가서 200명분 밥을 만들어. 일이 힘들지만 재미있어	
	7	예전에 해녀일 했는데 지금은 남편 따라 제주시에 왔지. 용역일 하고 있으니 좋아	
	9	친구들 모임에 나가서 이야기 나누고 오면 좋아. 친구들이랑 자식들에게 절대 의존하지 말고 살자고 이야기해	
	10	예전에 모임이 많았는데..... 지금은 여고 모임 60년 이상 됐지. 친구들 만나고 오면 너무 좋아.	
	11	센터에서 중창단 활동을 해. 여러 사람 만나면 기분이 좋아	
	중간형	1	사람들이랑 어울리면서 살아야해. 사회활동 해야 한다는 거 아는데..... 몸이 아프니까 자신감이 없어져
		8	모임 중요하지. 나이 드니까 허리 아프고 무릎 연골이 다 돼서. 모임에 잘 못 나가.
소극형	12	난 모임에 자주 안 나가. 여러 명 만나는 것보다 한명이라도 ‘나’를 보여주고 받아들여주는 그런 사람을 만나거든.	

(4) 가족지향

‘가족지향’에 대한 인식내용을 ‘구속형’, ‘자유형’으로 범주화하여 구체적으로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제주여성노인의 ‘가족지향’에 있어서 ‘구속형’을 보여주는 참여자 1은 자녀들이 건강상 아픔을 겪는 것을 경험함으로써 우울증을 겪었다고 하였다. 우울증으로 인한 상처를 가족에게 위로와 힘을 얻음으로써 가족에 대한 강한 유대를 보여주고 있다. 또한 참여자 1, 8은 자녀에 대한 기대가 손자에게 전이가 되어 손자들이 어떻게 크고 잘 활동하고 있는지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자식들이 건강하면 나도 행복해. 요즘 자식들 하나하나 아프니까 내가 우울증에

걸렸어. 자식들이 일도 잘 풀리고 하면 내가 성공한 것 같고 그래. 자식들이 하는 일이 잘 안 되거나 몸이 어디 아프다고 하면 내 마음이 무거워. 무섭고 두렵고 우울해지지..근데 모임에 나가면 손주들 자랑을 하는데..... 나도 자랑을 하게 되지. 손주녀석들이 공부도 잘했으면 좋겠고. 자식들 다 크니 이제 손주 녀석들이 잘 되었으면 좋겠어.” (참여자 1)

“ 자녀성공은 곧 내 성공이다. 아직은 내 세대 사람들 같은 생각이지. 내게 희망이라..... 이제 자식에서 손자가 희망이야. 손자들이 어떻게 클까 하는 기대도 되고 어떤 작품이 나올까 희망을 가게 돼.” (참여자 8)

참여자 대부분이 ‘가족지향’에 있어서 ‘자유형’을 보여주고 있는데, 참여자 6, 7은 다른 가족구성원보다는 배우자의 지지를 받음으로써 동반자적 삶을 사는 것에 대한 만족을 보여주고 있다.

“내가 병원 입원한 적이 없어. 그거 하나만으로 내가 참 잘 살아온 거 같아. 자녀들이 자기 자리에서 잘 살고 있으니까. 그리고 남편과 동행하면서 사니까..참 잘 살고 있지“ (참여자 6)

“아무래도 자식들이 자기 분야에서 열심히 일하고 자리 잡아 있지. 무엇보다 내 남편이 너무 나한테 잘해. 이렇게 아프지 않고 남편이랑 같이 살고 있고 여기 와서 일도 하니까 잘 살아왔지” (참여자 7)

참여자 3, 4, 8은 자녀들이 건강하게 각자 자리에서 잘 살고 있고 걱정거리를 안 만들어주는 거 등이 최고라고 여기고 있다.

“자녀들이 건강하게 잘 성장하고 있는 거 볼 때. 자기 자리 잡고 아프지 않고 잘 지내고 있는 모습 보면 내가 참 잘 살아왔다고 할 수 있지.” (참여자 3)

“ 자식들에게 걱정거리 안 만들어주는 거..... 이것도 최고야. 너희들은 너희들이 알아서 열심히 살아야. 난..절대 너희들에게 짐이 되지 않게 사니까. 자식들이 워낙 바

뿐 애들이라 오라가라 간섭도 안 하고 시간 많은 내가 한바퀴 쪽 돌면 애들 다 보니까..... 다행히 남편이 살아있을 때 자식들을 곁에 두고 싶어. 자식들이 의대 나와 고향에 와서 내 곁에 있어. 모두 감사하지.“ (참여자 4)

참여자 9, 11은 제주여성노인의 자립성을 강하게 보여주고 있는데, 자신의 도움을 최대한으로 자녀들에게 주고 서로에게 피해주지 말아야 한다는 생각이 강하다. 혼자 살 수 있을 때까지 혼자 살 것이며 실령 아파도 요양원에 가지 자녀들에게 의지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하고 있다.

“요새 시아버지, 시어머니 안 모시겠다고 다투는 드라마 있잖아. 난 자식들 욕 안 해. 오히려 어머니 자신이 돌아봐야지. 자식들에게 피해주면 안 돼. 혼자 살 수 있을 때까지 혼자 살 거야. 모임에 나가서 친구들도 그렇게 이야기해” (참여자 9)

“제주도 여성들은 어릴 적부터 보고자라는 것이 있어서 독립적이 되었는지 모르지만 자녀들이 고생하는 것 보면 경제적으로 도와주고 싶어. 내가 지금 살 정도는 되니까. 근데 난 내가 아파도 요양원에 가지 자녀들에게 의지 하지 않을거야. 서로가 힘들게 하지 않을거야. 내 능력이 되는대로 자녀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어“ (참여자 11)

참여자 12는 매일 수행하는 마음으로 가족들을 위한 기도를 하고 있으며, 특히 며느리의 고생을 안타까워하면서 그 힘들 속에서도 긍정을 찾아내는 내적인 힘을 볼 수 있다.

“매일 아침 수영을 하면서 마음속으로 아들, 딸, 손주들..... 가족들을 위해 기도해. 하루 따뜻한 밥을 만들면서도 이것이 ‘불공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정성스럽게 해. 며느리에게도 이야기해. 아이들 키우면서 힘들어하더라구. 내가 이야기하지 ‘힘듦’ 속에서 ‘나’를 찾고 그 ‘힘듦’을 즐기고 항상 감사하면서 살자고 말이야. 정말 며느리가 고생 많이해.“ (참여자 12)

제주여성노인이 인식하는 ‘가족지향’에 대한 인식은 ‘자유형’ 성격이 강하여 서로

에게 관심은 있지만 구속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즉, 사회 구성원보다는 가족 내의 구성원인 남편, 자녀, 손자녀 등에 관심이 집중되어 서로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면서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강하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다. 가족과 긍정적인 상호호혜적 관계 및 긴밀한 유대를 유지하고 이를 통한 만족과 가족 관점에서 본 ‘가족지향’에서 제주여성노인은 가족생활이 상당히 성공적이었으며 이에 감사하다고 평가하는 가족중심적인 면을 보여주고 있다. 이상의 결과는 <표 5-6>과 같다.

<표 5-6> ‘가족지향’에 대한 인식

범주화	구분	‘가족지향’에 대한 인식내용
구속형	1	딸이 일을 하고 있으니 손주 녀석들 돌보고 있지. 자식들이 크니 이제는 손주 녀석들이 잘 되었으면 좋겠어.
	2	특별히 다른 사람들에 대한 여유, 봉사활동 할 수 없어. 내 자신문제와 가족 문제 챙기는 것만으로도 벅차거든
	8	이제는 손자가 내 희망이야. 손자들이 어떻게 클까 하는 기대도 되고 어떤 작품이 나올까 희망을 가지게 돼.
	3	자식들이 아프지 않고 잘 지내는 모습 보면 내가 참 잘 살아왔다고 느껴져.
	4	자식들에게 걱정거리 안 만들어주는 거 중요해. 자식들이 고향에 와서 내 곁에 살고 있으니..... 모두 감사하지.
	5	3년 전에 자식들에게 재산 줄 것 다 주고 정리했어. 이제 남은 인생 활기차게 남편이랑 열심히 살면 되는 거지.
	6	자녀들이 자기 자리에서 잘 살고 있어. 그리고 남편과 동행하면서 사니까 참 잘 살고 있지.
자유형	7	아프지 않고 남편이랑 같이 살고 있으니 잘 살아왔지. 요즘 시아버지, 시어머니 안 모시겠다고 다투는 드라마 있잖아.
	9	난 자식들 욕 안 해. 오히려 어머니 자신 스스로 돌아봐야지. 자식들에게 피해주면 안 돼. 큰 아이가 사업하면서 힘들어했어.
	10	그래서 내가 가진 재산 중 내가 살아갈 돈 조금 남기고 자식들에게 줬어. 그리고 자식들에게 용돈을 주라고 했어. 자발적으로 용돈을 챙겨주더라구. 너무 좋아. 행복해. 내 능력이 허락하는 한 자녀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어.
	11	근데 난 내가 아파도 요양원에 가지 자녀들에게 의지 하지 않을거야. 서로 힘들게 하지 않을거야
	12	매일 아침 수영하면서 수행해. 레이스 돌때마다 마음속으로 아들, 딸, 손주들.. 가족들 위해 기도를 하지. 따뜻한 밥 만들면서도 가족을 위 해 정성스럽게 하지

(5) 자기효능

‘자기효능’에 대한 인식 내용을 ‘자기계발형’, ‘봉사형’으로 범주화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자기효능에 있어서 ‘자기계발형’에 속하는 연구참여자 1은 현대 통신문화 주류인 ‘카톡’에 대한 관심과 중국어 배움에 대한 열정을 보여주고 있다. 연구참여자 10은 15년 이상 일어를 배우면서 젊은 사람들에게 좋은 모델이 되기 위해 더 노력을 하게 된다는 면에서 자신의 능력에 대한 강한 확신을 보여주고 있다.

“‘카톡’ 하는 방법 알고 싶어. 친구들 모임에 나갔더니 ‘카톡’ 안한다고 구박을 주는데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 핸드폰도 구식이라서 바꾸려 가야겠어. 중국어도 배우고 싶어. 공짜로 배워주는 곳이 있긴 하는데..... 지금 손주녀석들 돌보랴 배우고 싶어도 배울 시간이 나지 않네. 어린이집에서 3-4시간 아이 돌보는 일 하고 싶어. 그냥 점심값, 차비 정도만 줘도 좋지. 일하고 싶어. 나라에서 일자리를 만들어줬으면 좋겠어” (참여자 1)

“난 일어학원 다니거든. 동사무소에서 하는 일어공부를 하는데 15년 이상 됐어 그 중에 내가 나이가 많아. 그래서 더욱 젊은 사람들에게 본보기 되기 위해 내가 더 노력하게 돼. 젊은 사람을 자극하게..... 하하하
옛날에 가이드나 할까 했는데 요즘은 치매 안 걸리려고 열심히 외국어 공부하고 있어. 영어도 할러다가 헛갈릴까봐 일어만 열심히 하고 있어. 재밌어“ (참여자 10)

반면, 참여자 3은 어디 가서 뭘 배우기보다는 현재의 삶에서 뭘 배우고 깨닫는 것이 좋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다른 사람보다 건강하게 잘 사니까 성공적이지 않은가. 외모적으로 노인이란 소리 듣지 않으니까. 그리고 정신적으로도 건강하고, 이렇게 활동적으로 일하고 있으니까 건강하게 잘 살고 있다고 할 수 있지. 이 모습 그대로 유지하는 것. 어디 나가면 ‘노인’이란 소리 안 듣거든. 꾸준히 활동하고 있으니까 이 모습 그대로 유지 하는 거 같아. 그리고 어디가서 뭘 배우기보다는 지금 이 삶에서 살아가면서 뭘 배우

고 깨닫는 것이 좋지“ (참여자 3)

“ 난 죽음이 두렵지 않아. 매사 긍정적이지. 성당에 가서 기도드리고 오면 살아있는 것이 감사해. 하루하루 감사하면서 살아.” (참여자 11)

참여자 2, 4, 5, 9는 외모 단정, 꾸준한 운동, 성경책 독경, 외국어 공부, 베풀면서 살아가는 삶 등 생산적 활동을 통한 자기효능을 보여주고 있다. 몸을 계속 움직임으로써 노화를 예방할 수 있으며, 건강유지, 보존이 가능함을 보여주고 있어 제주여성노인의 특징을 엿볼 수 있다.

“다른 외적인 성취(지위, 재산, 명성)보다는 정신적으로 현재 내 자신의 삶에 대해 감사함을 느낀다는 것에 대해 감사. 늙는다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지금 내가 그래. 그래서 성공적으로 나이들었다고 할 수 있지 않을까? 감사면에서 자신의 노화를 받아들이면서는 성공적이라고 할 수 있지“ (참여자 2)

“욕심 부리지 않고 주어진 상황에 만족하면서 살아야겠지. 자기관리 잘하고 말이야. 난 아침에 일어나면 화장, 머리, 옷부터 단장 꼭 하고 다녀. 우리 집에 가끔씩 머무는 친척 분들 오면 내가 하는 모습 보면 어디 가냐고 물어보지. 아침 일어나서 하는 일이 꼭 내 외적인 모습을 단장을 하는 거야. 그러면 정신 바짝 차리게 되고 하루가 산뜻하거든. 그냥 갈 곳 없다고 세수도 안 하고 머리도 안 빗고..... 화장도 안 하고 그럼 안 돼. 자기관리가 최고야. 난 항상 노력한다. 열심히 노력한다.“

(참여자 4)

“운동헬스클럽도 10년이 넘었다. 모텔 운영이 하루 종일 일하는 것이라. 남편과 아주머니 1분 그리고 나 하루 시간 내기 힘들지만 틈나는 대로..... 헬스클럽에 와서 수영도 하고 헬스도 하고 간다. 언제나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산다.

요즘 젊은이들은 노력을 안 하고 편하게만 살려고 한다. 고생을 안 할려고 한다.

안타까워. 난 젊었을때 너무 고생을 많이 해서 지금은 보람 있다.“ (참여자 5)

“내가 노래 배우러 여성회관에 가거든. 글도 쓰고 마음은 많은 것을 배우고 싶은데 몸이 아파서 잘 안 따라주네. 근데..... 제주도 나 같은 사람들이 갈 수 있는 곳이

많지 않아 가더라도 공간이 너무 좁아. 시설이 좋은 곳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어.
자식들 공부 다 시키고 건강하고 친구들이랑 재밌게 놀러가는거..너무 좋아.“

(참여자 9)

‘자기효능’에 있어서 ‘봉사형’에 속하는 참여자 6과 12은 어디에 가든지 그곳에 가서 평화를 주고 기쁨을 주는 존재가 되고 다가올 죽음도 두렵지 않아 성당에 가서 열심히 기도드리고 오면 살아있다는 것에 감사함을 느끼고 있다. 종교를 통해 자신의 능력과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보다 적극적이며 능동적으로 봉사하면서 결국 성공적 노화에 이르게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긍정적 사고를 해야해. 기도하면서 안 되는 일이 있어. 어쩔 수 없어. 억지로 되는 일은 없어. 근데 ‘진심’을 가지고 살면 이루어져. 항상 ‘진심’을 가지고 살아가야 해 그런 사람 참 드물어. 그지..... 어느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더라구..

사람들보면서 억으로 바라보면 된다고. 사람마다 못난 면이 있거든. 난 저렇게 하지 말아야지 하면서 살게 되지. 내가 어디가든 ‘피스메이커’가 되어야해. 내가 어디가면 그 곳에 가서 평화를 주고 기쁨을 주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고 했어.

종교는 내게 큰 힘이야. 새벽에 일어나 열심히 기도하고. 71세 권사 은퇴한 이후 성경책을 7권이나 다 읽었지. 매번 읽으면서 새로워. 중요한 것을 밑줄 긋지만.....

매번 읽으면서 새로워..하루에 10장씩 읽을 때도 있어. 보통 1-5장 읽지

가끔 나도 우울할 때 있어. 딸이 육지로 시집가서 참 우울했지.

마음 터놓고 지낼 자식이 없어. 참 우울했지. 종교적으로 많이 극복했지. 그리고 극복해야 해. TV에서 기독교 방송에서 항상 좋은 말씀 많이 해. 그래서 좋아.“

(참여자 6)

“ 자식들 도움 없이 생활할 수 있는 돈 있어야 하는 것은 절대적이야. 너무 중요하지. 힘들고 고생 많이 했어.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 ‘잠시’ 인 것 같고. 잘 살아왔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돼. 지금 자식들 도움 없이 생활할 수 있는 돈이 있어서 고맙고 감사해. 난 내 몸이 허락하는 한 일을 계속 할 거야. 어느 정도 하고 나면 앞으로 삶은..... 뭐 다들 여행 다니라고 하지만 여행은 하루 이틀이면 되구. 내가 필요한 곳에 가서 도와주고 싶어. 봉사라고 하면 거창하고. 나보다 낮은 곳에 있는 사람

들, 약한 사람들을 찾아서 내가 받은 것들을 베풀면서 살고 싶어. 베풀면서 살아가는 것이 행복한 삶인 것 같아.” (참여자 12)

제주여성노인이 인식하는 ‘자기효능’에 대해서는 앞으로의 남은 삶에 대한 희망, 감사함을 가지고 있다. 배움에 대한 열망이 강한 ‘자기계발형’과 좀 더 어려운 사람들에게 베푸는 삶과 봉사활동을 통해 자신을 키우고 있는 ‘봉사형’으로 설명할 수 있다. 특히 제주여성노인이 역사적 배경과 지형 그리고 유교문화의 영향으로 가정을 이끄는 주체자가 되어 열심히 일하게 되었으며(이경희, 1997), 늙어도 일하는 생활이 굳어져 버린 것이 결국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되는 생활양식의 일부분이 되고 있음을 ‘자기계발형’에서 보여주고 있다. 이상의 결과는 <표 5-7>에 제시되어 있다.

<표 5-7> ‘자기효능’에 대한 인식

범주화	구분	‘자기효능’에 대한 인식내용
자기개발형	1	‘카톡’ 하고 싶어. 모임에 나갔더니 친구들이 ‘카톡’ 안 한다고 구박을 주는데..... 중국어도 배우고 싶어.
	2	다른 외적인 재산, 명정보다는 정신적으로 성숙해진 내 자신이 고마워. 현재 내 자신의 삶에 대해 감사하고 늙고 있다는 것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있지
	3	어디 가서 뭘 배우기보다는 현재 내 삶 살아가면서 뭔가 배우고 깨닫는 것 좋아
	4	내 자신이 이렇게 삶에 대해 감사하고 열심히 사는데 종교적 믿음이 강하게 영향을 미친 것 같아.
	5	남편은 나보고 아프지 말아야 한다고 해. 이유는 내가 없으면 숙박일도 아무 것도 움직이지 못해. 10년 이상을 헬스와 수영을 열심히 하고 있지
	7	난 중학교밖에 안 나왔지만..... 지금 건강하거든. 건강하니까 이렇게 나와서 일도 하고
	9	노래 배우러 여성회관 가고 글도 쓰고 있어. 마음은 더 많은 것을 배우고 싶은데 몸이 아파서 잘 안 따라주네
	10	지금 일어를 배우고 있거든. 15년 이상 됐어. 내가 나이가 제일 많아. 젊은 사람들에게 본보기가 되기 위해 더 노력하게 돼
	11	어린이집에서 1주일에 2번 정도 구연 동화 하는 일 하고 싶어.
	6	난 어디가든지 그 곳에 평화를 주고 기쁨을 주는 존재가 될려고 해. 사람마다 못난 면이 있거든.
	봉사형	8
12		지금 자식들 도움 없이 생활할 수 있는 돈이 있어서 기분 좋지. 어느 정도 일하고 난 뒤 앞으로의 삶은 약한 사람들에게 내가 받은 것들을 베풀면서 살아갈거야. 베풀면서 살아가는 것이 행복한 삶인 것 같아

(6) 부부간의 관계

‘부부간의 관계’에 대한 인식 내용을 배우자 있는 경우는 ‘동반형’, ‘부인우위형’, ‘자율형’으로,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는 ‘배우자 중요 강’, ‘배우자 중요 약’으로 범주화하여 정리하면 <표 5-8>과 같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배우자가 있는 경우는 ‘동반형’, ‘부인우위형’, ‘자율형’으로 나누고 배우자가 없는 경우는 ‘배우자 중요 강’,

‘배우자 중요 약’으로 나누고자 한다.

배우자가 있는 연구 참여자 6는 ‘동반형’에 속하는데, 배우자와 종교생활을 같이 하면서 삶의 만족감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오늘도 새벽기도할 때 남편이랑 손 꼭 붙잡고 갔지. 새벽기도할 때 사람들이 차 타고 가거든. 그 사람들이 우리들 보고 잉꼬부부라고 해”(참여자 6)

배우자가 있는 참여자 11과 12는 ‘부인우위형’에 속한다. ‘나이듦’으로 인한 배우자의 변화가 부부관계의 질을 결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주고 있다. 가부장제 사회로 인한 남편에 대한 속상함과 미움은 ‘측은지심’, ‘큰 자식 하나 더 있다’라는 생각, 사랑으로 변하여 보다 긍정적으로 배우자를 바라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특히 참여자 12는 몇십년 이상 같이 지내오면서 이제는 ‘배우자와의 삶이 숙명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

“우리가 젊을 때 가부장제가 강해서 살아가면서 남편 때문에 속상한 일 많았지. 50년 같이 살다보니 ‘측은지심’이 생겨. 남편도 성격이 변하더라구.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예전과 달라. 서로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되지. 젊을 때 속상한 거 생각하면 짜증나고 화가 나지만 지금은 ‘측은지심’ 마음으로 서로 도와주고 있지. 난 어린이집에서 1주일 2번 구연동화하는 일 하고 싶어. 남편이 말리더라구. 어디 얽매이는 일을 하려고 하느냐 하면서..... 난 하고 싶은데 말이야. 하루 3끼 식사 안 챙겨줄까봐 반대하는 것 같아. 이번에 꼭 할 거야“ (참여자 11)

“내 남편은 많이 변했어. 그러잖아. 남편은 큰 자식 하나 키우는 거라고..... 결혼할 때 주례하잖아. 아플때나 행복할때나 같이 해야 한다고. 그럼, ‘예’하고 대답하잖아. 책임감..... 이제는 같은 배를 탔다고 생각하기에 미움도 사랑으로 변하고 긍정적으로 바라보면서 살게 되더라구. 이젠 이 사람이랑 사는 것이 숙명이구나 하는 생각도 하고 그래..... 남편이 있어서 좋지 뭐.”(참여자 12)

배우자가 없는 연구 참여자 1는 ‘배우자 중요 강’에 속하는데, 배우자 존재 유무에 따라 노후의 삶이 달라진다면 성공적 나이듦으로 가기 위해서는 배우자가 꼭 필

요하고 부러움을 표현하고 있다.

“남편 있는 사람이 제일 부러워. 같이 놀러도 가고, 너무 좋지. 남편 있는 것..... 자체로 너무 좋지” (참여자 1)

연구참여자 4 경우도 ‘배우자 중요 강’에 속하는데, 배우자의 부재에 대한 마음을 받아들이고 이에 대한 관심을 자식과 친구들과의 친목으로 대체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남편이랑 7살 차이가 났거든. 3년 전에 사별했는데..... 남편이 60대가 접어드니 모든 사업규모나 주변 일을 하나씩 정리하더라구. 그때는 이해가 안 되었는데..내가 70대가 되어보니 남편을 이해하게 되었어. 모든 일들이 이해가되고 삶이 달라지고 관조적이게 되고. 감사하게 되네.” (참여자 4)

배우자가 없는 참여자 8은 ‘배우자 중요 약’에 속한다. 시청에서 독거노인 담당 선생님의 정기적 보살핌으로 인해 삶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말동무도 해주어서 삶의 만족을 느끼고 있다.

“내가 혼자 살잖아. 시청에서 독거노인 담당 선생님이 일주일에 한번 찾아오거나 전화가 와. 불편한 점은 없는지 말동무도 되어주고 너무 감사해.

10년 전만 해도 이런 제도 없었거든. 10년 사이에 제도나 복지 서비스가 좋아지고 있는데 앞으로 10년도 기대가 돼. 독거노인 담당 선생님 이외에 청소, 목욕, 건강, 생활 등 여러 가지 담당 선생님들이 있어서 세세하게 잘 보살펴줘서 삶에 대한 희망이 생기지. 그 독거노인 담당 선생님은 나이가 49살이거든.” (참여자 8)

제주여성노인이 인식하는 ‘부부간의 관계’에 대한 내용은 배우자 존재 그 자체만으로 감사하고 긍정적인 부부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제주도 가족은 결혼을 한 후에는 분가하여 부부중심 가족형태를 보이고 있고 부부관계가 원만하여 배우자에 대한 사랑을 드러나게 표현하지 않았지만 화내거나 싸우는 일이 없었다(이경희, 1997)고 한다. 이에 제주여성노인에게 배우자는 노년기 삶의 질에 있어서 중요한 존재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상의 결과는 <표 5-8>과 같다.

<표 5-8> ‘부부간의 관계’에 대한 인식

범주화	구분	‘부부간의 관계’에 대한 인식내용	
배우자 유	동반형	3 어디 아프지 않고 내 곁에 있는 것만으로도 좋아	
		5 젊었을 때 남편이랑 고생 많이 했어. 지금도 남편이랑 열심히 일하면서 사는 거 좋아	
		6 새벽기도할 때 남편이란 손 꼭 붙잡고 걸어가거든. 우리보고 잉꼬부부라고 해.	
	부인우위형	7 무엇보다 내 남편이 나한테 너무 잘해. 아프지 않고 남편이랑 같이 있으니 좋아	
		11 젊을 때 남편 때문에 속상한 일 많았지. 50년 살다보니 ‘측은지심’이 생겨. 남편은 큰 자식 하나 키우는 거야.	
		12 이제는 같은 배 뒀다고 생각하니 미움도 사랑으로 변하네. 이 사람이랑 사는 것이 숙명이구나 하는 생각도 해.	
		자율형	2 부부사이에 서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있어
	배우자 무	배우자중요 강	1 남편 있는 사람이 제일 부러워. 같이 놀러도 가고. 너무 좋지. 남편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너무 좋지
			10 남편이 있으면 좋지. 근데 친구들 모임에 나가면 외롭지 않아. 자식들도 있으니까. 3년 전에 사별했는데.....남편이 60대 접어드니 모든 사업, 4 주변 일을 하나씩 정리하더라구. 그때는 이해가 되지 않았 거든. 내가 70대가 되어보니 남편을 이해하게 되었어. 지금 혼자 살아. 시청에서 독거노인 담당 선생님이 일주일 8 에 한번 찾아오거나 전화가 와. 말동무 해주고 해서 좋아. 고마워.
		배우자중요 약	9 혼자 된 이후, 난 내 친구들이랑 시간 있을 때 여행을 가 거든. 자식들이랑은 안 가.

3. 소결

이 장에서는 제주여성노인의 성공적 노화에 대한 구체적 인식을 파악하기 위해 심층면접을 실시하였다. 질적 연구결과에 대해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나이듦’에 대한 인식은 양가적인 감정을 나타내고 있는데, ‘희망없다’, ‘후회스럽다’ 등 부정적 인식과 함께 ‘우주와 소통할 수 있는 기회’, ‘이 나이까지 살아왔다는 것 자체에 감사’, ‘현실을 받아들이자’, ‘자유로움’ 이라는 표현으로 젊었을 때의 고생에서 벗어남과 동시에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삶이라고 인식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제주여성노인이 강한 거부감보다는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고 순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살아가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진행이 되어 만족하려는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외모상으로 곱게 늙으면서 피부, 허리, 머리 등 외적인 변화에 대한 관심이 높다. 특히 60대보다는 70대 들어서니 ‘노인’이라는 인식과 함께 깨달음을 얻어, ‘노인’의 기준을 현재의 65세가 아니라 75세 정도는 되어야 ‘노인’이라고 할 수 있다면 ‘노인’이라는 용어 자체에 대한 거부감이 크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둘째, 제주여성의 ‘자녀와 관계’에 대한 인식은 서로 독립적으로 사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상황형’에서 자녀와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는 삶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사별한 여성노인의 경우 자녀에 대한 강한 애착을 보이는 것으로 알 수 있다. 무엇보다 ‘독립형’에서 제주여성노인의 특징인 자식에게 의존하지 않으려는 강한 독립생활의지를 볼 수 있다.

셋째, 제주여성의 ‘자기통제’에 대한 인식은 제주 특유의 자연환경에서의 산책과 각 공원에 배치된 운동기구를 이용한 신체적 운동과 함께 스스로 자제력을 가지면서 남에게 잘못된 것은 없는지 반성하면서 70대 이후에 더욱 마음 정리하는 방법을 터득하고 있다. 참여자 대부분이 자기통제가 강하다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여기서 제주여성노인의 강인함을 엿볼 수 있다.

넷째, 제주여성의 ‘사회활동 및 지지’에 대한 인식에서 ‘적극형’인 경우는 직업이 있는 여성노인의 경우에 집에서 벗어나 일터에 나와 일을 하니 활기차고 기분이 좋다는 표현을 하고 있다. 직업이 없는 여성노인의 경우는 70대에 들어서 모든 활동을 내려놓고 몇 십년을 이어온 여고모임 등 친목모임에 나가면서 삶의 위안과 활력

을 얻고 있다.

다섯째, 제주여성의 ‘가족지향’에 대한 인식에서는 ‘자유형’이 많이 나타나 가족간의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있지만 서로 구속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에 남편의 지지를 받음으로써 삶의 만족을 느끼는 경우도 있으며 자녀들이 건강하게 각자 자리에서 잘 살고 있고 걱정거리를 안 만들어주는 것이 최고라고 여기고 있다. 특히 자녀에 대한 기대가 손자녀에게 전이되어 손자녀에 대한 만족감이 제주여성노인의 삶에 조금이나마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인다.

여섯째, 제주여성노인의 ‘자기효능’에 대한 인식에서는 현재 삶에 대한 감사와 외모단정, 꾸준한 운동, 성경책 독경, 외국어 공부 등 ‘자기계발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배움에 대한 욕구가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제주여성노인을 대상으로 한 양질의 교육프로그램이 개발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그리고 어려운 사람을 돕고 베풀면서 살아가는 삶 ‘봉사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독거노인의 경우 동사무소에서 오는 독거노인 담당자의 관심과 보살핌으로 인해 삶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여겨져 이와 관련된 다양한 노인복지정책이 시행되어야 한다.

일곱째, 제주여성노인의 ‘부부간의 관계’에 대한 인식은 부부간의 관계의 질을 따지기 이전에 배우자 존재 자체만으로 큰 감사함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젊었을 때 남편에 대한 미움과 속상함은 ‘나이듦’과 함께 보다 긍정적 감정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이제는 배우자의 삶이 숙명이라는 인식을 강하게 하고 있다. 무엇보다 제주도 가족의 특징인 부부중심형의 모습을 볼 수 있다.

VI. 결론 및 함의

1. 결론

이 연구에서는 제주여성노인의 성공적 노화에 대한 긍정적 방향 제시와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인구사회학적 요인에 따른 성공적 노화 인식과 삶의 만족도간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먼저 양적연구에서 제주와 서울의 검정변수 효과분석을 통해 나타난 제주여성노인의 특성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질적 연구에서는 제주여성노인의 ‘나이듦’, ‘성공적 나이듦’에 대해 심층면접을 실시하였다.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를 병행하는 혼합연구방법을 통해 제주여성노인의 성공적 노화 인식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히고 이에 대한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제주여성노인의 ‘자녀와의 관계’에 대한 인식에서는 자식에게 의존하지 않으려는 강한 독립생활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무엇보다 혼인한 자녀들과는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고 끝까지 자녀에게 기대지 않으려는 강한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러한 면은 삶의 만족도에 대한 영향력에서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서울여성노인보다는 그 정도가 크지 않아, 제주여성노인 자신의 생활을 스스로 해결하려는 의식이 강하여 정서적, 경제적으로 부모가족과 자식가족간의 철저한 독립성을 보장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제주여성노인의 ‘자기통제’에 대한 인식에서는 80대보다는 60대와 70대가, 중졸이상의 학력인 경우, 배우자가 있는 경우, 소득이 50만원 이상인 경우 인식정도가 크게 나타났다. 또한 제주여성노인이 규칙적인 신체운동과 종교생활을 하면서 스스로 자제력을 가지면서 남에게 잘못된 것은 없는지 반성하면서 마음 정리하는 방법을 터득하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더욱이 제주여성노인의 종교적 믿음이나 활동이 고독이나 고립감을 완화시켜주고 정서적 안정감을 강화시킴으로써 ‘자기통제’에 대한 인식을 높게 하여 삶의 만족감을 느끼고 있다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그러나 서울여성노인보다는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가 낮다. 이는 제주여성노인이 노년기 특성상 발생하는 다양한 상실경험에 대해 더 이상 자신이 통제

감을 가질 수 없다는 사실을 지각하면서 삶의 만족도를 경험하게 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제주여성노인의 심리적 적응과 정신적 건강유지를 위해 여성노인 관련 시설이나 기관의 확대 설치와 함께, 제주여성노인들의 주관적 자기통제감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제공이 필요하다.

셋째, 제주여성노인의 ‘사회적 활동 및 지지’에 대한 인식에서는 종교활동과 자원봉사경험이 있는 경우에 그 인식정도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심층면접결과, ‘적극형’인 제주여성노인이 사회적 활동 및 지지를 통해 삶의 활력을 느끼고 있었고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력이 서울여성노인보다 크다. 예로부터 제주여성노인이 가지고 있는 강한 지역공동체 의식을 발전시켜, 이와 관련된 다양한 사회적 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는 프로그램개발이 필요하다.

넷째, 제주여성노인의 ‘가족지향’에 대해서는 소득이 50만원 이상인 경우 인식정도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들은 그들의 인생후반기에 접어들면서 사회적 관계의 중심이 가족으로 점차 집중화 혹은 축소화 되는 경향을 가지게 된다. 가치체계에서도 가족이 우선 순위를 두게 되어, 월 소득이 많아짐으로써 가족의 안정을 유지할 수 있고 성공적 노화를 인식하게 됨으로써 삶의 만족감을 느끼고 있다. 그리고 심층면접결과, 제주여성노인은 남편의 지지와 자녀들이 건강하게 각자 자리에서 잘 살고 있고 걱정거리를 안 만들어줌으로써 성공적 노화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가족지향’에 대한 인식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력이 서울여성노인보다 크게 나타났다. 향후 제주여성노인관련 복지정책 수립시 가족관련 내용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다섯째, 제주여성노인의 ‘자기효능’에 대해서는 종교를 가지고 있는 경우, 자원봉사경험이 있는 경우, 소득이 150만원 이상인 경우, 주관적 경제수준이 보통 이상이라고 응답한 경우 인식정도가 높게 나타났다. 이는 경제상태가 높고 자기수입으로 생활하는 사람이 자기효능이 높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자기효능’에 대한 인식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력은 제주여성노인, 서울여성노인 모두에게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섯째, 제주여성노인의 ‘부부간의 관계’에 대해서는 현재 직업이 없는 경우 인식정도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일터에 나가지 않음으로써 부부가 같이 있는 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부부간의 정서적 친밀감이 쌓이고 이에 대한 삶의 만족도를 증대시킬 수 있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특히 ‘부부간의 관계’ 인식은 서울여성노

인에게는 영향력이 없지만, 제주여성노인에게만 나타나는 요인이다.

제주도의 가족이 핵가족적인 성격이 강하여 생활중심이 예로부터 부부에게 있어 왔고 남편 또는 부인 어느 쪽에도 결정권이 치우치지 않고 있으며, 일치형 가족이 타 지역에 비해 상당히 높다. 이러한 현상은 제주도 가족이 보다 민주적, 타협적 분위기라고 볼 수 있다.

일곱째, 제주여성노인의 ‘나이듦’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 ‘노인’이라는 인식 자체를 부정하면서 현실에 대한 감사함과 받아들임 등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결과에서 제주 여성노인의 강인함과 순응성을 파악할 수 있다. 자신을 노인이라 인식하지 않을 경우 높은 만족감을 가지고 있고 자신의 삶을 성공적으로 보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스로 젊은 연령 인식을 갖고 있는 것은 성공적으로 적응하는 하나의 방법이며 평균수명의 증가에 적응하여 성공적 노화를 하기 위한 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인간의 ‘노령화’에 대한 기본적 시각을 바꿔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인간의 노령화는 개체발생적 개인차, 환경차, 발달경험차 혹은 주관적으로 느끼는 노화의 차이 등에 따라 진행된다. 인간의 ‘노령화’에 대한 기본적인 관점을 ‘가령화(加齡化)’의 시각에서 인생의 후반기를 바라보아야한다는 주장을 제기하고자 한다.

이상의 결과를 정리하면 제주여성노인의 사회적 활동 및 지지, 가족지향, 부부간의 관계에 대한 인식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가 서울여성노인보다는 크다. 이는 제주여성노인이 어려운 환경에서 살아남은 역사적 생활사로 인해 서울여성노인보다 관계 중심적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고 자연스럽게 제주의 독특한 문화를 만들면서 자주적이고 독립적인 삶의 축을 형성하고 있음으로 이해할 수 있다.

2. 연구의 시사점

1) 이론적 시사점

제주여성노인의 성공적 노화 인식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이 연구의 이론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이 연구는 제주여성노인의 성공적 노화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연구라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그 동안 성공적 노화와 삶의 만족도에 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어 왔지만 특정지역에 거주하는 노인을 대상으로 집중되어 왔다. 2000년대 들어서면서 성공적 노화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였으나 노인의 삶의 질에 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연구가 수행되지 않았다.

더욱이 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제주지역에 거주하는 노인의 성공적 노화 인식에 관한 연구는 미미한 실정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 연구가 시도한 제주여성노인의 성공적 노화 인식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은 타 영역의 삶의 질 연구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사회인구학적 특성(연령, 학력, 종교, 배우자유무, 자원봉사경험유무, 소득, 주관적 경제수준, 직업)에 따른 성공적 노화 인식 차이관계와 성공적 노화 요인(자녀와의 관계, 자기통제, 사회적 활동 및 지지, 가족지향, 자기효능, 부부간의 관계)에 따른 삶의 만족도의 영향관계를 제시함으로써 폭넓은 분석을 하고자 하였다.

그 동안의 연구에서는 하나의 변인과 성공적인 노화와의 관련성을 규명하였거나 극히 제한적인 요인을 가지고 성공적 노화와의 관련성을 밝히는데 불과하다. 이 연구에서는 포괄적이고 여러 영역으로 이루어지는 다 영역적인 개념인 성공적 노화 중요도와 삶의 만족도 차이관계, 성공적 노화 중요도 인식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요인들을 찾아내는 과정에서도 여러 분야에서 많은 요인들을 고려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성공적 노화의 본질을 정확히 파악하고 그것을 삶의 일부로 내면화하여 노인들이 스스로 노인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삶의 주체가 되는데 기여하게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제주여성노인의 심층면접을 통해 성공적 노화 인식에 관한 실제적인 목소리를 들음으로써 노인들의 욕구 및 현재의 상황을 파악함으로써 성공적인 노화를 준비하는 예비노인, 성공적인 노화의

삶을 원하는 현재의 노인들을 위한 노인관련 프로그램의 내용을 구성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노화란 그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지극히 당연한 현실이다. 그렇다고 생물학적인 부분만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고 여겨진다. 노화는 인간의 정상적인 성장 발달과정의 한 부분으로 생물학적·심리적·사회적인 변화까지 모두 포함한다. 그리고 자연스러운 것으로 허무하게 생각하여 정신적 스트레스로 이어져 갈등관리를 못하면 의욕과 식욕까지 잃으면서 신체적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다. 비록 경제적인 여유도 별로 없고 몸이 다소 불편 하더라도 노화의 과정이라고 자연스럽게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 이것이 바로 성공적 노화이다.

선행연구를 통한 성공적인 노화의 개념은 생물학적, 심리학적, 사회문화적, 가족의 영역을 모두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이어야 한다. 그러나 최근의 연구를 통한 성공적 노화의 정의는 지속적인 성장과 발달, 그리고 적극적인 인생참여와 같은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측면을 강조하고 있다. 성공적 노화의 개념이나 구체적인 기준 등에 대해서 아직 일치된 의견이 없는 실정이다. 이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와의 비교 검토를 통한 성공적인 노화의 정의, 이론과 모델, 구성요소 등을 살펴봄으로써 성공적인 노화가 무엇보다 한국 실정에 맞는 여러 영역을 포괄하는 개념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2) 실증적 시사점

이 연구결과가 노인의 성공적 노화에 관한 실증적인 면에 있어서 시사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첫째, ‘나이듦’에 관한 인식에 있어서 노인들은 노인 취급 받는 것을 좋아하지 않고 노인의 기준 또한 바뀌야 한다는 인식을 보여주고 있다. 이제는 노인을 ‘보호’ 대상에서 ‘자립’대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인식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노인의 기준을 만 65세에서 70대로 변동해야 한다는 것은 총체적인 사회 문제이므로 시스템적 사고 접근방식이 필요하다. 노인들의 인식변화와 관련해 노인에 대한 사회적 지지 또는 지원을 위한 서비스와 프로그램을 확대하여야 한다.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노인들이 욕구충족을 높여 자아존중감을 가짐으로써 ‘나이듦’에 대한 좀 더 긍정적인 인식변화가 이루어질 것이다. 이에 따라 노인들의 성공적 노화의 수준은 향상될 수 있으므로 행복한 노후를 위해서 자신이 원하는 삶을 주도적으로 계획하

고 실천하게 된다.

둘째, 성공적 노화 요인 중 ‘자녀와의 관계’, ‘자기통제’, ‘사회적 활동 및 지지’, ‘가족지향’ 인식을 할수록 삶의 만족도가 커지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무엇보다 제주여성노인의 ‘사회적 활동 및 지지’, ‘가족지향’에 대한 인식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지역은 각종 문화시설이나 의료시설 등이 서울지역보다는 열악하다. 이에 따라 제주지역의 의료시설이나 문화시설 확충으로 제주노인의 성공적 노화를 이룰 수 있도록 인프라를 구축하여야 한다. 또한 노인 스스로가 자신의 변화를 긍정적이고 노인생활의 질적 향상을 가져올 수 있는 다양한 사회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이에 대한 정책과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한다. 또한 제주여성노인관련 정책 수립시 가족관련 내용이 필요함을 보여주고 있다.

셋째, 지역의 감정변수 효과 검증 결과, 제주여성노인의 ‘부부간의 관계’에 대한 인식이 클수록 삶의 만족도가 증대된다고 보고 있다. 좀 더 심층적인 면접결과를 통해서도 제주여성노인의 ‘부부간의 관계’에서 배우자의 존재 자체만으로 삶의 만족의 정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다.

현재 노인들이 삶의 태도가 적극적으로 바뀌면서 황혼이혼뿐 아니라 황혼결혼도 급증하고 있다. 홀로 된 노인을 위해서는 건전한 만남의 기회를 자주 만들어주는 행복증진 프로그램을, 배우자가 있는 노인을 위해서는 노년기부부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함으로써 삶의 활력을 느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부부관계 나아가 가족관계 등 친밀한 관계를 향상시킬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다.

이 연구의 결론에 기초하여 앞으로 추진되어야 할 후속연구를 위해서 다음과 같이 제언한다.

첫째, 제주여성노인의 특성을 알고자 지역의 감정변수효과를 살펴보았는데, 두 지역(제주, 서울)에 거주하는 여성노인들을 대상으로 한정해서 연구결과를 일반화 하는데 다소 무리가 있을 것이다. 앞으로 여성노인의 성공적 노화를 일반화하기 위하여 다른 지역의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둘째, 급속한 사회변동을 수반하고 있는 현대사회에서 세대간 격차는 커지고 있다. 성공적 노화에 대한 세대별 인식이 다를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셋째, 이 연구는 제주여성노인의 성공적 노화 인식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횡단적 연구방법을 통해 분석함으로써 인과관계 추론에 있어 한계가 있다. 추후 이에 대한 종단적 연구가 요청된다.

넷째, 아직 제주노인의 성공적인 노화에 대한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그리고 성공적 노화의 측정기준도 애매하여 성공적 노화개념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지표들을 활용하는데 한계가 있다. 차후 이에 대한 후속연구가 필요하다.

다섯째, 평균수명의 연장으로 노년기의 삶은 초기, 중기, 후기로 분류될 만큼 동일하지 않고 다양한 스펙트럼을 보여준다. 노인집단이 단일특성을 지닌 집단이 아니라 다양한 특성을 지니는 집단이므로 노년기에서도 발달단계를 구분해서 연구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1. 저서

- 김동완 외(2013). **VOM: Vision of Medicine**. 서울:서울대학교병원.
- 김영돈(2000). **제주도 제주 사람**. 서울:민속원.
- 김태현(2008). **노년학**. 서울:교문사.
- 김혜숙(1999). **제주도 가족과 권당**. 제주:제주대학교 출판부
- _____ 외 5인(2001). **제주여성문화**. 제주:제주도.
- 김항원·김진영·고성준·강근형(2000). **전환기 제주의 의식과 제주정신**. 제주:제주대학교출판부.
- 박상철(2010). **노화혁명**. 서울:하서
- _____ (2009). **웰에이징**. 서울:생각의 나무
- _____ (2005). **한국 장수인의 개체적 특성과 사회환경적 요인**. 서울대학교 한국학 모노그래프, 25.
- 신행철(1991). **제주사회의 기본적 성격**. 제주관광문화. 제주:제주발전연구소
- 송성대(1998). **제주인의 海民精神: 문화의 원류와 그 이해**. 제주:파피루스.
- _____ (2004). **제주인, 바다, 그리고 아나키공동체**. 민족문화작가회의 제주도지회, 제주작가, 제12호.
- 이학식·임지훈(2008). **SPSS 통계분석방법 및 해설**. 서울:법문사
- 제주도(2001). **제주여성문화**. 제주도
- 제주사정립사업추진협의회(1998). **탐라사 연구, 어떻게 할 것인가**. 제주사정립사회추진협의회 제주도사 연구회.
- 정경희·오영희·석재은·도세록·김찬우·이윤경·김희경(2005). **전국 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정경희·한경혜·김정석·임정기(2006). **노인문화의 현황과 정책적 함의-‘성공적 노화’담론에 대한 비판적 검토를 중심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정경희·이윤경·윤지은(2009). **노인의 생산활동 실태 및 경제적 가치평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정옥분(2008). **성인·노인 심리학**. 서울: 학지사.
- 조성운(1998). **제주인의 문화정체성**. 21세기 모두를 위한 제주도: 세계섬 학술회의 보고서. 제주:제주발전연구원.
- 최신덕·김모란(1998). **노년사회학**. 서울:하나의학사.

- 최성재·장인협(2003). **노인복지학**. 서울:서울대학교출판부.
- 최인철(2009). **프레임**. 서울:북이십일 21세기북스.
- 최재석(1979). **제주도의 친족조직**. 일지사
- 한국노년학회(2002). **노년학의 이해**. 서울: 대영문화사.
- 한국지방행정연구원(1982).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보고서**. 서울:한국지방행정연구원.
- 한정란(2010). **노인교육의 이해**. 서울: 학지사.
- 한창영(1998). **지역의 고령화와 복지**. 서울:온누리.
- 통계청(2011). **고령자 통계**.

2. 국내문헌

- 고대선·원영신(2005).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들의 성공적인 노화의 의미. **한국사회체육학회지**, 24, 413-424.
- 고미영(2010). 고령사회 노인여가정책 모형 개발. 제주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고보선(2004). 노인학대 유형별 대처전략에 관한 연구. **노인복지연구**, 23, 83-105.
- ____·유용식(2002). 제주노인의 사회적 지지와 삶의 질에 관한 연구. **노인복지연구**, 18, 49-72.
- ____(2008). 제주노인 삶의 유형별 건강 및 심리적 특성에 관한 연구 : 성공적 노후척도를 중심으로. **노인복지연구**, 39, 323-346.
- 고인순(2008). 노인 만성질환자의 무력감, 건강증진행위, 가족지지가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탐라대학교 경영·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고연희(2008). 독신노인의 이성교제 및 성의식과 생활만족도에 관한 연구. 탐라대학교 경영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고윤순·이정숙(2009). 노인대학에 참여하는 농촌노인의 도구적 일상생활능력, 여가만족 및 성공적 노화. **노인간호학회지**, 11(2), 226-235.
- 고승한·김진영(2008). 제주장수노인의 사회적 부양체계에 대한 탐색적 연구. **탐라문화**, 36, 333-388.
- 고희자(2005). 노인인구의 독립성 영향요인 연구-제주도 여성의 자아존중감과 삶의 만족도의 상관관계를 중심으로, 건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강신옥(2009). 노인의 생산적 활동이 성공적 노화에 미치는 영향분석. 공주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강신옥·방혜선(2010). 농촌노인과 도시노인의 성공적 노화에 관한 비교연구-충북노인일자리 사업참여자를

중심으로-. **노인복지연구**, 49, 287-310.

강인(2003). 성공적 노화의 지각에 관한 연구. **한국노인복지연구**, 20, 95-116.

강지애(2007). 노인의 생산적 활동이 성공적 노화에 미치는 영향. 대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강혜원(2011). 한국노인의 성공적 노화 연구-사회적 관계가 성공적 노화에 미치는 영향중심으로. 강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강혜자(2012). 노인의 스트레스가 성공적 노화에 미치는 영향-선택·최적화·보상 대처전략과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경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김기태·박봉길(1996). 재가노인과 시설노인의 생활만족도 비교. **사회복지연구**, 6, 65-85.

김경희(2007). 제주지역 여성 이미지의 탐독:대인적 페미니스트 지리학의 모색.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경호·김지훈(2009). 한국 노인의 성공적 노화 요인의 구조분석. **한국노년학**, 29(1), 71-87.

_____ (2008). 삶의 만족도가 성공적 노화에 미치는 영향(유배우자 노인을 중심으로). **한국가족복지학**, 13(2), 87-106.

김남희(2011). 여성 노인의 성공적 노화인식이 자아존중감과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정신적 노화의 조절 역할-. 호서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김도환(2001). 도시 노인의 가족지지와 정신건강과의 관계 연구. **노인복지연구**, 10, 171-193.

김동배(2008). 한국노인의 성공적 노화 척도개발을 위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60(1), 211-231.

김미령(2008). 여성노인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성공적 노화의 구성요소. **한국노년학**, 28(1), 33-48.

_____ (2013). 노후연령인식 여부에 따른 성공적 노화 구성요소 차이 및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사회복지학**, 65(1), 227-245.

김미진(2008). 제주도 여성숙감의 이중성. **영주어문학회**, 16, 43-66.

김미숙·박민정(2000). 종교가 노인의 삶의 전에 미치는 영향 연구. **한국노년학**, 20(2), 29-47.

김미순·하춘광·김효순(2011). 내세관과 죽음준비도 및 생활만족도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복지학**, 16(1), 111-136.

김미혜·신경림·강미선·강인(2004). 한국노인의 성공적 노후에 대한 경험. **한국노년학**, 24(2).

김미혜·신경림·최혜경·강미선(2005). 한국노인의 성공적 노후 삶의 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국노년학**, 26(1), pp91-104.

김미혜·신경림(2005). 한국노인의 성공적 노후 척도 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노년학**, 25(2), 35-52.

김민호(1992). 제주풍속에 적합한 노인복지방안. **제주교육대학논문집**, 22, 47-88.

김양아·송기오(2010). 제주노인의 성생활 실태와 성문제 해결방안. **노인복지연구**, 50, 221-242.

김영순(2006). 노년기 형제자매관계 특성이 성공적 노화에 미치는 영향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영순(2013). '강인한 제주여성' 담론에 관한 비판적 연구. 성공회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원배(2009). 한국노인의 생활만족도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활동이론과 자원이론을 중심으로. 인제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수정(2007). 여성가구주 가구의 빈곤원인과 빈곤위험의 젠더격차, **페미니즘 연구**, 7(1), 93-133.
- 김성찬·강명훈(1997). 제주도 노인의 건강생활 실태에 관한 연구: 노인학교를 중심으로. **체육과학연구**, 3, 51-67.
- 김성혁(1998). 제주도 100세 이상 노인의 장수요인 규명을 위한 현상학적 연구. **지역사회간호학회지**, 9(1), 40-63.
- 김원배(2009). 한국노인의 생활만족도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활동이론과 자원이론을 중심으로. **사회복지정책**, 36(3), 449-470.
- 김재현(2013). 노인들의 여가 참여특성에 따른 우울감, 사회적응, 여가만족, 삶의 만족에 관한 연구. 전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진영(1989). 제주지역 노동시장의 구조와 특성에 관한 연구. **제주대학교 논문집**, 28(1), 163-190.
- _____. 김남진(2008). 제주지역 노인의 여가활동 조사연구: 여가활동 유형 및 만족도를 중심으로. **탐라문화**, 35, 291-324.
- 김정석(2003). 노후생활에서의 성별차이 - 경제적 차원을 중심으로. **한국인구학**, 26(1), 59-77.
- 김정숙(2000). 제주도 신화 속의 여성원형 연구. **문화역사지리**, 12, 1-17.
- 김재중(2007). 성공적인 노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 백석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주성(2011). 중노년층의 라이프스타일이 노후 준비도 및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호서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혜숙(1993). 제주도 가정의 혼인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_____(1992). 가족의 성격을 통해 본 제주인의 의식구조: 여성을 중심으로, **제주대학교 논문집**, 34, 467-485.
- _____. 김은희·김향원·유철인(2005). 공동거주의 의미와 한국가족의 변화:서울지역과 제주도의 도시중산층 가족의 사례를 중심으로. **가족문화**, 17(1), 3-34.
- _____. 강기은(2013). 제주노인들의 성공적 노화에 관한 인식 연구. **한국노인복지연구**, 59, 159-186.
- 김희주·주경희(2008). 한국적 성공적 노후 척도를 활용한 노인의 삶의 만족에 관한 연구. **노인복지연구**, 41, 125-158.
- 김태현(1980). 제주도의 노인생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18(1), 97-109.

- 권귀숙(2011). '아방도 없고 허난 밥도 없고': 제주 4·3의 여성사. **4·3과 역사**, 11, 65-88.
- 권중돈·조주연(2000). 노년기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국노년학**, 20(3), 61-76.
- _____. 손의성(2010). 노인의 자기인식과 차별경험이 노인의 사회참여에 미치는 영향과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노인복지연구**, 49, 81-106.
- 노혜진(2012). 한국사회 빈곤의 여성화: 개념의 확장과 재구성.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남기민(2007). 자아존중감을 매개로 한 노인의 활동과 생활만족도 간의 관계. **사회복지연구**, 30, 303-328.
- 모선희(2006). 자서전쓰기 프로그램에 나타난 소도시 여성노인의 삶 연구: 6명의 사례분석을 통한 탐색적 접근. **한국지역사회복지학**, 20, 87-116.
- 박기남(2004). 노년기 삶의 만족도의 성별 차이. **한국노년학**, 23(3), 13-29.
- 박경란·이영숙(2002). 성공적인 노화에 대한 인식 조사연구. **한국노년학**, 22(3), 53-66.
- 박경숙(2011). 노인전문 자원봉사활동이 성공적 노화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한성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박경숙 (2013). 한국과 대만의 성공적 노화에 관한 연구: 학위논문에 대한 비교분석.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영례·권혜진·김경희·최미혜·한승의(2005). 노인의 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과 삶의 질에 관한 연구. **노인복지연구**, 29, 237-258.
- 박영민(2011). 남녀노인의 성공적 노화 지각과 생활만족도 관계 비교 연구. 인제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은희·최혜경(2010). 성공적 노화 지각에 따른 실버타운에 대한 소비자 기대 비교: 중년 후기 교원을 대상으로. **소비자정책교육연구**, 6(2), 17-40.
- 박상복(2010). 전문직 은퇴자의 성공적 노화에 대한 요구분석: 역량, 학습 및 사회활동을 중심으로. 경성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박성연·최혜경(1985). 노인의 생활만족도 향상을 위한 기초연구-가족부양체계를 중심으로 한 인과모형의 검증. **대한가정학회지**, 23(1), 71-85.
- 박수경·문수경(2005). 성공적 노화를 위한 신체 장애노인의 심리적 임파워먼트 관련 요인 연구. **한국노년학**, 26(1), 77-89.
- 박정식(2011). 은퇴노인의 여가활동참여와 주관적 인식 및 생활만족도 관계 연구: 신체활동에 참여하는 남성노인 중심으로. 서울기독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박정필(2012). 은퇴자의 사회참여와 삶의 만족도에 관한 연구: 울산광역시를 중심으로. 울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박중환(2005). 성공적 노화: 개념과 전략. **노인정신의학**, 9(1), 37-49.
- 박차상(2003). 제주도의 재가노인복지사업의 현황과 발전방향. **제주한라대학논문집**, 205-219.
- 박충선(1990). 대구, 경북지역 노인의 생활만족도에 관한 연구. **가정생활연구**, 5, 5-20.
- 박형란(2011). 한국노인의 성공적 노화 과정.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배나래·박충선(2009). 노년기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생태체계적 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노년학**, 29(2), 761-779.
- 백지은(2006). 한국노인들의 성공적 노화에 대한 인식:비교문화적 접근.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_____. 최혜경(2007). 한국사회와 서구사회의 성공적 노화의 구성요소에 대한 비교 문화적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5(2).
- _____. (2008). 한국노인의 전통적 가치관에 따른 성공적 노화인식차이. **한국노년학**, 28(2), 227-249.
- 신영희·이혜정(2009). 일 도시 노인의 성공적인 노화 관련 요인. **한국노년학**, 29(4), 1327-1340.
- 신행철(1994). 제주마을의 공동생활권으로서의 성격과 그 변화. **농촌사회**, 4, 97-125.
- _____. (1997). 제주인의 정체성과 일본 속의 제주인의 삶. **제주도연구**, 14, 53-80.
- 서유석(1994). 양로원과 근린생활권의 관계성 및 시설특성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송예현(2001). 노인이 인지하는 가족지지와 정신건강 및 삶의 만족도와의 관계 연구. **정신간호학회지**, 10(1), 473-483.
- 송정연·한경혜(2012). 노년기 여성의 결혼지위와 건강에 관한 중단 연구: 연령 및 부모-자녀 관계의 조절 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인구학**, 35(1), 211-238.
- 성혜영·유정현(2002). 성공적 노화 개념의 인식에 관한 연구-Q방법론적 접근. **한국노년학**, 22(2), 75-93.
- 성혜영(2005). 성공적 노화 모델 연구: Rowe와 Kahn의 구성요소를 활용하여.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_____. 조희선(2006). Rowe와 Kahn의 구성요소를 활용한 성공적 노화모델. **한국노년학**, 26(1), pp.75-93.
- 송혜자(2009). 노인의 역할수행이 성공적 노화에 미치는 영향: SOC 대처전략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청주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경희(1997). 제주도 노인들의 건강생활양식에 관한 문화기술지. 경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경숙(2011). 은퇴 노인의 성공적 노화 영향 요인에 관한 연구-종교생활의 조절효과분석을 중심으로-. 조
선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묘숙(2012). 자기효능감을 매개로 한 노인의 경제상태가 성공적 노화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노인
복지연구**, 57, 289-314.
- 이병찬(2012). 베이비 부머의 성공적 노화 인식이 레저 스포츠 활성화에 미친 영향 연구. 고려대학교대학
원 박사학위논문.
- 이신영(2010). 성공적 노화 인식에 관한 성별 비교 연구. **젠더와 문화**, 3(1), 99-130.
- 이수자(2004). 제주도 무속을 통해서 본 큰굿 열두거리의 구조적 원형과 신화, **한국종교연구**, 185-194.
- 이소정(2009). 우리나라 중장년층의 노후준비에 관한 인식과 정책적 함의. **보건복지포럼**, 147, 72-80.
- 이인정(2007). 남녀노인의 우울, 삶의 만족에 대한 심리사회적 요인들의 영향의 차이에 관한 연구. **노인복
지연구**, 36, 159-179.
- 이원석(2011). 혼합연구방법에서의 페러다임의 혼합. **교육문제연구**, 195-211.
- 이지영·권기호(2012). 생애구술을 통해 본 노년의 자아정체성과 종교: 개신교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노년
학**, 32(1), 163-184.
- _____(2013). 정부 노인고용서비스 전달체계의 효과성이 성공적 노화에 미치는 영향분석: 도시와 농촌지
역의 차이 비교. 영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정숙(2004). 제주 4·3항쟁과 여성의 삶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진숙(2001). 여성노인인력의 복지자원화 방안 연구. **민족문화논의**, 24, 149-177.
- 이중섭(2010). 장애노인의 생활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노인복지연구**, 47, 187-212.
- 이창기(1992). 제주도의 사회문화적 특성과 연구. **제주도연구**, 9, 17-35.
- _____(1982). 제주도의 인구성장. **탐라문화**, 157-184.
- _____(1993). 제주도의 가족제도의 특징. **사회문화논총**, 8, 71-105.
- 이철우(1998). 노인관의 변화와 대응방안 모색. **한국사회**, 155-201.
- 이향란(2013). 고령자의 생산적 활동, 자아 존중감, 주관적 안녕감에 따른 성공적 노화. 대구한의대학교 대
학원 박사학위논문.
- 임희섭(1996). 현대 한국인의 가치관: 삶의 목표 가치와 규범 가치를 중심으로. **민족문화연구**, 143-162.
- 임춘식(2003). 고령화 사회의 노인인력활용정책에 관한 연구. **노인복지연구**, 22, 55-77.
- 안계일(2008). 노인의 여가활동과 여가만족 및 성공적 노화의 관계. 경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안정숙(2010). 초기 성인과 중기 성인의 성공적 노화 인식에 관한 연구. 동아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안지연·김애순·한광희(1998). 성공적 노화를 위한 선택·적정화·보상전략과 대처행동양식 및 삶의 만족도의 관계-청년집단과 중노년집단을 중심으로-, **98연차대회학술발표논문집**, 323-341.
- 안정신·김윤정·강인(2009). 한국중노년 성인들의 성공적 노화 척도 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관계학회지**, 13(4), 225-245.
- 오현숙(2003). 노인의 특성적 요인이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대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오승환·윤동성(2006). 노인의 삶의 질 특성에 관한 연구. **노인복지연구**, 32, 119-147.
- 양영수(2011). 제주신화에 나타난 여성성의 특징들. **탐라문화**, 38, 109-156.
- 양연심(2008). 노인의 성의식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제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유재남(2011). 노년기 성공적 노화와 삶의 만족도 케적에 관한 종단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유승희(2010). 서울학 연구의 현재적 의미와 한계. **도시인문학 연구**, 2(2), 139-171.
- 유태균(2001). 사회복지학 연구수행과정에 있어서의 윤리적 이슈에 관한 소고. **한국사회복지질적연구**, 1(1), 69-86.
- 유철인(1986). 제주사람들의 문화적 정체감-주변사회에 있어서의 적응방식. **탐라문화**, 5, 71-94.
- _____(1992). 제주사람들의 사회와 섬에 대한 관념: 인구이동과 제주사회, **제주도연구**, 9, 37-47.
- 윤순덕·한경혜(2004). 농촌노인의 생산적 활동과 심리적 복지. **한국노년학**, 24(2), 57-77.
- 윤진(1995). 삶의 질의 심리학: 성공적 노화와 삶의 질 - 한국노인 대상연구에서 고려할 측면들-. **춘계심포지엄**, 1995, 45-75.
- 윤형준(2010). 성공적 노화에 미치는 영향요인과 인식에 관한 연구. 강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주민경(2011). 한국 노인의 성공적 노후 개념에 대한 암시적 타당화. 호서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장주호(2011). 노인의 생활영역만족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관계 연구. 대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장백기(2011). 노인의 취업활동이 주관적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사회적 자본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성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전은희(2011). 여성노인의 성공적 노화 척도 개발 및 타당화. 경성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정광중·황석규(2010). 제주지역 노인자원봉사활동에 관한 연구. **제주도연구**, 181-219.
- 정대연(1997). 제주도의 환경과 삶의 질에 관한 연구. **제주대학교 환경연구논문집**, 5, 53-69.
- 정덕임(2012). 장기요양시설 서비스질이 노인의 생활만족도와 우울에 미치는 영향: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한영신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정순돌(2007). 고령화 시대를 성공적으로 살기- 고령화 사회의 심리학 ; 고령화 사회의 노인복지 서비스. **추계심포지엄, 2007**, 47-62.
- 정태연·조은영(2005). 한국사회의 여성에 대한 인식과 그 문제점: 성별 및 연령에 따른 발달과업 지향성의 차이: 관계와 과업을 중심으로. **연차학술발표대회논문집**, 352-353.
- 정진석·조미정·채현탁(2009). 자원봉사활동의 적극성과 지속성에 영향을 미치는 인정보상 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지역사회복지학, 28**, 95-112.
- 정종열(2010). 65세 이상 홀로된 남성노인의 성 인식 및 태도와 삶의 만족도에 관한 연구. 서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정종현(2013). 노인의 성격특성과 사회적 지지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호서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조규범(2005). 노인의 생활만족도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목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조혜경(2002). 성공적인 노화에 관한 연구: 노인들의 성인학습을 통하여.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조혜정(1997). 제주도 연구의 필요성-문화인류학적 관점에서-, **제주도연구**, 438-439.
- 최혜경·백지은·서선영(2005). 노인들의 인식을 통한 한국적인 성공적 노화의 개념.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3(2)**, pp.1-10.
- _____ (2008). 한국노인들의 기대에 따른 성공적인 노화. **한국가족관계학회지, 13(3)**, 145-168
- 최성재(1986). 노인의 생활만족도 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문화연구원논집, 49**, 233-258.
- 하정연(2003). 성공적인 노화를 위한 관련 변인 연구: 중산층 노인의 SOC 모형을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한진숙·이주영(2010). 여성노인의 우리춤 체조 경험이 건강증진에 미치는 현상학적 연구. **노인복지연구, 50**, 197-220.
- 한정란·김수현(2004). 농촌 남녀 노인의 사회인구학적 변인과 자아존중감이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노인복지연구, 26**, 91-118.
- 한형수(2002). 한국사회 도시노인의 삶의 질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한창훈(1998). 제주도 무가에 형상화된 여성(신)의 성격. **제주도연구, 15**, 85-112.
- 홍현방(2002). 성공적인 노화 개념 정의를 위한 문헌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홍승우(2001). 노인의 일상생활과 성공적인 노화.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현순화(2002). 제주여성노인을 위한 복지프로그램 개발 방안: 도시지역을 중심으로. 서강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홍세희(2000). 구조방정식 모형의 적합도 지수 선정기준과 그 근거. *한국심리학회지*, 19(1), 161-177.

3. 해외문헌

Andrews, G. & Clark, M. (2006). Successful Aging amongst the Very Old—Evidence from a Longitudinal Study of Aging. *Longer Life and Healthy Aging*, 319-327.

Baltes, P. B., & Baltes, M. M. (1990). *Successful Aging : Perspectives from the Behavioral Sciences*. Cam: Cambridge University Press.

Baltes, M. M. & Carstensen, L. L. (1996). The Process of Successful Ageing, *Ageing and Society*, 16(4), 397-422.

Baltes, M. M. & Lang, F. R. (1997). Everyday Functioning and Successful Aging : The Impact of Resources. *Psychology and Aging*, 12(3), 433-443.

Baltes, P. B. & Smith, J. (2003). New Frontiers in the Future of Aging : From Successful Aging of the Young Old to the Dilemmas of the Fourth Age. *Gerontology*, 49, 123-135.

Cavanaugh, J. C. (1999). Integrating the Humanities Into a Liberal Arts Course on Adult Development and Aging. *Teaching Of Psychology*, 26(1), 51-52.

Cheng & Chan (2008). Older people's realisation of generativity in a changing society: the case of Hong Kong, *Ageing and Society*. 28(5), 609-627.

Crowther, M. R. & Parker, M. W. & Achenbaum, W. A. & Larimore, W. L. & Koenig, H. G. (2002). Rowe and Kahn's Model of Successful Aging Revisited: Positive Spirituality—The Forgotten Factor. *The Gerontologist*, 42(5), 613-620

Fisher, B. J. & Specht, D. K. (1999). Successful Aging and Creativity in later life. *Journal of Aging Studies*, 13(4), 457-47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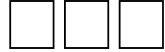
Freund, A. M. & Baltes, P. B. (1998). Selection, Optimization, and Compensation as Strategies of Life Management: Correlations With Subjective Indicators of Successful Aging, *Psychology and Aging*, 13(4), 531-543.

Freund, A. M. & Baltes, P. B. (1999). Selection, Optimization, and Compensation as

- Strategies of Life Management: Correction to Freund and Baltes(1998). *Psychology and Aging*, 14(4), 700-702.
- Gibson, R. C. (1995). Promoting Successful and Productive Aging in Minority Populations. *Comparative Issues and Perspectives*, 279-288.
- Heckhausen, J. & Schulz, R. (1995). A Life-Span Theory of Control. *Psychological Review*, 102(2), 284-304.
- Horgas, A. L. & Wilms, H. U. (1998). Daily Life in Very Old Age: Everyday Activities as Expression of Successful Living. *The Gerontologist*, 38(5), 556-568.
- Masoro, E. J. (2001). "Successful Aging"—Useful or Misleading Concept?. *The Gerontologist*. 41(3), 415-418.
- Menec, V.(2010). Personal Factors, Perceived Environment, and Objectively Measured Walking in Old Age, *Journal of Aging and Physical activity*, 18(3), 280-292.
- Mitchell, K. (2006). Productive Aging: The New Life Stage, *WorldatWork Journal* , 15(1), 62-72.
- Mitchell, V. & Bruns, C. M. (2011). Writing One's Own Story: Women, Aging, and the Social Narrative. *Women & Therapy*, 34, 114-128.
- Neugarten, B. L. (1988). Personality and Psychosocial Patterns of Aging. *Crossroads in Aging*, 205-219.
- Nosraty, L. & Sarkeala, T. (2012). Is There Successful Aging for Nonagenarians? The Vitality 90+ Study. *Journal of Aging Research*, 11, 797-868.
- Paulson, D. & Bowen, M. E.(2011). Successful Aging and Longevity in Older Old Women: The Role of Depression and Cognition. *Journal of Aging Research*, 10, 912-919.
- Randall, G. K. & Martin, P. (2012). Successful Aging: A Psychosocial Resources Model for Very Old Adults, *Journal of Aging Research* , 12, 934-949.
- Rowe, J. W. & Kahn, R. L. (1997). Successful Aging. *The Gerontologist*, 37(4), 433-440.

- Rowe, J. W. & Kahn, R. L. (1998). Successful Aging. A Dell Trade Paperback; New York.
- Roalf, D. R. & Mitchell, S. H. (2012). Risk, Reward, and Economic Decision Making in Aging, *Psychological Sciences and Social Sciences*, 67(3), 289-298.
- Sen, A.(1993). The Economics of Life and Death. *Scientific American*, 18-25.
- Strawbridge, W. J. & Wallhagen, M. I. & Cohen, R. D. (2002). Successful Aging and Well-being: Self-Rated Compared with Rowe and Kahn. *The Gerontologist*, 42(3), 727-733.
- Stewart, M.(1996). Life Cycle Assessment for Process Design - The Case of Minerals Processing. *CLEAN TECHNOLOGY FOR THE MINING INDUSTRY*. 3, 67-84 .
- Torres, S. (2002). Relational Values and Ideas Regarding Successful Aging. *Journal of Comparative Family Studies*, 33(3), 417-431.
- Torres, S. & Hammarstrom, G. (2009). Successful aging as an oxymoron: older people- with and without home-help care-talk about what aging well means to them. *International Journal of Ageing and Later Life*. 4(1), 23-54.
- Tornstam, L. (2003). Attitudes Toward Embodied old age among swedes, *Ageing and Human Development*, 56(2), 133-153.
- Vaillant, G. E. & Mukamal, K. (2002). Successful Aging. *The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158(6), 839-847.

* 본 조사는 통계법 제13조 및 제14조에 의거 비밀이 보장되며 통계자료 목적 이외에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설문지

안녕하십니까?

본 조사는 “여성노인의 성공적 노화 인식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라는 제목의 연구논문 작성 과정에서 귀하의 의견을 수집하기 위하여 진행되고 있습니다. 귀한 시간을 내시어 설문에 참여해주시는 결과는 삶의 질적인 향상을 가져오는데 중요한 정책적 정보자료가 될 것입니다. 귀하의 응답은 매우 귀중한 자료가 될 것이며 옳고 그른 답이 없습니다. 귀하께서 “성공적 노화”에 대해 생각하시고 있는 점을 한 문항도 빠짐없이 솔직하게 답해주시면 됩니다.

바쁘신 시간을 내어 설문에 응해주신 점에 대해 감사드리며, 귀하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2. 12.

♣ 다음은 귀하의 거주지역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에 관한 질문입니다.
해당사항에 ○표하여 주십시오.

귀하께서는 현재 거주지역이 어디입니까? ① 제주 ② 서울

♣ 다음은 귀하의 일반적인 사항에 관한 질문입니다.
해당사항에 ○표하여 주십시오.

귀하의 연령대는 어떻게 되십니까? ① 60대 ② 70대 ③ 80대 이상

□ 최종학력은 어떻게 되십니까?

- ① 무학 ② 초등학교 졸업 ③ 중학교 졸업
- ④ 고등학교 졸업 ⑤ 대학교 졸업

□ 귀하는 종교가 있습니까? ① 기독교 ② 불교 ③ 천주교 ④ 무교

□ 현재 배우자가 있습니까? ① 있다 ② 없다

□ 귀하께서는 자원봉사 경험이 있습니까? ① 있다 ② 없다

□ 귀하의 월 평균 소득(혹은 용돈)은 얼마 정도 됩니까?

- ① 50만원 미만 ② 50 ~ 100만원 미만 ③ 100 ~ 150만원 미만 ④ 150만원 이상

□ 비슷한 연령의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 볼 때, 현재 귀하의 경제생활 수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낮다 ② 보통 ③ 높다

□ 귀하께서는 현재 직업을 가지고 계십니까? ① 있다 ② 없다

♣ 다음은 성공적 노화에 대한 ‘자녀와의 관계’ 중요도에 대한 질문입니다. 각 항목에 귀하께서 매우 동의하면 ‘⑤’에, 전혀 동의하지 않으면 ‘①’에 ○표 혹은 √표를 해주십시오.

‘자녀와의 관계’	전혀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지 않다	보통 이다	중요하다	매우 중요하다
1. 자녀들이 나를 돌봐줘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2. 내가 필요할 때 자녀들이 물심양면으로 도와줘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3. 자녀들과 자주 연락하거나 만나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4. 자녀들에게 공부를 많이 시켜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 다음은 성공적 노화에 대한 ‘자기통제’ 중요도에 대한 질문입니다. 각 항목에 귀하께서 매우 동의하면 ‘⑤’에, 전혀 동의하지 않으면 ‘①’에 ○표 혹은 √표를 해주십시오.

‘자기통제’	전혀 중요하지 않다	중요 하지 않다	보통 이다	중요 하다	매우 중요 하다
1. 매일 규칙적인 생활을 해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2. 건강을 위해 규칙적으로 운동을 해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3. 몸이 허락하는 한 활동을 계속해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4. 내 마음을 다스릴 수 있어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5. 즐거운 마음으로 살아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 다음은 성공적 노화에 대한 ‘사회적 활동 및 지지’ 중요도에 대한 질문입니다. 각 항목에 귀하께서 매우 동의하면 ‘⑤’에, 전혀 동의하지 않으면 ‘①’에 ○표 혹은 √표를 해주십시오.

‘사회적 활동 및 지지’	전혀 중요하지 않다	중요 하지 않다	보통 이다	중요 하다	매우 중요 하다
1. 죽기 전에 해야 할 일을 다 할 수 있어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를 위해 무엇인가를 배워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3. 친, 인척들과 자주 어울려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4. 주변 사람들에게 필요한 사람이여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5. 취미, 종교, 봉사 등 다양한 활동을 해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6. 친목 모임에 꾸준히 나가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7. 비슷한 환경이나 처지의 사람들과 서로 베풀며 살아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8. 자식들의 도움 없이 생활할 수 있는 돈이 있어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 다음은 성공적 노화에 대한 ‘가족지향’ 중요도에 대한 질문입니다. 각 항목에 귀하께서 매우 동의하면 ‘⑤’에, 전혀 동의하지 않으면 ‘①’에 ○표 혹은 √표를 해주십시오.

‘가족지향’	전혀 중요하지 않다	중요 하지 않다	보통 이다	중요 하다	매우 중요 하다
1. 자녀들이 결혼해서 화목하게 잘 살고 있어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2. 자녀들이 사회적으로 자리를 잡아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3. 자녀들이 건강해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4. 자녀들이 경제적으로 걱정 없이 살고 있어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 다음은 성공적 노화에 대한 ‘자기효능’ 중요도에 대한 질문입니다. 각 항목에 귀하께서 매우 동의하면 ‘⑤’에, 전혀 동의하지 않으면 ‘①’에 ○표 혹은 √표를 해주십시오.

‘자기효능’	전혀 중요하지 않다	중요 하지 않다	보통 이다	중요 하다	매우 중요 하다
1.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사람이 있어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2. 몸을 움직이는데 불편함이 없어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3. 앞으로의 삶에 대해 희망을 가져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4. 알고 지내는 사람들과 계속 좋은 관계를 가져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5. 매일 매일 할 일거리가 있어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 다음은 성공적 노화에 대한 ‘부부간의 관계’ 중요도에 대한 질문입니다. 각 항목에 귀하께서 매우 동의하면 ‘⑤’에, 전혀 동의하지 않으면 ‘①’에 ○표 혹은 √표를 해주십시오.

‘부부간의 관계’	전혀 중요하지 않다	중요 하지 않다	보통 이다	중요 하다	매우 중요 하다
1. 부부는 서로를 이해해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2. 부부는 집안 일을 서로 같이 해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3. 부부 모두 건강해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 다음은 귀하의 긍정적인 삶의 만족도에 관한 질문입니다. 해당사항에 ○표하여 주십시오.

삶의 만족도	전혀 그렇지 않다	그저 그렇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현재의 전반적인 삶에 만족한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행복한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ABSTRACT

The Effects of Perceived Successful Aging of Elderly Women on Life Satisfaction

Kang Gi-Eun

Department of Home Management
The Graduate School of Jeju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is to figure out perspective differences of successful aging by socio-demographic factors and to identify correlation between perspectives of successful aging and life satisfaction for the purpose of improving the quality of life for Jeju female seniors and presenting positive directions with regard to successful aging. We used a mixed research method, using a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research, in our study.

We used a quantitative survey towards female seniors over 65 in Jeju and Seoul. Variables used include socio-demographic factors, successful aging, life satisfaction, and regions(Jeju, Seoul). In verifying our survey, we used t-test, variance analysis,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and two-way ANOVA by using SPSS 18.0 program. Survey subjects consist of 12 female seniors living in Jeju and we performed in-depth interviews with them regarding 'aging' and 'successful aging.'

The findings of our study are as follows.

First, in terms of perspectives of 'relationship with children' of Jeju female seniors, they showed a strong desire to live independently from their children. Above all, they made great effort to keep their distance from their children, wanting to lead an independent living.

Second, in terms of perspectives of 'self-controlling life,' female seniors in Jeju who are aged from sixties and seventies, graduated at least from middle school, have a spouse, and have income of ₩0.5M or more seemed to regard this category very important. Moreover, their religious belief and activities made them more aware of 'self-controlling life' by relieving them of solitude and sense of isolation and by strengthening emotional stability. Although their perspectives of 'self-controlling life' seemed lower than those of female seniors in Seoul, this category had some degree of influence on them.

Third, in terms of perspectives of 'social activities and support,' seniors involved in religious activities and volunteer experiences tended to have a higher awareness of this category. Especially, after conducting in-depth survey, we found that 'active' female seniors in Jeju had great energy through social activities and this category had a greater influence on them compared with female seniors living in Seoul.

Fourth, in case of perspectives of 'family-oriented life,' Jeju female seniors with income of ₩0.5M or more considered this category very crucial. In particular, this category appeared more influential for Jeju female seniors than for Seoul female seniors in terms of life satisfaction.

Fifth, in case of perspectives of 'self-efficient life,' Jeju female seniors who have religion, volunteer experiences, have income of ₩1.5M or more, and have more than average economic standard thought this category very important. It shows that those with high degree of economic standard and those living by their own income had a high degree of self-efficiency.

Sixth, when it comes to perspectives of 'spousal relationship,' unemployed Jeju female seniors regarded this category very important. Especially, perspectives of 'spousal relationship' has a great influence on Jeju female seniors, making

'spouse-oriented family' one of the characteristics of Jeju families.

Seventh, in terms of perspectives of 'aging,' Jeju female seniors denied the notion of 'the old' and accepted their current living with gratitude. Through this finding, we can see how strong and adaptive they can be. They did not see themselves as old people and were leading a highly satisfactory and successful living.

As this study shows, in establishing policies regarding female seniors living in Jeju, family relationship should be considered first and foremost. Furthermore, policies and programs related to various social activities must be developed and presented so as to help seniors to ease into changes and to improve their quality of living for themselves. Also, policy makers should be able to provide single seniors with programs giving them opportunities to meet other seniors and to provide married seniors with programs catered to elderly couples so that they can lead a life full of vitality.